



2010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 조사

Research on Consumer and Business Survey Index in Seoul

박 희 석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 조사

Research on Consumer and Business Survey Index in Seoul

2010

Ⅱ 연구진

연구책임 박 희 석 • 도시정보센터 서울경제분석팀장
연구원 오 동 훈 • 도시정보센터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금융위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각종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도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바탕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 마련을 위해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 기업체감경기지수(BSI)를 2008년 3/4분기부터 분기 주기로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음.
 - 소비자체감경기지수, 기업체감경기지수는 대표적인 경기지표로서 다른 통계(산업생산, 경제성장률 등)에 비해 속보성이 우수하고, 서울지역의 경기 체감 및 전망을 진단하기에 유용한 지표임.

2. 조사 방법

1) 소비자체감경기조사

(1) 표본설계

- 소비자체감경기조사를 위한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서울시 일반가구로 한정하였으며 미혼가구는 제외함.

- 목표 표본은 서울 소재 1,000가구이며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는 연령별 구별 비례에 맞게 표본비율을 할당함.
- 부가적으로 권역별 결과 산출을 위해 5대 권역별로 나누어 가구 표본을 할당함.
- 권역별 해당 자치구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는 「서울 서베이」 등 기존 조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권역을 구분함.
- 응답대상자는 가구주 및 가구주 부인으로 한정함.

〈표 1〉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25	223	324	260	168	1,000
도심권	1	11	15	12	11	50
서북권	3	26	35	29	23	116
서남권	9	71	97	79	49	305
동남권	4	41	70	55	27	197
동북권	8	74	107	85	58	332

(2) 지수산출 방법 및 분석단위

- 소비자 체감경기지수는 가구부문을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text{CSI} = & (\text{'매우 나쁨' 응답빈도} \times 0 + \text{'다소 나쁨' 응답빈도} \times 50 \\
 & + \text{'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text{'다소 좋음' 응답빈도} \times 150 \\
 & + \text{'매우 좋음'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end{aligned}$$

- CSI의 범위는 $0 \leq CSI \leq 200$ 이며 CSI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의 체감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분기보다 악화, 100이면 전분기와 보합수준을 의미함.
- 1,000가구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별로 분류함.
-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학력별, 응답자 성별, 가구주 직업별임.

(3) 설문 내용

- 기본조사는 서울지역의 분기마다 조사할 기본적인 소비자경기전망과 관련된 지수를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함.

〈표 2〉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지수

분류	지수명	세부 분류 지수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태도지수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지수 이용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경기판단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 미래경기예상지수
	구입태도지수	내구재구입태도지수, 주택구입태도지수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소비지출지수	현재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 :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육/문화비, 기타
	순자산지수	-
	고용상황전망지수	-
	물가전망지수	-

- 분기별 서울의 지역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함.

2) 기업체감경기조사

(1) 표본설계

- 조사 모집단은 서울지역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코스닥 및 거래소 상장기업 8,530개 업체로 정함.
 - 조사 대비 목표 표본수가 500개로 작기 때문에(전경련 조사와는 비슷함) 서울시 기업을 전체적으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내수기업/수출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조사대상 기업은 연간 매출액 기준 50억 원 이상의 서울 소재 영리 기업을 기준으로 함.
 - 조사대상 기업 지정은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서울 소재 영리 기업 명부를 이용함.
- 업종별 모집단 분포를 근거로 목표 표본 500개 업체를 추출함.
 - 네이만 배분방식에 의해 10개 업종, 5개 매출규모로 500개를 업체 비율에 따라 할당함.

(2) 분석단위

- 기업체감경기 부문의 지수 산출 방법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함.
 - 이 방법은 소비자체감경기지수 산출 방법과 비슷하고 그 기준도 같아 서울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에 사용하기로 함.
 - 경영부문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 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 기업체감경기지수(BS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BSI = ('매우 감소' 응답빈도 \times 0 + '다소 감소' 응답빈도 \times 50 \\ + '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다소 증가' 응답빈도 \times 150 \\ + '매우 증가'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 BSI의 범위는 $0 \leq BSI \leq 200$ 로 BSI가 100 이상이면 기업의 체감 경기가 전월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으로 해석함.
- 모집단 대비 응답률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응답률이 임의적(Random)이지 않다고 가정할 때 사용하여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기업들은 응답률이 95%, 소기업은 응답률이 40%일 때, 표본분포가 기업규모에 대해 대표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률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함.
-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응용하여 응답률과 업종별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함.
 - 규모별 가중치는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1차 가중치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BSI = \sum_{i=1}^n w_i \cdot BSI_i$$

응답률 가중치: w_{i1}

업종별 매출액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 w_{i2}

최종 가중치 : $w_i = w_{i1} * w_{i2}$

- 500개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권역별, 종업원수별, 매출액별 등으로 나눔.
 -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 종업원수별, 매출액별, 업종별, 기업형태별임.

(3) 설문 내용

- 서울지역의 분기마다 조사할 기본적인 기업체감경기지수(BSI)와 관련된 세부지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 서울지역 기업체감경기지수

지수명	세부 분류 지수	비고
업황지수	-	현 분기 실적, 다음 분기 전망
매출지수	내수부문, 수출부문	
경상이익지수	-	
자금사정지수	-	
생산/설비부문지수	생산, 설비 가동률, 설비투자규모	
제품재고지수	-	
종사자수지수	-	

- 분기별로 서울의 지역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함.

3. 조사 결과

1) 소비자경기전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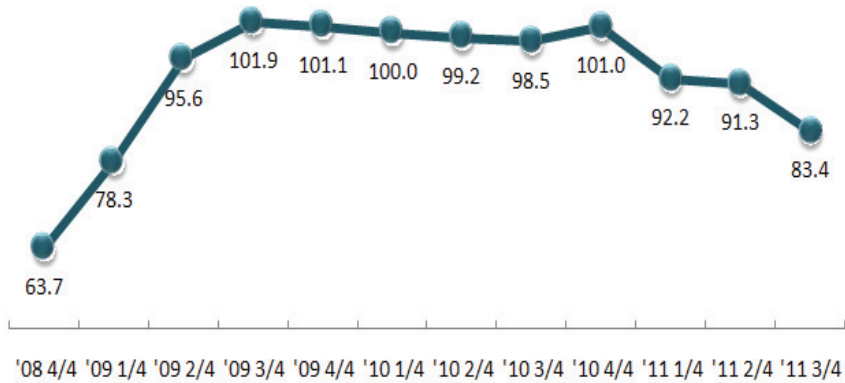
(1) 소비자태도지수

- 2011년 3/4분기 서울시 소비자태도지수는 83.4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7.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지표인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11년 3/4분기에 각각 85.0, 103.2를 기록
 - 「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모두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미래생활형편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

- 2011년 3/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0.4, 「경기예상지수」는 87.1을 기록
 - － 이는 전분기에 비해 각각 17.6p, 11.3p 하락한 수치로, 경기판단지수가 전체 소비자태도지수의 하락을 주도
 - － 경기판단지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데는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11년 3/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3.0p 하락한 91.4,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6.1p 하락한 92.4를 기록

〈표 4〉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0년 4/4분기	98.5	90.6	110.6	81.5	109.7	100.3	96.5
2011년 1/4분기	101.0	92.5	111.2	85.3	115.6	100.3	104.5
2011년 2/4분기	92.2	90.8	108.7	66.9	101.5	93.1	100.8
2011년 3/4분기	91.3	89.7	106.2	68.0	98.4	94.4	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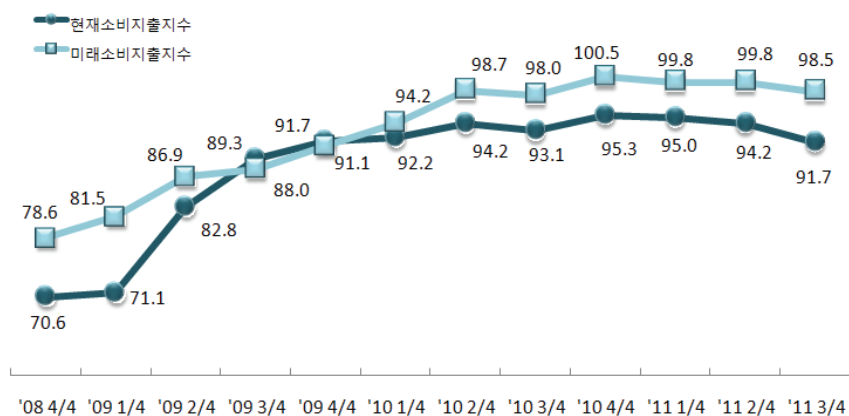
〈그림 1〉 소비자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 2011년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보다 2.5p 하락한 91.7,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보다 1.3p 하락한 98.5를 기록하여 두 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
- 2011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95.6로 전분기대비 5.5p 하락하여 3분기만에 다시 기준치(100) 아래로 떨어짐.
- 2011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6.4로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였고, 고용상황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10.8p 하락하여 고용상황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
- 2011년 3/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155.4로 소비자들의 물가불안 심리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표 5〉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0년 4/4분기	93.1	98.0	95.9	107.6	157.9
2011년 1/4분기	95.3	100.5	98.4	107.8	147.7
2011년 2/4분기	95.0	99.8	101.8	100.6	154.5
2011년 3/4분기	94.2	99.8	101.1	97.2	1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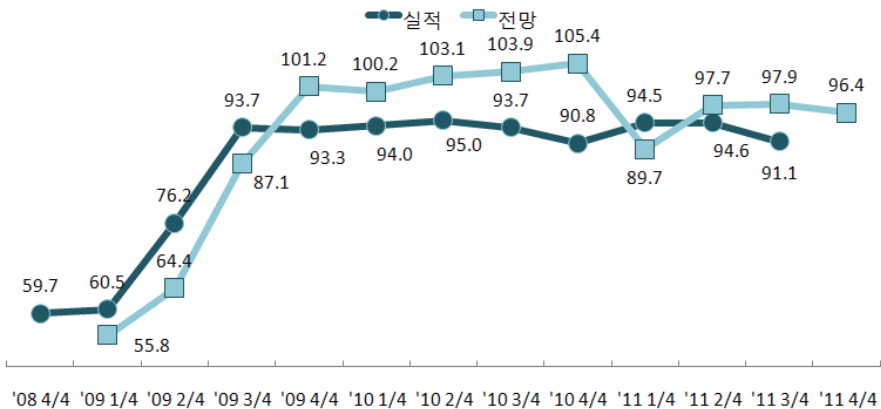


〈그림 2〉 소비지출지수

2) 기업경기전망조사

(1) 업황지수

- 2011년 3/4분기 업황지수는 전분기대비 3.5p 하락한 91.1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4/4분기 업황전망지수도 96.4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98.2로 전분기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비제조업 역시 전분기(93.3)보다 5.4p 하락한 87.9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4/4분기 제조업의 업황전망지수는 106.8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비제조업은 91.7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3〉 업황 지수

(2) 실적 및 전망 지수

- 2011년 3/4분기 매출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4.5p 하락한 95.8을 기록하여 하락 반전하였으며 4/4분기 매출전망지수 역시 98.1로 부정적인 경기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2011년 3/4분기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7.7p 하락한 92.9를 기록하였으며 4/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 역시 95.9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3/4분기 자금사정실적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5.9p 하락한 87.7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
- 2011년 3/4분기 종사자수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2p 하락한 94.8로 적정수준인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표 6〉 서울지역 기업경기지수

구 분	실적				전망			
	2010년 4/4분기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1/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매출	96.8	90.6	98.6	100.3	106.5	90.3	102.0	104.1
내수	95.7	90.9	98.6	100.1	107.4	90.5	102.3	103.9
수출	105.4	93.6	97.5	89.3	101.3	102.1	103.2	95.3
생산	101.6	94.3	96.7	94.7	100.9	90.3	104.5	102.1
설비가동률	105.5	90.5	95.1	96.3	98.8	90.8	98.8	103.8
설비투자규모	102.8	93.7	93.1	99.7	98.7	85.9	93.4	97.7
경상이익	94.8	86.5	107.1	100.6	103.3	89.8	109.7	102.7
자금사정	94.6	86.2	101.2	93.6	103.9	93.0	104.5	97.2
제품재고	104.2	108.0	98.7	95.6	103.8	94.6	95.9	99.3
종사자수	89.4	91.5	93.0	97.0	91.4	88.4	96.1	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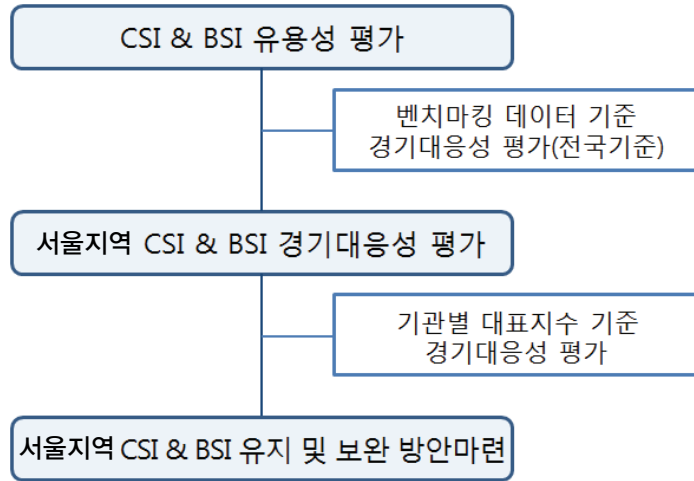
* 전망은 해당분기의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분기 조사된 결과

4.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를 통해 작성된 각 지수는 서울지역 경기를 평가하는 주요 지역통계로서 각 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진단이 필요
-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은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대해

-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경기국면별 실물지표와의 경기 시차,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경기 반영성, 그리고 향후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 경기조사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실시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



〈그림 4〉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흐름도

2) 모니터링 결과

(1) 소비자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 소비자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소비자태도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소비자경기조사와 삼성경제연구소(서울지역), 한국은행(전국)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구분	삼성경제연구소(서울)	한국은행(전국)
소비자태도지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	0.989 (0,000**)	0.950 (0,000**)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2)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전 산업 업황실적 및 전망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기업경기조사와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업황-실적 (전산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962 (0.000**)	0.948 (0.000**)
업황-전망 (전산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955 (0.000**)	0.861 (0.003**)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3) 모니터링 결과 종합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와 기관별 대표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과 소비자경기조사와 기업경기조사 모두 경기반영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
 - 소비자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소비자태도지수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지표를 비교한 결과 각 지수의 경기흐름이 유의한 수준에서 동일한 것으로 분석
 -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전 산업 업황 실적 및 전망지수 역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기흐름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에 대한 전면적 개편보다는 지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특성을 현재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3)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개선방안

- 서울지역 소비자경기조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 서울시 권역별 지수의 산출을 통해 공간적으로 보다 세분화된 각 권역의

- 경기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 작성 및 발표방안 모색
- 분기별 이슈를 중심으로 조사되던 부가조사를 가계부채, 주택 및 부동산 경기진단과 같은 조사로 변경하여 주기적 조사를 통해 부족한 관련 통계 보완 및 시계열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의 개선방안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서울시 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방식, 조사샘플, 지수산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 특히 기업경기조사의 부가조사는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고용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 배경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흐름	4
제2절 조사 방법	5
1. 표본 설계	5
2. 지수산출 방법 및 분석단위	10
3. 설문 내용	14
 제2장 2010년 4/4분기 조사 결과	23
제1절 2010년 4/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23
1. 소비자경기지수	23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27
3. 부가조사: 가구 저축 동향조사	31
제2절 2010년 4/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36
1. 기업경기지수	36
 제3장 2011년 1/4분기 조사 결과	43
제1절 2011년 1/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43
1. 소비자경기지수	43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47
3. 부가조사: 주택관련 조사	51
제2절 2011년 1/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57
1. 기업경기지수	57

제4장 2011년 2/4분기 조사 결과	65
제1절 2011년 2/4분기 소비자채감경기조사 결과	65
1. 소비자경기지수	65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69
3. 부가조사: 사교육비 지출조사	73
제2절 2011년 2/4분기 기업채감경기조사 결과	75
1. 기업경기지수	75
 제5장 2011년 3/4분기 조사 결과	 83
제1절 2011년 3/4분기 소비자채감경기조사 결과	83
1. 소비자경기지수	83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87
3. 부가조사: 가계부채 현황	91
제2절 2011년 3/4분기 기업채감경기조사 결과	94
1. 기업경기지수	94
2. 기업 부문 부가설문: 고용 상황 및 전망 조사	99
 제6장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105
제1절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개요	105
1.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지수진단	105
2.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절차	106
제2절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108
1.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 유용성 기준	108
2. 전국 단위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 유용성 검토 결과	110

3.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 모니터링 결과	123
제3절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개선방안	127
부 록	131
영 문 요 약	149

표 목 차

〈표 1-1〉 가구주 연령별 구별 가구 분포	5
〈표 1-2〉 25개 자치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	6
〈표 1-3〉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7
〈표 1-4〉 5개 권역 구분 기준	7
〈표 1-5〉 조사대상기업의 모집단 분포	8
〈표 1-6〉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네이만(Neyman) 배분에 의한 표본 할당	9
〈표 1-7〉 소비자채감경기지수 가중치 부여 기준	10
〈표 1-8〉 소비자채감경기조사 결과 분석	11
〈표 1-9〉 기업채감경기지수 가중치 부여 기준	12
〈표 1-10〉 기업채감경기조사 결과 분석	13
〈표 1-11〉 서울지역 소비자채감경기지수	14
〈표 1-12〉 타 기관 소비자채감경기지수 비교	15
〈표 1-13〉 소비자채감경기 관련 부가조사 주제	16
〈표 1-14〉 소비자채감경기 관련 부가조사의 세부 내용	16
〈표 1-15〉 서울지역 기업채감경기지수	17
〈표 1-16〉 기관별 소비자채감경기지수 비교	17
〈표 1-17〉 기업채감경기 관련 부가조사 주제	18
〈표 1-18〉 기업채감경기 관련 부가조사의 세부 내용	19
〈표 6-1〉 벤치마킹 지표	109
〈표 6-2〉 소비자경기조사 유용성 검토결과	110
〈표 6-3〉 기업경기조사 유용성 검토결과	115

그림 목 차

〈그림 1-1〉 조사 흐름도	4
〈그림 2-1〉 2010년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23
〈그림 2-2〉 2010년 4/4분기 생활형편지수	24
〈그림 2-3〉 2010년 4/4분기 경기판단지수	25
〈그림 2-4〉 2010년 4/4분기 구입태도지수	26
〈그림 2-5〉 2010년 4/4분기 소비지출지수	27
〈그림 2-6〉 2010년 4/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28
〈그림 2-7〉 2010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	29
〈그림 2-8〉 2010년 4/4분기 물가전망	30
〈그림 2-9〉 월평균 저축액	31
〈그림 2-10〉 저축 목적	32
〈그림 2-11〉 작년대비 올해 저축규모 변화	33
〈그림 2-12〉 추가 저축유형	34
〈그림 2-13〉 우리나라 저축률 감소 이유	35
〈그림 2-14〉 2010년 4/4분기 업황지수	36
〈그림 2-15〉 2010년 4/4분기 매출액지수	37
〈그림 2-16〉 2010년 4/4분기 경상이익지수	38
〈그림 2-17〉 2010년 4/4분기 자금사정지수	39
〈그림 2-18〉 2010년 4/4분기 종사자수지수	40
〈그림 3-1〉 2011년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43
〈그림 3-2〉 2011년 1/4분기 생활형편지수	44
〈그림 3-3〉 2011년 1/4분기 경기판단지수	45
〈그림 3-4〉 2011년 1/4분기 구입태도지수	46
〈그림 3-5〉 2011년 1/4분기 소비지출지수	47

〈그림 3-6〉 2011년 1/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48
〈그림 3-7〉 2011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	49
〈그림 3-8〉 2011년 1/4분기 물가전망	50
〈그림 3-9〉 현재 거주주택 유형	51
〈그림 3-10〉 현재 거주주택 유형	52
〈그림 3-11〉 주거면적	53
〈그림 3-12〉 현재 거주주택 유형과 향후 선호주택 유형	54
〈그림 3-13〉 향후 10년 후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	55
〈그림 3-14〉 올해 아파트 가격 전망	56
〈그림 3-15〉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전월대비 증감률	56
〈그림 3-16〉 2011년 1/4분기 업황지수	57
〈그림 3-17〉 2011년 1/4분기 매출액지수	58
〈그림 3-18〉 2011년 1/4분기 경상이익지수	59
〈그림 3-19〉 2011년 1/4분기 자금사정지수	60
〈그림 3-20〉 2011년 1/4분기 종사자수지수	61
〈그림 4-1〉 2011년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65
〈그림 4-2〉 2011년 2/4분기 생활형편지수	66
〈그림 4-3〉 2011년 2/4분기 경기판단지수	67
〈그림 4-4〉 2011년 2/4분기 구입태도지수	68
〈그림 4-5〉 2011년 2/4분기 소비지출지수	69
〈그림 4-6〉 2011년 2/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70
〈그림 4-7〉 2011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	71
〈그림 4-8〉 2011년 2/4분기 물가전망	72
〈그림 4-9〉 자녀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	73

〈그림 4-10〉 자녀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	73
〈그림 4-11〉 가구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74
〈그림 4-12〉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자녀 1인당 사교육비	74
〈그림 4-13〉 2011년 2/4분기 업황지수	75
〈그림 4-14〉 2011년 2/4분기 매출액지수	76
〈그림 4-15〉 2011년 2/4분기 경상이익지수	77
〈그림 4-16〉 2011년 2/4분기 자금사정지수	78
〈그림 4-17〉 2011년 2/4분기 종사자수지수	79
〈그림 5-1〉 2011년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83
〈그림 5-2〉 2011년 3/4분기 생활형편지수	84
〈그림 5-3〉 2011년 3/4분기 경기판단지수	85
〈그림 5-4〉 2011년 3/4분기 구입태도지수	86
〈그림 5-5〉 2011년 3/4분기 소비지출지수	87
〈그림 5-6〉 2011년 3/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88
〈그림 5-7〉 2011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	89
〈그림 5-8〉 2011년 3/4분기 물가전망	90
〈그림 5-9〉 가계부채 유무	91
〈그림 5-10〉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91
〈그림 5-11〉 부채상환 형태	92
〈그림 5-12〉 소득 대비 부채상환 금액 비율	92
〈그림 5-13〉 소득수준별 부채 주사용 용도(복수응답)	93
〈그림 5-14〉 2011년 3/4분기 업황지수	94
〈그림 5-15〉 2011년 3/4분기 매출액지수	95
〈그림 5-16〉 2011년 3/4분기 경상이익지수	96

〈그림 5-17〉 2011년 3/4분기 자금사정지수	97
〈그림 5-18〉 2011년 3/4분기 종사자수지수	98
〈그림 5-19〉 2011년 3/4분기 고용규모 변동	99
〈그림 5-20〉 고용규모 감소 이유	99
〈그림 5-21〉 고용규모 증가 이유	100
〈그림 5-22〉 다음 분기 채용계획 여부	100
〈그림 5-23〉 다음 분기 채용규모	101
〈그림 5-24〉 다음 분기 채용계획 이유	101
〈그림 5-25〉 인력채용의 애로사항	102
〈그림 6-1〉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흐름도	106
〈그림 6-2〉 국내총생산(GDP)	111
〈그림 6-3〉 실질 국민총소득(GNI)	111
〈그림 6-4〉 민간소비증감률	112
〈그림 6-5〉 장단기금리차	112
〈그림 6-6〉 국내총생산(GDP)	113
〈그림 6-7〉 실질 국민총소득(GNI)	113
〈그림 6-8〉 민간소비증감률	114
〈그림 6-9〉 장단기금리차	114
〈그림 6-10〉 국내총생산(GDP)	116
〈그림 6-11〉 실질 국민총소득(GNI)	117
〈그림 6-12〉 민간소비증감률	117
〈그림 6-13〉 설비투자증감률	117
〈그림 6-14〉 재고순환지표	118
〈그림 6-15〉 구인구직비율	118

〈그림 6-16〉 장단기금리차	118
〈그림 6-17〉 제조업가동률지수	119
〈그림 6-18〉 국내총생산(GDP)	120
〈그림 6-19〉 실질 국민총소득(GNI)	120
〈그림 6-20〉 민간소비증감률	120
〈그림 6-21〉 설비투자증감률	121
〈그림 6-22〉 재고순환지표	121
〈그림 6-23〉 구인구직비율	121
〈그림 6-24〉 장단기금리차	122
〈그림 6-25〉 제조업가동률지수	122
〈그림 6-26〉 소비자태도지수	123
〈그림 6-27〉 현재 및 향후경기판단지수	124
〈그림 6-28〉 전 산업 업황지수	126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조사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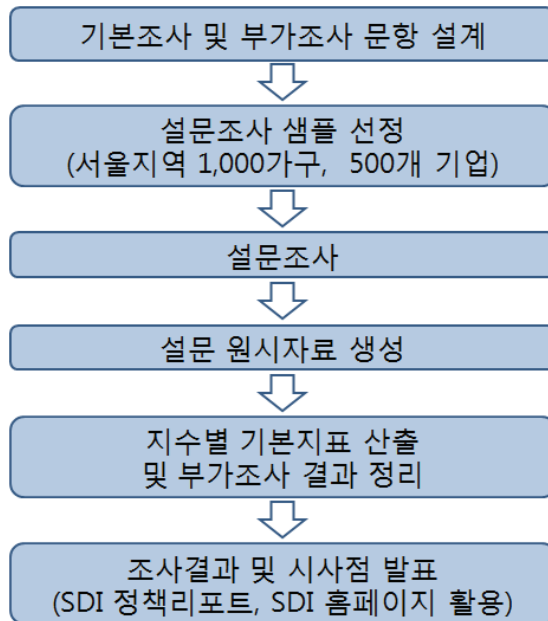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금융위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각종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도시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바탕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통계가 필요함.
 - 지역경제 현안과 관련된 개발사업과 산업정책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서울시의 경제적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통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서울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기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 기업체감경기지수(BSI)를 2008년 3/4분기부터 분기 주기로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음.

- 소비자체감경기지수, 기업체감경기지수는 대표적인 경기지표로서 다른 통계(산업생산, 경제성장률 등)에 비해 속보성이 우수하고, 서울지역의 경기 체감 및 전망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임.
- 또한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 기업체감경기지수(BSI)는 과학적·체계적 정보로서 행정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 정책수립, 정책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 흐름

-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조사와 기업체감경기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세부지표를 분기 단위로 산출함.



(그림 1-1) 조사 흐름도

제2절 조사 방법

1. 표본 설계

1) 소비자체감경기조사 부문 표본설계

- 소비자체감경기조사를 위한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서울시 일반가구로 한정하고, 미혼 가구는 제외함(<표 1-1> 참조).

〈표 1-1〉 가구주 연령별 구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61,544	564,096	814,576	654,814	421,881	2,516,911
종로구	667	6,876	11,837	9,719	8,376	37,475
중구	654	6,920	9,699	8,475	7,064	32,812
용산구	1,322	11,751	15,666	13,139	11,740	53,618
성동구	2,288	20,887	25,248	20,064	15,025	83,512
광진구	2,636	21,535	30,555	22,463	13,815	91,004
동대문구	2,152	19,059	28,147	25,165	19,242	93,765
종랑구	2,715	23,909	37,574	28,511	18,207	110,916
성북구	2,594	25,295	33,395	28,689	22,344	112,317
강북구	2,034	17,942	26,822	23,972	19,567	90,337
도봉구	2,099	21,387	33,250	24,953	15,600	97,289
노원구	3,434	38,406	56,292	39,013	22,338	159,483
은평구	2,892	26,360	36,120	29,523	21,958	116,853
서대문구	1,931	18,512	25,837	20,766	17,200	84,246
마포구	2,579	23,534	26,979	21,836	17,390	92,318
양천구	2,615	27,124	47,759	31,694	15,586	124,778
강서구	3,875	33,771	47,889	37,744	19,663	142,942
구로구	3,002	25,598	32,420	28,708	17,314	107,042
금천구	1,866	15,163	22,299	17,069	11,069	67,466
영등포구	2,829	25,611	31,060	26,167	17,804	103,471
동작구	2,682	23,079	28,496	26,186	19,027	99,470
관악구	3,930	30,128	35,850	33,177	23,430	126,515
서초구	1,833	19,784	31,130	27,178	14,813	94,738
강남구	2,578	24,253	45,637	37,586	18,334	128,388
송파구	3,656	32,989	52,375	40,516	19,586	149,122
강동구	2,681	24,223	42,240	32,501	15,389	117,034

○이 연구의 소비자체감경기조사 산출을 위한 목표 표본은 서울 소재 1,000 가구이며,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는 다음 <표 1-2>와 <표 1-3>과 같이 확정함.

—<표 1-1>를 이용하여 연령별 구별 비례에 따라 <표 1-2>와 같이 1,000가구를 25개 자치구별로 표본비율을 할당함.

<표 1-2> 25개 자치구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

(단위: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전체	25	223	324	260	168	1,000
종로구	0	3	5	4	3	15
중구	0	3	4	3	3	13
용산구	1	5	6	5	5	22
성동구	1	8	10	8	6	33
광진구	1	9	12	9	5	36
동대문구	1	8	11	10	8	38
종랑구	1	9	15	11	7	43
성북구	1	10	13	11	9	44
강북구	1	7	11	10	8	37
도봉구	1	8	13	10	6	38
노원구	1	15	22	16	9	63
은평구	1	10	14	12	9	46
서대문구	1	7	10	8	7	33
마포구	1	9	11	9	7	37
양천구	1	11	19	13	6	50
강서구	2	13	19	15	8	57
구로구	1	10	13	11	7	42
금천구	1	6	9	7	4	27
영등포구	1	10	12	10	7	40
동작구	1	9	11	10	8	39
관악구	2	12	14	13	9	50
서초구	1	8	13	11	6	39
강남구	1	10	19	15	7	52
송파구	1	13	21	16	8	59
강동구	1	10	17	13	6	47

- 권역별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표 1-3>과 같이 구 단위 소표본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5대 권역별로 나누어 가구 표본을 할당함.
- 권역별 해당 자치구는 <표 1-4>와 같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는 『서울서베이』 등 기존 조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권역 구분을 따름.

〈표 1-3〉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분포

(단위: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25	223	324	260	168	1,000
도심권	1	11	15	12	11	50
서북권	3	26	35	29	23	116
서남권	9	71	97	79	49	305
동남권	4	41	70	55	27	197
동북권	8	74	107	85	58	332

〈표 1-4〉 5개 권역 구분 기준

권역	해당 자치구
도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북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남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동남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동북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 응답자는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로 한정함.

2) 기업체감경기조사 부문 표본설계

- 조사 모집단은 서울지역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코스닥 및 거래소 상장기업 8,530개 업체로 정함(<표 1-5> 참조).
 - － 조사 대비 목표 표본수가 500개로 적기 때문에 업종별 세부적인 지표 산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서울시 기업을 전체적으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조사내용은 타 조사기관인 한국은행,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내수기업/수출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함.
- 조사대상 기업은 지표의 대표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서울 소재 영리 기업을 기준으로 함.
 - － 조사대상 기업 지정은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서울 소재 영리 기업 명부를 이용함.

<표 1-5> 조사대상기업의 모집단 분포

(단위: 개)

업종	규모					총합계
	50~299억	300~999억	1,000~4,999억	5,000~9,999억	1조 이상	
제조	1,227	434	259	36	51	2,007
건설	1,023	280	82	11	14	1,410
운수업	308	104	42	9	13	476
통신업	42	13	6	-	3	64
금융, 보험, 증권업	190	81	56	17	54	398
도소매업	1,653	478	199	26	25	2,381
음식숙박업	61	19	13	2	1	96
부동산 및 임대업	120	33	8	-	1	162
사업서비스업	948	211	76	7	6	1,248
기타	208	55	19	5	1	288
총합계	5,780	1,708	760	113	169	8,530

- <표 1-5>의 업종별 모집단 분포를 근거로 목표 표본 500개 업체를 추출함.
 - 구체적으로 네이만(Neyman) 배분방식¹⁾에 의해 <표 1-6>과 같이 10개 업종, 5개 매출규모로 500개를 업체 비율에 따라 할당함.
- 또한, 제조업은 서비스 부문에 비해 경기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임.
 - 따라서 이러한 점과 서울의 산업비중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표산출을 위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중을 <표 1-6>과 같이 176:324로 할당하였음.

<표 1-6>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 네이만(Neyman) 배분에 의한 표본 할당

(단위: 개)

업종	규모					총합계
	50~299억	300~999억	1,000~4,999억	5,000~9,999억	1조 이상	
제조	33	27	69	21	26	176
건설	16	16	14	7	10	63
운수업	9	13	11	2	3	38
통신업	5	1	1	1	1	9
금융, 보험, 증권업	2	4	19	7	27	59
도소매업	14	6	19	5	12	56
음식숙박업	5	4	6	-	1	16
부동산 및 임대업	9	5	4	-	-	18
사업서비스업	16	11	12	1	2	42
기타	9	6	5	2	1	23
총합계	118	92	160	46	83	500

주 1: 실제 표본은 응답률을 고려하여 3배수를 추출함. 원표본응답률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표본대체는 동일업종, 동일규모에 한해 대체함.

1) 네이만 배분법은 표본설계방법의 한 종류로 층화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 method) 중 최적 배분방법의 특수한 경우임.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추정량의 분산을 보다 작게 하여 변동의 정도를 높인 배분법임.

2. 지수산출 방법 및 분석단위

1) 소비자체감경기 부문

(1) 지수산출 방법

○가구부문을 항목별로 사용빈도가 높은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표 1-7〉 소비자체감경기지수 가중치 부여 기준

점수	5점 서열척도 배분	가중치
1	매우 나쁨	0
2	다소 나쁨	50
3	동일(적정 등)	100
4	다소 좋음	150
5	매우 좋음	200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의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text{CSI} = & (\text{'매우 나쁨' 응답빈도} \times 0 + \text{'다소 나쁨' 응답빈도} \times 50 \\ & + \text{'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text{'다소 좋음' 응답빈도} \times 150 \\ & + \text{'매우 좋음'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end{aligned}$$

—소비자체감경기지수의 범위는 $0 \leq \text{CSI} \leq 200$ 이며 소비자체감경기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의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분기보다 악화, 100이면 전분기와 보합수준을 의미함.

(2) 분석단위

-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1,000가구 표본을 세부적으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별로 분류함.
-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수준별, 학력별, 응답자 성별, 가구주 직업별이며 자세한 분류는 <표 1-8>과 같음.

〈표 1-8〉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분석

기준	단위
권역별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 2000~3000만원, 3000~4000만원, 4000~5000만원, 5000~6000만원, 6000만원 이상, 무응답
가구주 직업	관리직/사무직, 전문직/기술직, 기능/노무/영업직 자영업, 무직/주부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가구주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졸, 대학원 이상
응답자 구분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
응답자 성별	남자, 여자
주거 형태	자가, 전세, 기타
가구원 수	2명 이하, 3명, 4명, 5명 이상

2) 기업체감경기 부문

(1) 지수산출 방법

○기업체감경기 부문의 지수 산출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함.

—이 방법은 소비자체감경기지수 산출 방법과 비슷하고 그 기준도 같아서 울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에 사용하기로 함.

—경영부분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 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함.

〈표 1-9〉 기업체감경기지수 가중치 부여 기준

점수	5점 서열척도 배분	가중치
1	매우 감소 (부족, 악화, 곤란 등)	0
2	다소 감소 (부족, 악화, 곤란 등)	50
3	동일 (적정 등)	100
4	다소 증가 (과잉, 호전, 원할 등)	150
5	매우 증가 (과잉, 호전, 원할 등)	200

○기업체감경기지수(BS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BSI = ('매우 감소' 응답빈도 \times 0 + '다소 감소' 응답빈도 \times 50 + '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다소 증가' 응답빈도 \times 150 + '매우 증가'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기업체감경기지수의 범위는 $0 \leq BSI \leq 200$ 이며 기업체감경기지수가 100 이상이면 기업의 체감 경기가 전월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으로 해석함.

(2) 가중치 부여 방법

- 모집단 대비 응답률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되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매출액과 표본 집단의 매출액으로 가중치를 산출
- 모집단 대비 응답률을 고려하여 응답률이 임의적(Random)이지 않다고 가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기업들은 응답률이 95%, 중소기업은 응답률이 40%일 때, 표본분포가 기업규모에 대해 대표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률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함.
-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응용하여 응답률과 업종별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함.
 - 업종별, 규모별 모집단 매출액과 표본 집단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보정 가중치를 부여함.

$$BSI = \sum_{i=1}^n w_i \cdot BSI_i$$

응답률 가중치: w_{i1}

업종별 매출액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 w_{i2}

최종 가중치 : $w_i = w_{i1} * w_{i2}$

(3) 분석단위

- 500개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5개 권역별, 종업원수별, 매출액별, 업종별, 기업형태별로 나누며 자세한 분류는 <표 1-10>과 같음.

〈표 1-10〉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분석

기준	단위
권역별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종업원수	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2007년 매출액	300억 이하, 301~1000억, 1001~5000억, 5001억~1조, 1조 초과
업종	제조업, 비제조업
기업형태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여부	수출기업, 내수기업

3. 설문 내용

-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분하여 매 분기 실시함.
 - － 기본조사는 매회 설문 내용이 같은 조사로 동일한 지수를 산출하여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음.
 - － 부가조사는 매회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한 분야의 구체적인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1) 소비자체감경기 조사

(1) 기본조사

- 기본조사는 서울지역의 분기마다 조사할 기본적인 소비자경기전망과 관련된 지수를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함.

〈표 1-11〉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지수

분류	지수명	세부 분류 지수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태도지수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지수 이용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경기판단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 미래경기예상지수
	구입태도지수	내구재구입태도지수, 주택구입태도지수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소비지출지수	현재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 :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육/문화비, 기타
	순자산지수	-
	고용상황전망지수	-
	물가전망지수	-

- 타 기관(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관련 지수보다 소비 관련 항목이 구체화됨.
 - － 내구재 구입태도와 현재 소비 지출 현황은 타 기관에 없는 내용으로 서울지역의 소비 패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음.

—서울지역 대상 조사자 수가 가장 많고 지역, 연령별로 구체화되어 있어
서울지역만의 소비자체감경기지수를 살펴볼 수 있음.

〈표 1-12〉 타 기관 소비자체감경기지수 비교

기관 (지수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지역 소비자 경기전망조사)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담당부서	창의시정연구본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경제통계국 분석통계팀
이용 가능시점	2008년 4/4분기	분기: 1995년 3/4분기 월단위: 2008년 9월 (통계청 조사와 통합)	1998년 12월 ~2008년 8월 (2008년 9월부터 한국은 행 이관)
대상지역	서울지역 1,000가구 (단, 미혼가구 제외)	서울, 6대 광역시, 기타 23개 도시	도시지역 2,000가구 (20 세 이상 기혼자)
조사내용	소비자태도	소비자심리지수	-
	현재생활형편	현재생활형편	소비자평가 -생활형편
	미래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소비자기대 -생활형편
	현재경기판단	현재경기판단	소비자평가-경기
	미래경기예상	향후경기전망	소비자기대-경기
	내구재구입태도	-	-
	주택구입태도	-	-
	현재소비지출	-	-
	미래소비지출 (항목별: 식료품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육/문화비, 기타)	소비지출전망 (항목별: 의류비, 교육비, 외식비, 교통· 통신비, 교양·오락·문화비, 내구재, 국 내·해외여행비, 의료·보건비)	소비자기대 -소비지출, 내구소비재구 매, 외식·여가·문화
	순자산	-	-
	고용상황전망	취업기회전망	-
	물가예상	6개월, 1년후 물가전망	-
	-	금리수준전망, 가계수입전망, 가계저축전망, 현재가계부채, 가계부채전망, 자산가치전망	-

주 :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는 2008년 8월 조사를 끝으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로 통합됨.

(2) 부가조사

○분기별 서울의 지역 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함.

—분기별로 실시된 부가조사 주제는 다음과 같음.

〈표 1-13〉 소비자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 주제

조사 기간	조사 주제
2010년 4분기	가구저축조사
2011년 1분기	주택관련 조사
2011년 2분기	사교육비 지출조사
2011년 3분기	가계부채현황

—분기별로 실시된 부가조사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1-14〉 소비자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의 세부 내용

조사 기간	조사 내용
2010년 4분기	월평균 저축규모 및 저축률
	저축 유형 및 목적
	작년대비 올해 저축 규모
	추가 저축액 규모 및 투자처
	저축률 감소이유
2011년 1분기	현재 거주하는 집의 유형
	현재 주거형태 및 면적
	향후 10년후 살고 싶은 집의 유형 및 면적, 고려사항
	올해 아파트 가격전망
2011년 2분기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월평균 지출액 및 총액
	사교육 유형
	자녀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지출액
2011년 3분기	가계부채 유무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원리금 상환형태 및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부채 주사용용도

2) 기업체감경기조사

(1) 기본조사

- 분기마다 조사할 기본적인 서울지역의 기업체감경기(BSI)와 관련된 지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15〉 서울지역 기업체감경기지수

지수명	세부 분류 지수	비고
업황 지수	-	현 분기 실적, 다음 분기 전망
매출 지수	내수부문, 수출 부문	
경상이익 지수	-	
자금사정 지수	-	
생산/설비부문 지수	생산, 설비 가동률, 설비투자규모	
제품재고 지수	-	
종사자수 지수	-	

- 타 기관(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은행)의 조사 항목과 비슷하게 구성함.

- 전반적인 경기, 생산액 및 생산규모, 내수·수출규모, 제품재고, 설비투자규모, 가동률, 경상이익 등 대부분 기관의 조사항목과 유사함.
- 고용 관련 통계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종사자수 항목을 포함함.
- 이외의 질문 사항은 부가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표 1-16〉 기관별 소비자체감경기지수 비교

기관명 (지수명)	서울시장개발 연구원 (서울지역 기업 체감경기조사)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전국경제인 연합회 (기업경기 동향조사)	대한상공 회의소 (기업경기 전망조사)	중소기업은행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
담당부서	창의시장 연구본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경제조사팀	경제조사본부 경영조사팀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산출시점	2008. 4/4	2003. 01	1988. 01	2002. 1/4	1980. 1/4

〈표 계속〉 기관별 소비자체감경기지수 비교

기관명 (지수명)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서울지역 기업 체감경기조사)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전국경제인 연합회 (기업경기 동향조사)	대한상공 회의소 (기업경기 전망조사)	중소기업은행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조사)
조사대상	서울 소재 기업 (500개)	제조업(중분류 21개 업종) 및 비제조업(대분 류 11개 업종)	산업별, 업종별로 매출액순 600대 업체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인 제조업체 1,485개사	종업원수 5~300인 이하의 중소제조업 1,606개 업체
조사 내용	전반적인 경기	0	-	0	0
	생산액/생산규모	0	-	0	-
	내수규모	0	0	0	-
	수출규모	0	0	0	-
	제품재고	0	0	0	-
	설비투자규모	0	0	0	0
	가동률	0	-	0	0
	종사자수	-	-	0	-
	경상이익	0 (채산성)	0 (채산성)	0	0 (채산성)
	자금사정		0	0	0
	-	주문액, 신규수주액, 매출규모, 생산설비과부족, 구인사정	고용	판매가격, 원재료구입가격	수주, 판매, 고용, 경영애로요인

(2) 부가조사

○ 분기별 서울의 지역 경제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함.

— 분기별로 실시된 부가조사 주제는 다음과 같음.

〈표 1-17〉 기업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 주제

조사 기간	조사 주제
2011년 3분기	고용상황 및 전망조사

—분기별로 실시된 부가조사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1-18〉 기업체감경기 관련 부가조사의 세부 내용

조사 기간	조사 내용
2011년 3분기	전분기대비 인력규모 변동 및 변동이유
	다음 분기 채용계획 및 규모
	인력채용의 애로사항

제2장 2010년 4/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0년 4/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제2절 2010년 4/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제2장

2010년 4/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0년 4/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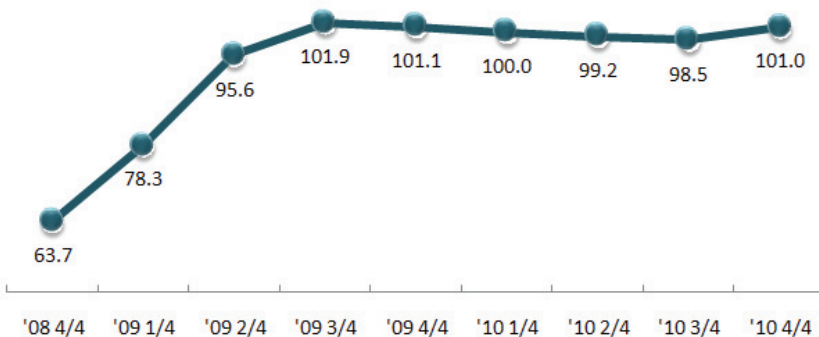
1. 소비자경기지수

1) 소비자태도지수

○2010년 4/4분기 서울시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2.5p 상승한 101.0을 기록함.

—2010년 하락세를 이어가던 소비자태도지수는 3분기 만에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서울시 경기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함.

—수출과 소비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개선되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 2010년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2)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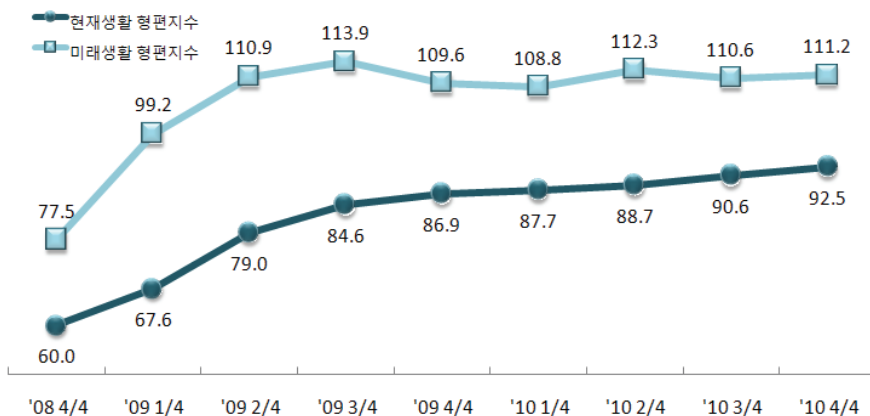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1.9p 상승한 92.5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0.6p 상승한 111.2를 기록함.

— 최근 들어 미래생활형편지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의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생활형편지수의 경우 6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4.1p 상승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상회함.

— 미래생활형편지수의 경우 4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전분기대비 평균 1.3p 하락하였고, 4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전분기대비 평균 2.9p 상승하며 소득계층 간 대비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2) 2010년 4/4분기 생활형편지수

3) 경기판단지수

○ 2010년 4/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5.3, 경기예상지수는 115.6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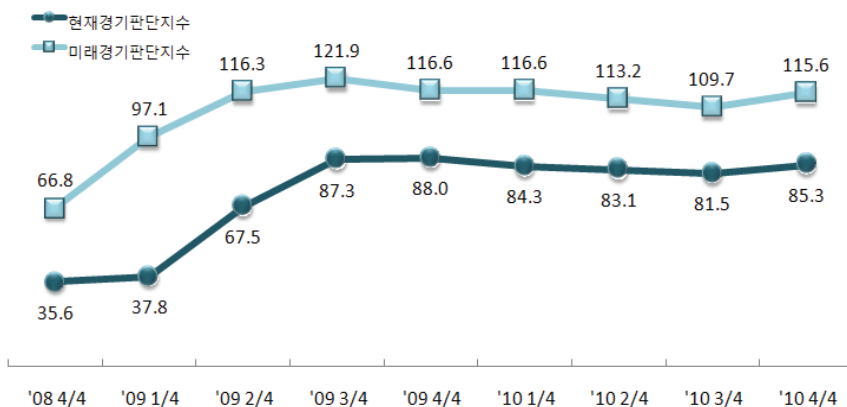
— 이는 전분기대비 각각 3.8p, 5.9p 상승한 수치로 서울지역의 경기가 전분기보다 나아진 것으로 인식, 전망되고 있음.

— 2010년 들어 현재경기판단지수와 경기예상지수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4분기만에 다시 상승국면으로 들어섬.

○ 2010년 4/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6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전분기대비 6p 이상의 큰 상승폭을 나타냄.

— 3/4분기에는 농산물 가격급등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최상위 소득계층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지만 4/4분기에는 물가와 부동산시장이 전분기에 비해 개선되면서 이들 계층의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미래경기판단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미래경기판단지수도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2-3) 2010년 4/4분기 경기판단지수

4) 구입태도지수

○2010년 4/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보합인 100.3을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함.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8.0p 급등하며 104.5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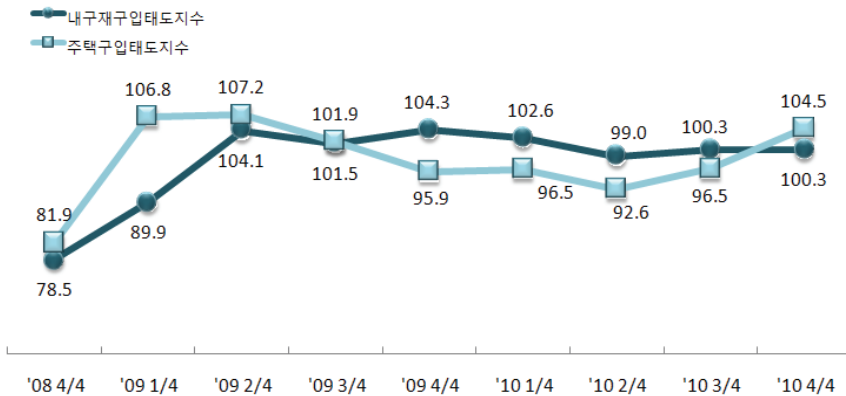
—현 시점이 내구재를 구입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2009년 4/4분기부터 기준치(100)를 하회하던 주택구매심리가 1년 만에 다시 기준치(100)를 넘어서며 주택구매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됨.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내구재구입태도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4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부터는 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기준치를 하회한 4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과 차이를 보임.



(그림 2-4) 2010년 4/4분기 구입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1) 소비지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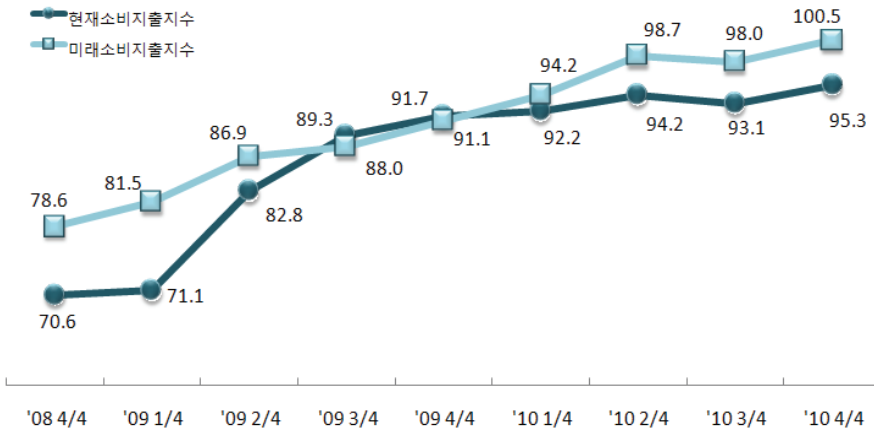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대비 각각 2.2p, 2.5p 상승한 95.3과 100.5를 기록함.

— 특히,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넘어서며 향후 소비자들이 소비지출을 늘릴 것으로 전망됨.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지난 3/4분기에 비해 상승함.

— 현재소비지출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6001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지수가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지만, 지난 분기 104.6을 기록했던 6001만원의 최상위 소득계층에서는 전분기대비 5p 하락하여 99.6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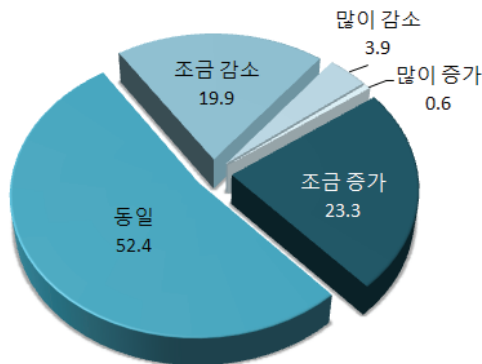
— 미래소비지출지수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미래의 소비지출 심리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2010년 4/4분기 소비지출지수

2) 순자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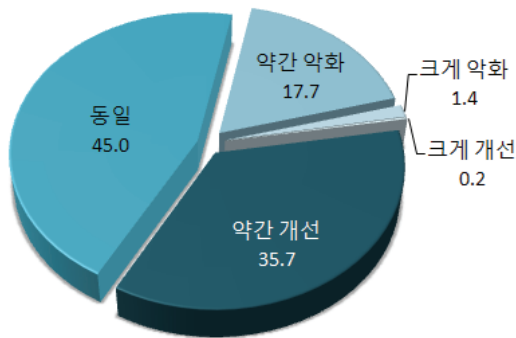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98.4로 지난 3/4분기에 비해 2.5p 상승함.
 - 순자산지수는 2009년 1/4분기 77.0에서 2009년 2/4분기 91.7로 급등한 이후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순자산 규모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23.9%로 전분기(23.0%)에 비해 다소 증가
 -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순자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구 중 69.6%가 ‘금융자산이 늘었다’를 순자산 증가의 근거로 꼽아 가장 많음.
- 반대로 순자산 규모가 줄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23.8%로 전분기(28.4%)에 비해 감소함.
 -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 중 40.6%가 ‘부채가 늘었다’를 순자산 감소의 근거로 지목해 가장 많음.
- 한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지수도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전반적으로 지수가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으나 2000만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4.5p 하락하며 다른 소득계층과 차이를 나타냄.



(그림 2-6) 2010년 4/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3) 고용상황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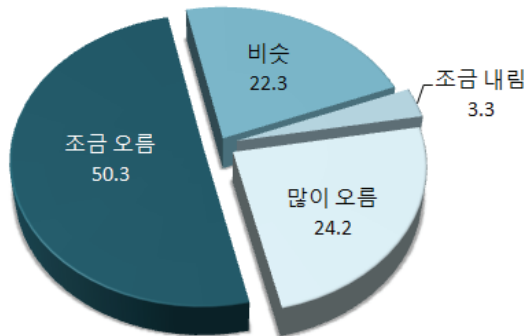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107.8로 3/4분기보다 0.2p 상승함.
 - 지난 분기에 이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에 반영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향후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35.9%,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19.1%로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8%p 높음.
- 소득별로 살펴보면, 3001~6000만원 이하의 중간소득 계층에서 지수가 전 분기대비 평균 1.3p 하락함.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기준치(100)를 넘기며 고용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임.



(그림 2-7) 2010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

4) 물가전망지수

- 2010년 4/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10.2p 떨어진 147.7을 기록하여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심리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추석 전후로 급등했던 장바구니 물가가 최근 다소 진정되고 있어 물가전망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압박과 유가상승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물가전망지수는 여전히 기준치(100)를 훨씬 웃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은 전체의 74.5%인 반면, 물가가 내린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은 전체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물가전망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였지만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40 이상의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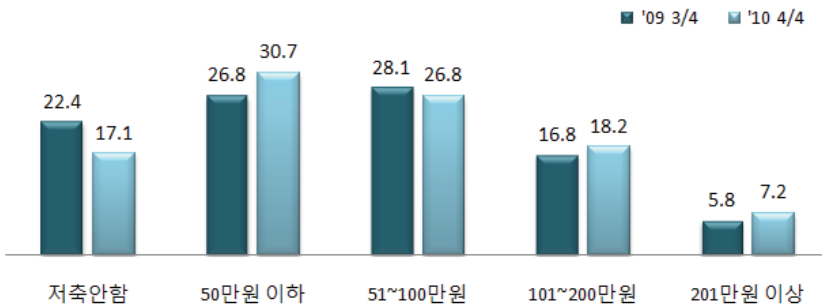


(그림 2-8) 2010년 4/4분기 물가전망

3. 부가조사: 가구 저축 동향조사

1) 월평균 저축규모 및 저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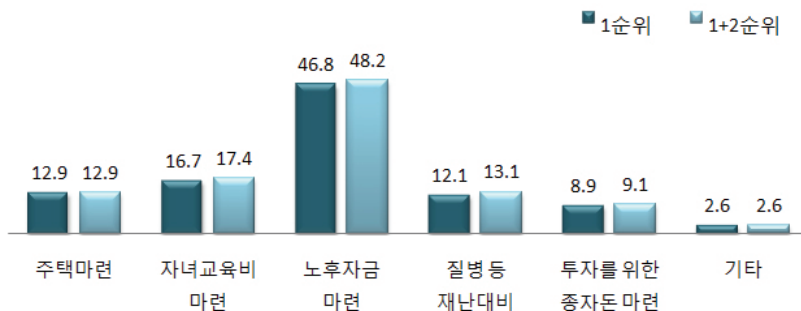
- 한 가구당 월평균 저축액은 91.5만원, 가구소득대비 저축률은 21.4%로 조사되었고 전체 응답가구의 17.1%가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함.
 - 2009년 3/4분기에도 동일한 조사를 한 결과, 한 가구당 월평균 저축액이 82.7만원, 소득대비 저축률은 21.4%로 조사되었고, 전체 응답가구의 22.4%가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음.
 - 2009년 3/4분기 조사에 비해 소득대비 저축률은 변화가 없으며, 월평균 저축액은 8.8만원 증가하였고, 저축을 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4.3%p 감소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저축액도 높았으며 소득대비 저축률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서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1.0%로 최상위계층보다 5배 이상 높았으며, 소득대비 저축률도 18.7%로 상위 소득계층과 차이를 보임.



(그림 2-9) 월평균 저축액

2) 저축유형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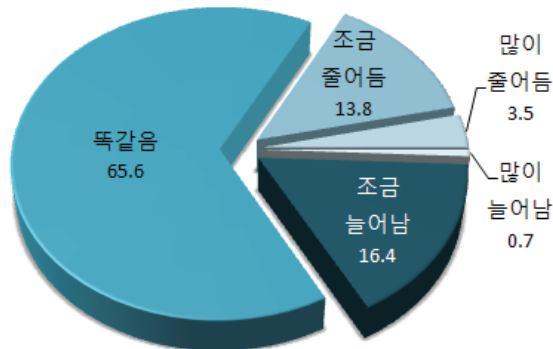
- 조사대상 가구의 저축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저축액의 대부분이 ‘예금/적금’(44.1%)과 ‘저축성보험/연금보험’(40.9%)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9.1%는 ‘적립식 펀드’에 2.9%씩 각각 ‘주식투자’나 ‘현금’의 형태로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적금’에 대한 비중이 45% 내외로 나타나지만, ‘적립식 펀드’와 ‘주식투자’는 고소득 계층일수록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저축을 하는 목적으로는 ‘노후자금 마련’이 46.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자녀교육비 마련’ 16.7%, ‘주택마련’ 12.9% 순으로 저축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지목됨.
 - 2009년 3/4분기 조사결과에서도 ‘주택마련’과 ‘자녀 교육비’는 저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지만,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퇴직연령이 빨라짐에 따라 불확실한 노후 및 경제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질병 등 재난대비’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투자를 위한 종자돈 마련’에 대한 응답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짐.



(그림 2-10) 저축 목적

3) 저축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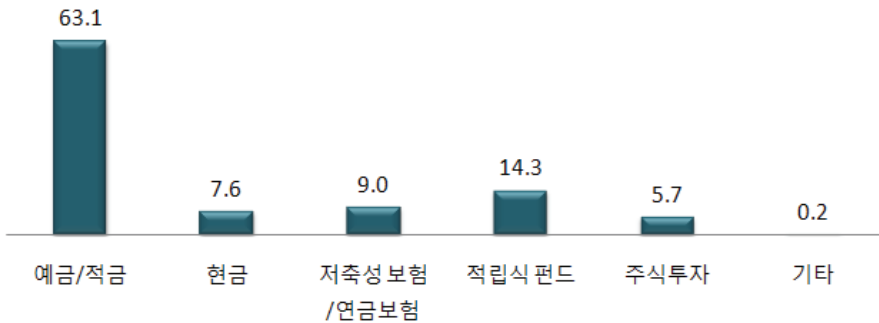
- 2009년 3/4분기 조사대비 올해 저축규모가 증가한 가구는 전체 응답가구의 17.1%이고 반대로 저축규모가 감소한 가구는 17.3%임.
- 저축규모가 증가한 가구들을 살펴보면, 1년 사이 저축액이 평균 44.4만원 증가하였으며 저축규모가 증가한 이유로는 ‘불확실한 경기상황대비를 위해 소비 줄임’(41.3%)과 ‘소득이 증가해서’(38.4%)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축규모가 감소한 가구들을 살펴보면, 1년 사이 저축액이 평균 68.3만원 줄어들었으며 저축규모의 감소 이유로는 ‘소득이 감소해서’(49.4%)와 ‘교육비가 증가해서’(19.5%)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보면, 30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저소득층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 감소가 저축규모에 영향을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에서 교육비 때문에 작년대비 저축액이 감소했다는 비율이 50~60대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11) 작년대비 올해 저축규모 변화

4) 추가 저축액 규모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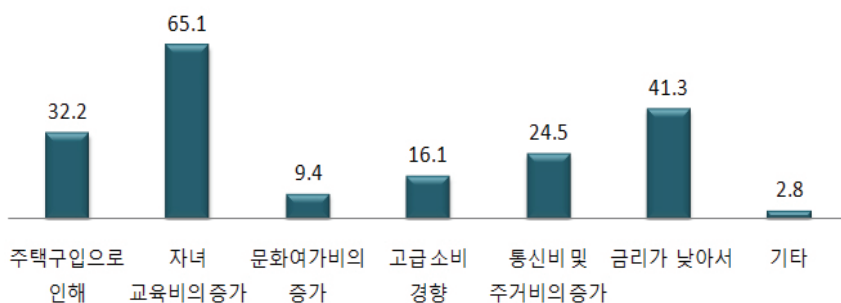
- 응답 가구들은 월 소득만큼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평균 200.2만원을 추가 저축하겠다고 응답함.
 - 즉, 각 가구는 추가 소득액의 52.4%를 소비하고 나머지 47.6%를 저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추가 소득 발생 시 투자할 유형으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예금/적금’(63.1%)을 꼽았고, 다음으로 ‘적립식 펀드’가 14.3%,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이 9.0%로 조사됨.
 - 모든 소득계층에서 ‘예금/적금’을 가장 많이 선호하지만, 선호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함.
 - 한편, 6001만원 이상의 최상위소득계층의 경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선호 비율이 21.7%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5%p 이상 높음.
 -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예금/적금’ 비율은 높지만 ‘적립식 펀드’ 비율은 10% 미만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편임.



(그림 2-12) 추가 저축유형

5) 우리나라의 저축률 감소 이유

- 한국은행 및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1년 24.4%였던 우리나라의 평균 개인순저축률은 2010년에는 3.9%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OECD 주요 선진국의 평균 가계순저축률이 1991년 11.4%에서 2009년 8.3%로 3.1%p 떨어진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됨.
- 지난 20여 년 동안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로 응답자의 65.1%가 ‘자녀 교육비의 증가’를 지목하여 가장 높았고, ‘금리가 낮아서’(41.3%)와 ‘주택구입으로 인해’(32.2%)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우리나라 저축률 감소 이유를 ‘주택구입’이나 ‘자녀교육비’로 꼽은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5~10%p 낮은 반면, 60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고급소비 경향’과 ‘저금리’를 저축률 감소의 이유로 꼽은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사교육비, 주택구입비 등으로 가계의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저금리 정책 등은 저축률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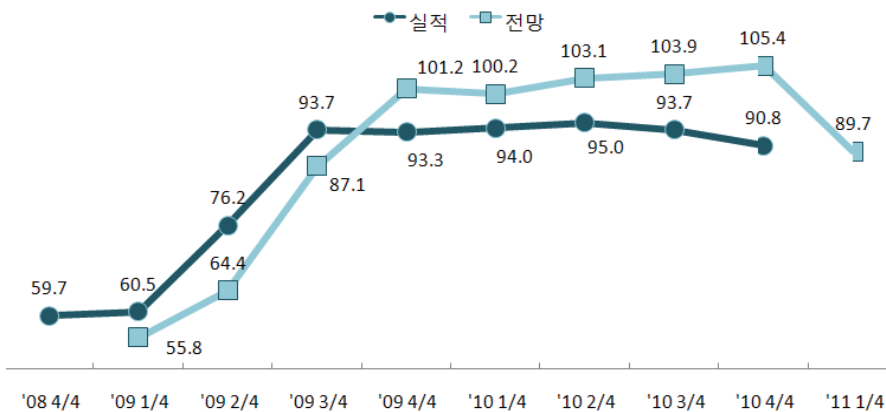
(그림 2-13) 우리나라 저축률 감소 이유

제2절 2010년 4/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1. 기업경기지수

1)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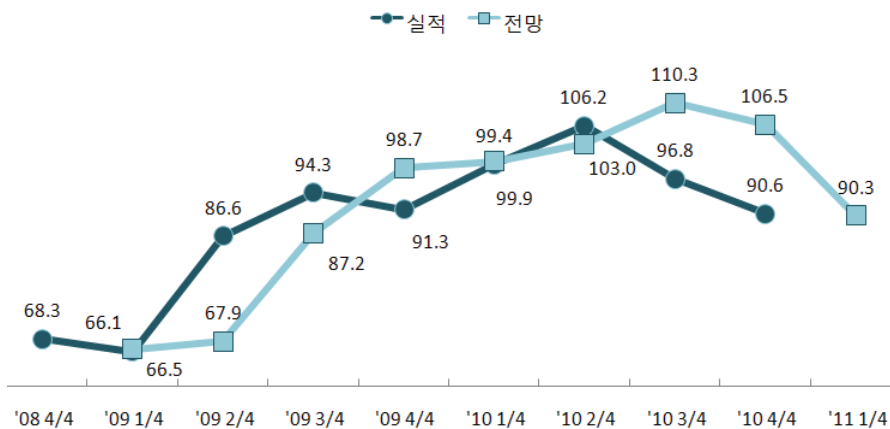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업황지수는 하반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황실적지수는 90.8로 3/4분기에 비해 2.9p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기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1/4분기 업황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89.7로 기준치(100)를 하회해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 구분별로 보면, 2010년 3/4분기에 비해 업황지수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기업은 101.7로 중소기업 88에 비해 업황지수가 13.7p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경기 회복세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14) 2010년 4/4분기 업황지수

2) 매출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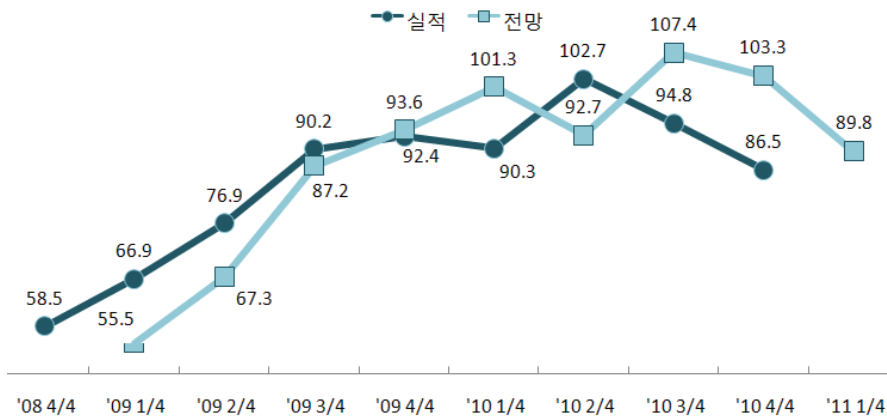
- 2010년 4/4분기 매출업황지수는 90.6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2.3으로 비제조업 89.4보다 2.9p 높음.
 -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5p, 7.6p 감소하여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수출기업 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이 93, 내수기업이 90.5로 수출·내수기업 모두 전분기에 비해 하락함.
- 2011년 1/4분기 매출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0.6p 감소한 90.3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0.3p 증가한 99.0,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0.5p 감소한 88.1로 다음 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수출 구분별로는 내수기업은 94.8, 수출기업은 90.0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2-15) 2010년 4/4분기 매출액지수

3) 경상이익지수

- 2010년 4/4분기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8.3p 감소한 86.5로 기준치(100)보다 낮은 수준임.
 - 대기업의 경상이익이 전분기대비 4.1p 감소한 104.4, 중소기업의 경상이익은 11.6p 감소한 82.0로 나타남. 수출기업은 93.6, 내수기업은 86.0으로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경상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3.3p 증가한 89.8로 전망되어 경상이익이 다음 분기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구분별로는 제조업은 9.1p 증가하고, 비제조업은 1.0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대기업은 98.5, 중소기업은 87.6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경상이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기업의 경상이익 전망은 0.9p 감소한 92.7, 내수기업의 경상이익 전망은 3.6p 증가한 89.6으로 전망됨.



(그림 2-16) 2010년 4/4분기 경상이익지수

4) 자금사정지수

○2010년 4/4분기 자금사정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8.4p 감소한 86.2로 기준치(100)를 하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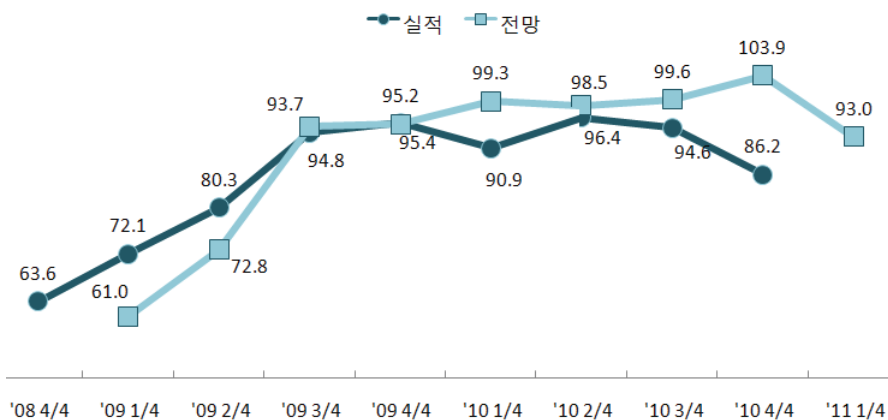
－기업 구분별로 보면,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6p 증가한 107.1로 자금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13.2p 감소한 80.9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수출 구분별로 자금사정실적지수를 살펴보면, 수출기업은 전분기대비 11.9p 감소한 88.4, 내수기업은 전분기대비 8.2p 감소한 86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에 비해 9.3p 감소한 81.3, 비제조업은 전분기에 비해 6.3p 감소한 89.7로 조사됨.

○2011년 1/4분기 자금사정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6.8p 증가한 93.0으로 조사됨.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은 7.9p 감소한 99.2, 중소기업은 10.6p 증가한 91.5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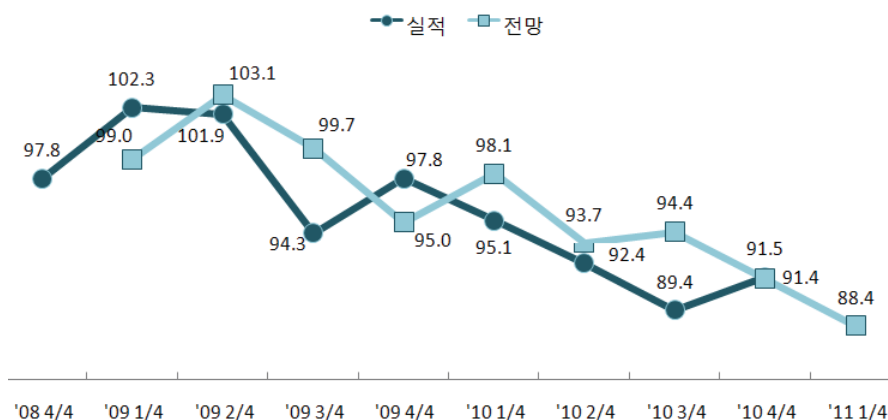
－수출 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은 5.1p 증가한 93.5, 내수기업은 7p 증가한 93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7) 2010년 4/4분기 자금사정지수

5) 종사자수 지수

- 2010년 4/4분기 종사자수 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1p 증가한 91.5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종업원수준이 시장수요대비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남.
 - 업종 구분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2.9p 증가한 99로 적정수준에 근접하였으나, 비제조업은 전분기대비 1.1p 감소한 86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종업원 수가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2.9p 증가한 91.4로 지수가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종사자 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출기업, 내수기업 역시 전분기대비 각각 0.8p, 2.2p 증가한 93.8, 91.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대부분 종업원 수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4분기 종사자수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3.1p 감소한 88.4로 변화가 적은 것으로 전망됨.
 - 기업 구분별로는 제조업은 4.7p 감소한 91.4로 적정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0.2p 증가한 86.2로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8) 2010년 4/4분기 종사자수지수

제3장 2011년 1/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1년 1/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제2절 2011년 1/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제3장

2011년 1/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1년 1/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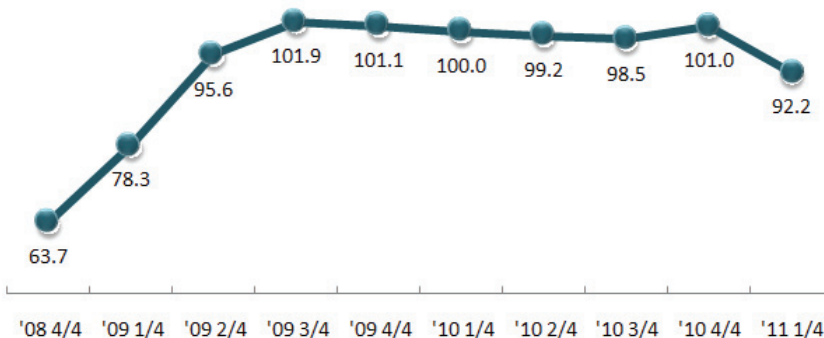
1. 소비자경기지수

1) 소비자태도지수

○2011년 1/4분기 서울시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8.8p 하락한 92.2를 기록함.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9년 2/4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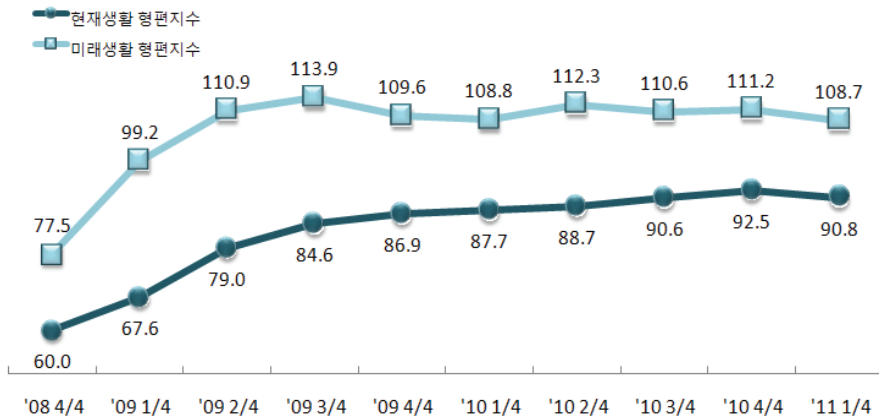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자태도지수는 낮아지고 있어 체감경기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하락하여 부정적인 소비심리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3-1) 2011년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2) 생활형편지수

- 상승세를 이어오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1.7p 하락한 90.8을 기록함.
 -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50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만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기준치(100) 미만을 기록한 5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과 차이를 보임.
-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2.5p 하락한 108.7을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서울시의 가구들은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이 현재보다는 비교적 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010년 4/4분기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긍정적인 생활형편을 예상했었지만, 2011년 1/4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전분기대비 하락함.
 -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지수와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2) 2011년 1/4분기 생활형편지수

3)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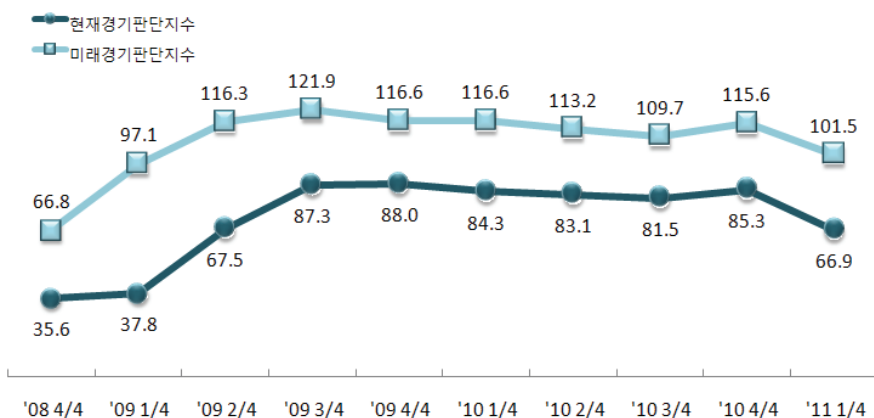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6.9, 경기에상지수는 101.5를 기록함.

— 이는 전분기대비 각각 18.4p, 14.1p 하락한 수치로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이렇게 경기판단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체 소비자태도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부터 60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까지 지수가 10p 이상 하락하여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현재의 서울시 경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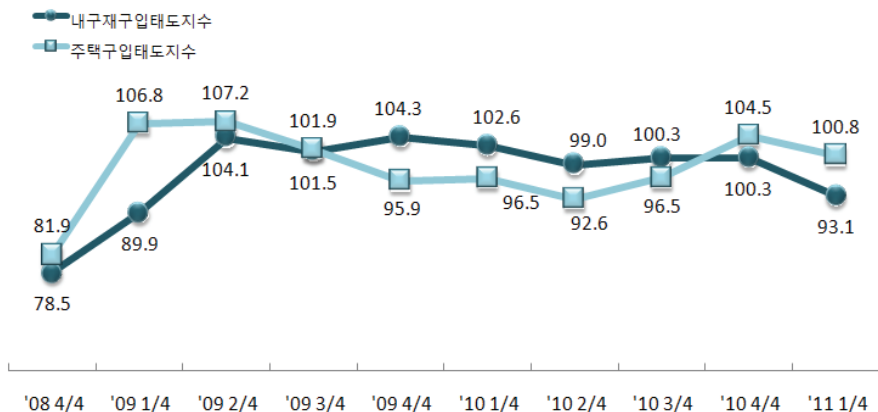
— 미래경기판단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지난 분기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향후 긍정적인 경기를 전망한 반면, 이번 분기에는 2000만원 이하의 최하위 소득계층과 5001~6000만원의 비교적 높은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각각 95.7, 99.6을 나타내며 기준치(100)를 하회함.



(그림 3-3) 2011년 1/4분기 경기판단지수

4) 구입태도지수

- 2011년 1/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7.2p 하락한 93.1을 기록하여 3분기만에 다시 기준치(100)를 하회함.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내구재구입태도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4/4분기 기준치(100)를 상회하였던 4001만원 이상의 중·고소득 계층에서는 지수가 하락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하였고, 2001~3000만원과 3001~4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지수가 10p 이상 하락하며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임.
- 2011년 1/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3.7p 하락하며 100.8을 기록하였지만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넘어서며 주택구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이어가고 있음.
 - 주택구입태도지수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2000만원 이하의 최하위 소득 계층과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만 주택 구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2001~5000만원 이하의 중간 소득계층은 주택 구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2011년 1/4분기 구입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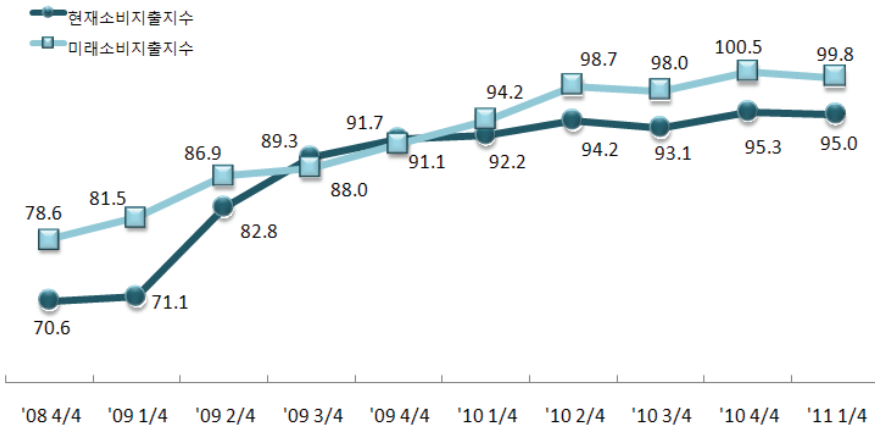
1) 소비지출지수

○ 2011년 1/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0.3p, 0.7p 내려간 95.0과 99.8을 기록하며 경기전망지수나 구입태도지수 등에 비해 비교적 소폭 하락함.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를 살펴보면, ‘교육/문화비’와 ‘주거비’가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나머지 4개 항목은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현재소비지출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 중 60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만 유일하게 지수가 101.7을 나타내며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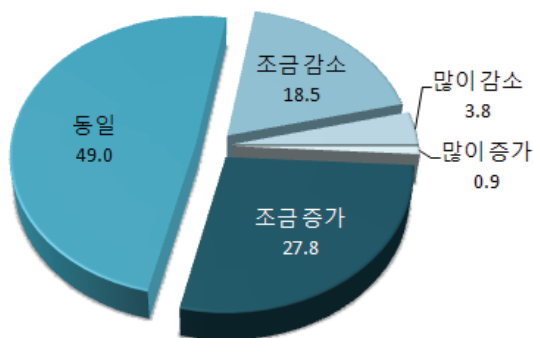
— 미래소비지출지수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4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함.



(그림 3-5) 2011년 1/4분기 소비지출지수

2) 순자산지수

- 2011년 1/4분기 순자산지수는 101.8로 지난 4/4분기에 비해 3.4p 상승하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순자산 규모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28.7%로 전분기(23.9%)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면, 순자산 규모가 줄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22.3%로 전분기(23.8%)에 비해 감소함.
-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순자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응답가구의 28.7%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 중 64.1%가 ‘금융자산이 늘었다’를 순자산 증가의 근거로 꼽아 가장 많음.
-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구 중 40.8%가 ‘부채가 늘었다’를 순자산 감소의 근거로 지목해 가장 많음.
-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지수도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지난 4/4분기에는 특정 소득계층에서만 기준치(100)를 넘었지만, 이번 1/4분기에는 그 층이 중간계층까지 확대되어 3001만원 이상인 소득계층에서도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임.



(그림 3-6) 2011년 1/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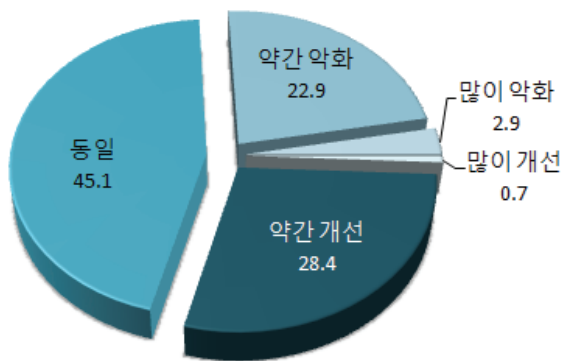
3) 고용상황전망지수

○ 2011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100.6으로 지난 4/4분기보다 7.2p 하락하였지만, 4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고용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향후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29.1%,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25.8%로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음.

○ 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하락하며 전분기대비 고용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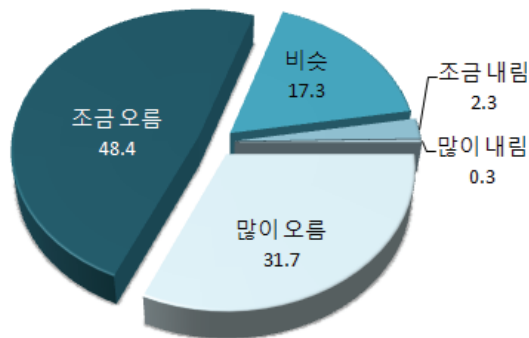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30대 이하에서 유일하게 전분기에 비해 13.6p 하락한 90.8을 나타내고 있어 5p 내외의 하락폭을 보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고용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그림 3-7) 2011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

4) 물가전망지수

- 2011년 1/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6.8p 상승한 154.5를 기록함.
 - 평균 3%대를 유지했던 물가상승률은 유가상승, 구제역, 이상한파 등의 영향으로 2011년 4%대로 진입하면서 물가불안을 가중시킴.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80.1%인 반면, 물가가 내린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는 소득수준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150 이상의 지수를 보이며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3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지수가 전분기대비 12.1p 오르며 5p 내외 상승한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임.
 - 소득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 하던 4001~5000만원과 6001만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보이는 가구들의 물가전망지수가 10p 이상 상승하여 물가상승 불안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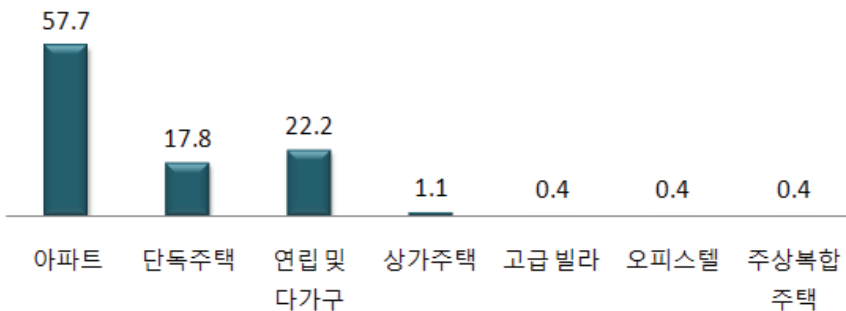


(그림 3-8) 2011년 1/4분기 물가전망

3. 부가조사: 주택관련 조사

1) 현재 거주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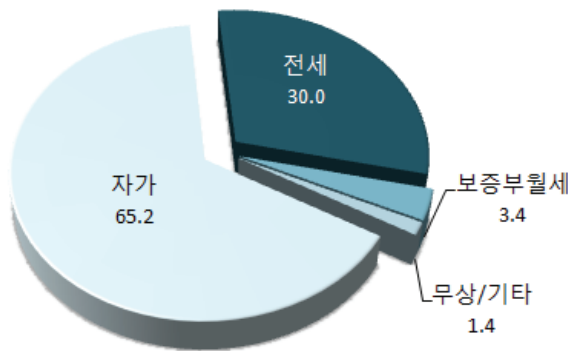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 이상인 57.7%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연립 및 다가구’가 22.2%, ‘단독주택’이 17.8%, ‘상가주택’이 1.1% 순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 및 다가구 등의 ‘비아파트’의 비율은 대체로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아파트’의 거주 비율이 높음.
 -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가구’에 대한 비율이 각각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권역별로 응답 가구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동남권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66.2%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과 서북권에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40%대로 낮은 대신 ‘단독주택’과 ‘연립 및 다가구’의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9) 현재 거주주택 유형

(2) 현재 주거 형태

- 조사대상 가구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가’인 가구는 65.2%, ‘임차’ (무상/기타 제외)인 가구는 33.4%로, ‘자가’ 비율이 ‘임차’ 비율보다 약 2배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가 ‘전세’, 3.4%가 ‘보증부 월세’, 1.4%가 ‘무상/기타’인 것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가’ 비율이 높음.
 - 최하위 소득계층인 2000만원 이하에서는 ‘자가’의 비율이 56.6%, 최상위 소득계층인 6001만원 이상에서는 ‘자가’ 비율이 74.4%로 조사되어 소득계층 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권역별로 보면, 강북구, 노원구 등의 동북권에서 ‘자가’의 비율이 71.1%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 중구 등의 도심권에서는 ‘자가’의 비율이 50.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반면, ‘전세’의 비율은 도심권에서 43.6%로 20~30%대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3-10) 현재 거주주택 유형

(3) 주거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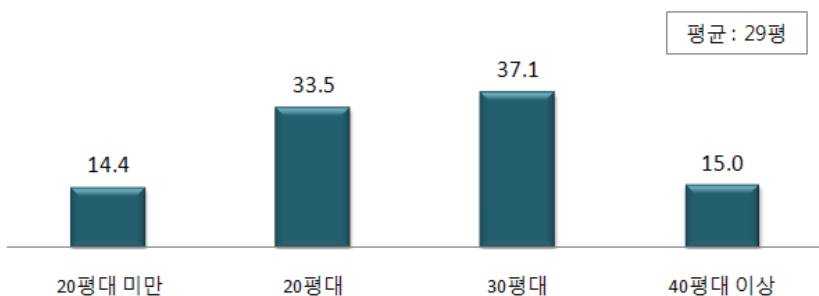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균 주거 면적은 95.9m^2 (29평)으로 ‘ 99.2m^2 (30평)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 66.1m^2 (20평)대’ 33.5%, ‘ 132.2m^2 (40평)대 이상’이 15.0%, ‘ 66.1m^2 (20평)대 미만’이 14.4%로 나타남.

— 소득수준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주거 면적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인 가구보다 자가 형태 가구의 평균 평수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남.

— 자가는 ‘ 99.2m^2 (30평)대’, 전세는 ‘ 66.1m^2 (20평)대’, 기타 주거 형태는 ‘ 66.1m^2 (20평)대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음.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에 따른 주거 면적은 아파트가 평균 105.8m^2 (32평)으로 가장 넓었고, 이어 단독주택이 평균 95.9m^2 (29평), 연립 및 다가구가 평균 79.3m^2 (24평), 고급빌라 등의 기타 유형은 평균 89.3m^2 (27평)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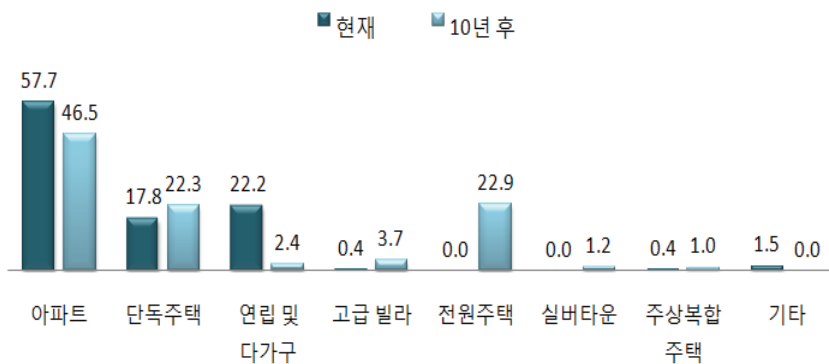
— 평균 주거 면적이 가장 큰 권역은 동남권으로 평균 102.5m^2 (31평)의 집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평균 주거 면적이 가장 작은 권역은 노원구, 강북구 등의 동북권으로 평균 92.6m^2 (28평)의 집에서 사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1) 주거면적

(4) 향후 10년 후 살고 싶은 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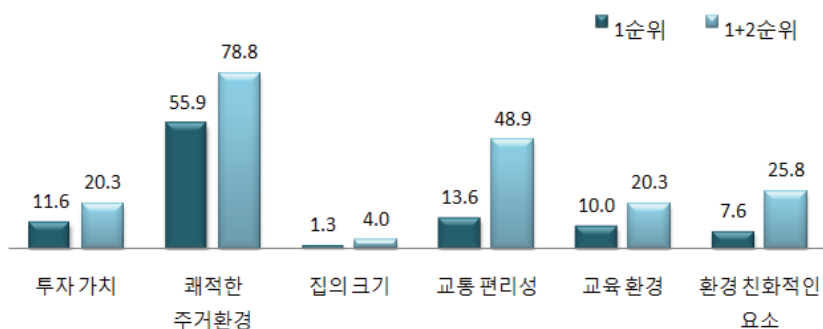
- 향후 10년 후에 살고 싶은 집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아파트’가 4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밖에 ‘전원주택’(22.9%)과 ‘단독주택’(22.3%)도 높은 비율을 나타냄.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과 비교해 볼 때, ‘아파트’와 ‘연립 및 다가구’ 비율은 10%p 이상 크게 줄었지만, ‘단독주택’과 ‘전원주택’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 향후 이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10년 후 살고 싶은 집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컸으며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 10년 후에는 ‘전원주택’이나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10년 후 희망하는 주택 유형은 소득수준보다 연령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형과 향후 10년 후에 살기를 바라는 집의 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50% 미만으로 현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응답자의 55.6%가 향후 10년 후에도 똑같이 ‘아파트’에 살고자 함.



(그림 3-12) 현재 거주주택 유형과 향후 선호주택 유형

(5) 향후 10년 후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

- 향후 10년 후 집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할 부분 1순위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5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그다음으로 ‘교통 편리성’(13.6%)과 ‘투자 가치’(11.6%), ‘교육 환경’(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순위 고려사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교통 편리성’(48.9%)과 ‘환경 친화적인 요소’(25.8%)인 것으로 조사됨.
- 2순위까지 포함한 결과(중복응답)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78.8%)이 집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조사됨.
-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 편리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음.
- 30대 이하와 40대에서는 ‘투자 가치’와 ‘교육 환경’에 대한 응답이 50~60대에서보다 많이 나타남.
- 향후 10년 후에도 학생신분으로 있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둔 응답자가 ‘교육 환경’을 고려사항으로 지목한 비율이 현재 중고등학생의 가족을 둔 응답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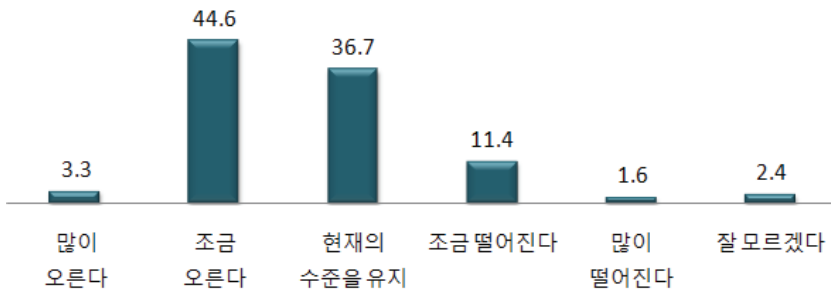


(그림 3-13) 향후 10년 후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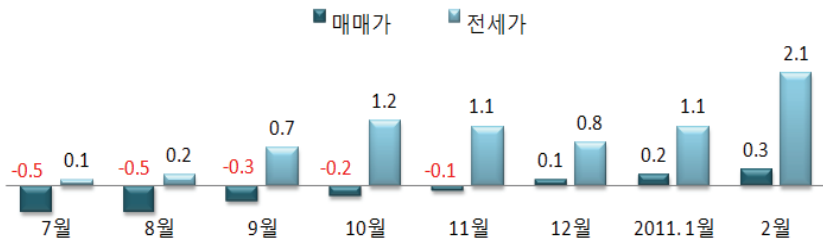
(6) 올해 주택가격 전망

○올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전망을 알아본 결과, 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 가구의 47.9%는 올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많이 상승, 조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36.7%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그림 3-14) 올해 아파트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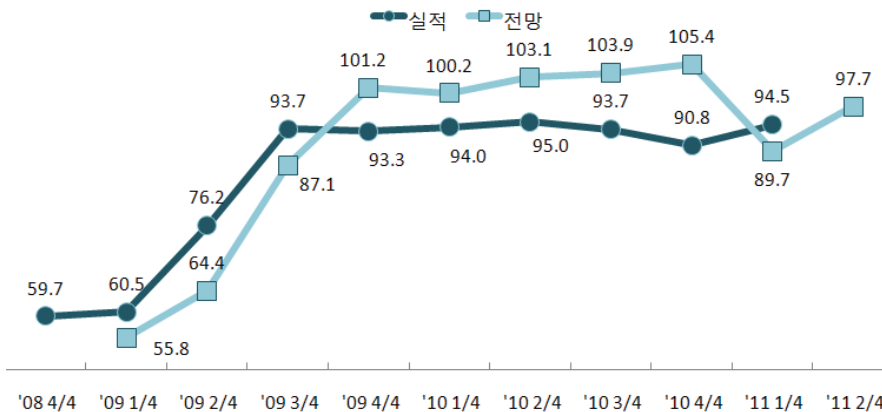
(그림 3-15)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전월대비 증감률

제2절 2011년 1/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1. 기업경기지수

1)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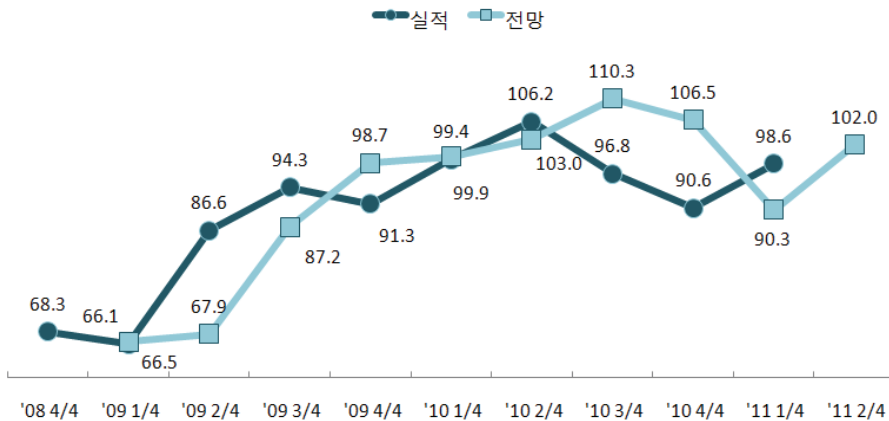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업황지수는 94.5로 전분기대비 3.7p 상승하였으나 상반기 규제역 파동 및 이상 한파,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인해 기준치(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과 비제조업체의 업황지수는 각각 98.6, 93.4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00.9로 전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보였으나, 중소기업은 93.5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2/4분기 업황전망지수는 97.7로 3.2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기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수출기업은 전분기대비 22.1p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체, 중소기업, 내수기업은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16) 2011년 1/4분기 업황지수

2) 매출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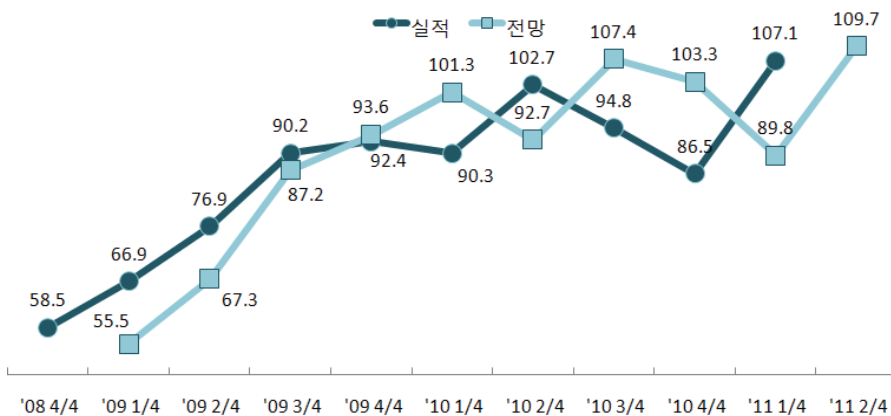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매출실적지수는 98.6으로 전분기대비 8p 증가하였으나 기준치(100)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임.
 - － 제조업체의 매출실적지수는 97.7로 전분기대비 5.4p 증가하고, 비제조업체의 매출실적지수는 98.8로 전분기대비 9.4p 급증하였지만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2/4분기 매출전망지수는 102.0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 제조·비제조업체의 2/4분기 매출전망지수는 각각 103, 101.7로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할 것으로 조사됨.
 - － 수출기업의 2/4분기 매출액전망지수는 115로 전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조사됨.
 - － 내수기업의 2/4분기 매출액전망지수 역시 101.5로 기준치(100)를 상회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3-17) 2011년 1/4분기 매출액지수

3) 경상이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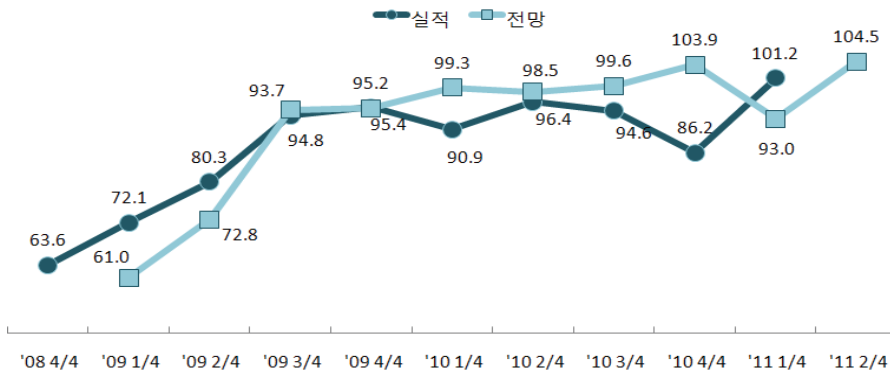
- 2011년 1/4분기 경상이익실적지수는 107.1로 부진했던 전분기에 비해 20.6p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됨.
 - － 비제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109.9로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제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97로 기준치(100)를 하회함.
 - － 대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0.9p 감소한 103.5, 중소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5.7p 대폭 증가한 107.7로 호조를 보임.
 - － 수출기업은 100.3, 내수기업은 107.4로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2/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 역시 109.7로 전분기대비 2.6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업종구분별로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3.6p 증가하고, 비제조업은 전분기 대비 2.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수출기업의 경상이익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9.4p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수기업의 경상이익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2.3p 증가해 경기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8) 2011년 1/4분기 경상이익지수

4) 자금사정지수

- 2011년 1/4분기 자금사정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5p 증가한 101.2로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호조를 보임.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각각 101.5, 101.2로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은 101.4, 내수기업은 101.2로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함.
- 2011년 2/4분기 자금사정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3.3p 증가한 104.5로 조사됨.
 - －제조업의 경우 93.8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3.4p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3.3p 증가해 2/4분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수출 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은 전분기대비 21.3p 증가한 122.7, 내수기업은 전분기대비 2.6p 증가한 103.8로 모두 기준치(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그림 3-19) 2011년 1/4분기 자금사정지수

5) 종사자수지수

○2011년 1/4분기 종사자수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5p 증가한 93.0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종사자수가 시장수요 대비 다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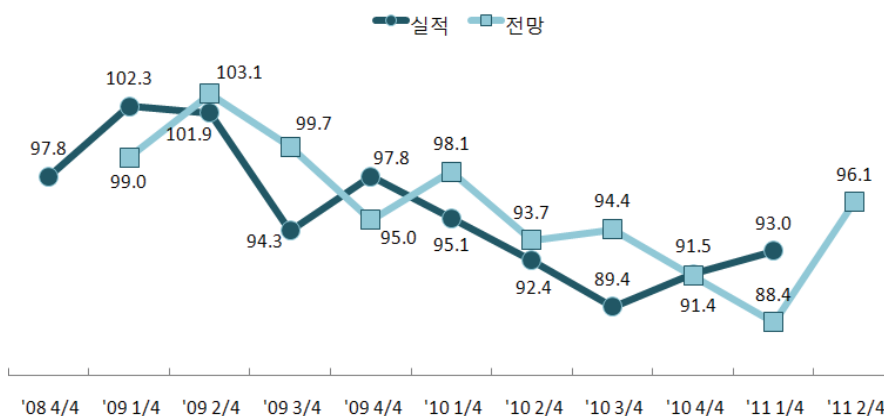
－업종 구분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8p 감소한 91로 종사자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비제조업도 전분기대비 7.6p 증가한 93.6이나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종사자수가 다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0.7p 증가한 92.6,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1.7p 증가한 93.1로 여전히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2/4분기 종사자수 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3.1p 증가한 96.1로 종사자수는 계속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제조업(94.6), 비제조업(96.5), 대기업(96.2), 중소기업(96.1), 수출기업(82.7), 내수기업(96.7)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3.6p, 2.9p, 3.6p, 3.0p, 0.1p, 3.3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준치(100)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그림 3-20) 2011년 1/4분기 종사자수지수

제4장 2011년 2/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1년 2/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제2절 2011년 2/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제 4 장

2011년 2/4분기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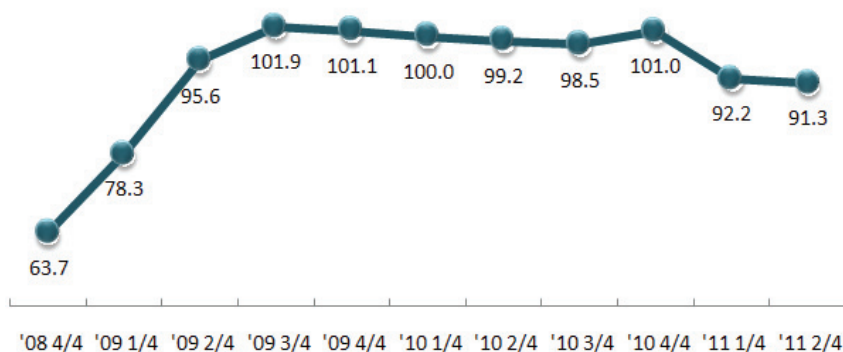
제1절 2011년 2/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1. 소비자경기지수

1) 소비자태도지수

○ 2011년 2/4분기 서울시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91.3을 기록하여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면서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자태도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소득수준이 4001~5000만원과 5001~6000만원의 고소득층에서도 전분기대비 각각 2.0p, 3.5p 하락하며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정적 심리가 크게 확대됨.



(그림 4-1) 2011년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2) 생활형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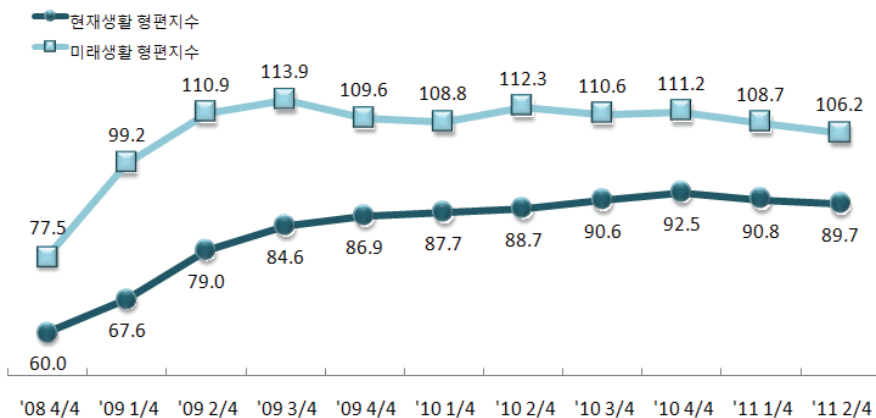
○2011년 2/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분기대비 1.1p 하락한 89.7로 지난 분기의 하락세가 이번 분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소득별로 살펴보면, 4001~5000만원과 5001~6000만원의 고소득층에서 지수가 전분기 대비 6p 이상 급락해 고소득층에서도 현재의 생활형편이 다소 악화되었음을 보여줌.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전분기(108.7) 대비 2.5p 하락하며 106.2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이 현재보다는 밝을 것으로 전망됨.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미래생활형편지수는 6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만 전분기에 비해 0.6p 상승하였고, 그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모두 전분기대비 하락함.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서는 지수가 유일하게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활형편도 어둡게 전망하고 있음.



(그림 4-2) 2011년 2/4분기 생활형편지수

3)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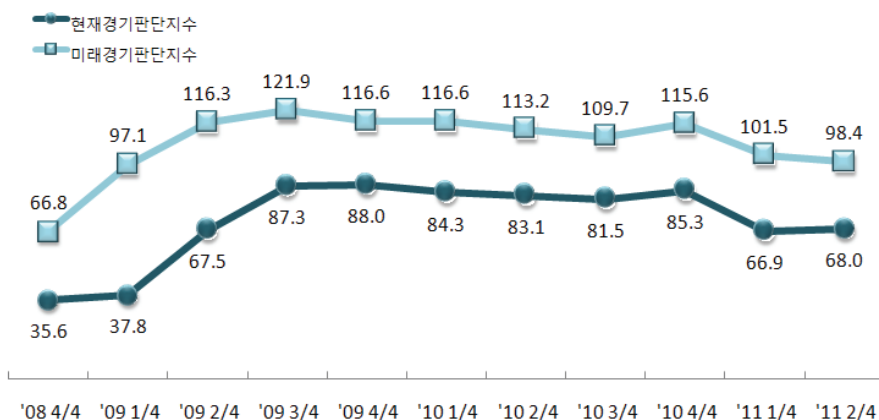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8.0, 경기전망지수는 98.4를 기록함.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1.1p 상승했지만 미래의 서울시 경기 상황을 내다보는 경기예상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3.1p 하락함.

－ 현재경기판단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의 계층에서 전 분기대비 6.1p 오르며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큰 상승폭을 나타냄.

○ 미래경기판단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의 최하위 소득계층에서만 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상승한 반면, 2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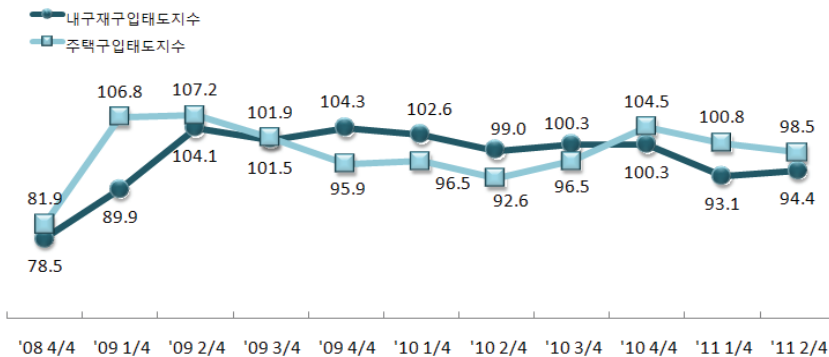
－ 특히, 40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전체 미래경기판단지수 하락폭인 3.1보다 더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그림 4-3) 2011년 2/4분기 경기판단지수

4) 구입태도지수

- 2011년 2/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1.3p 상승한 94.4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함.
 -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내구재구입태도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모든 소득계층에서 기준치 미만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과 50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2011년 2/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2.3p 하락하며 98.5를 기록하여 3분기 만에 다시 기준치(100)를 하회함.
 - － 주택구입태도지수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4001~5000만원, 5001~6000만원의 소득계층에서만 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주택구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 － 하지만, 5001~6000만원의 소득계층에서는 전분기에 비해 지수가 7.4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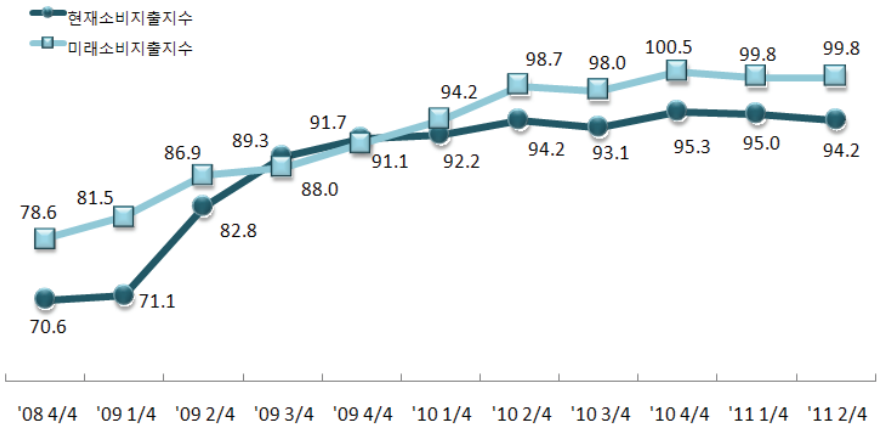


(그림 4-4) 2011년 2/4분기 구입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1) 소비지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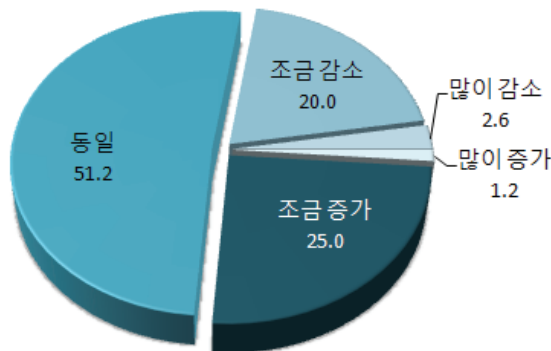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0.8p 하락한 94.2, 미래 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보합인 99.8을 기록함.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와 ‘의류비’가 전분기대비 각각 2.4p, 1.9p 상승함.
- 현재소비지출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 5001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는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현재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전분기대비 6.3p 하락하며 부정적인 소비지출 심리를 드러냄.
 - 미래소비지출지수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소득계층은 4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으로 향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5) 2011년 2/4분기 소비지출지수

2) 순자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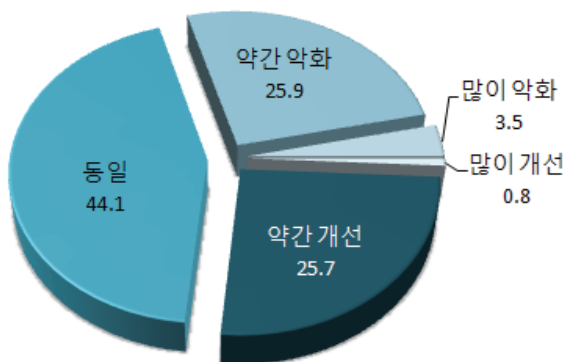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순자산지수는 101.1로 전분기 대비 0.7p 하락하며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순자산 규모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26.2%로 전분기(28.7%)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순자산 규모가 줄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22.6%로 전분기(22.3%)보다 약간 증가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지수도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순자산지수는 2011년 1/4분기에 3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지만, 2/4분기에 4001만원 이상인 소득계층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함.
 - 순자산지수는 3000만원 이하의 비교적 낮은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지만, 3001만원 이상의 중·고소득계층에서는 대체로 전분기대비 하락함.



(그림 4-6) 2011년 2/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3) 고용상황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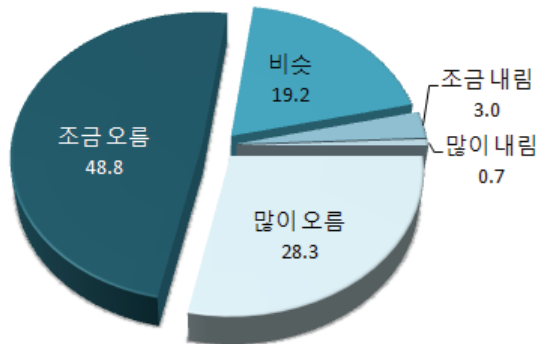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97.2로 약 1년 만에 긍정적 전망에서 부정적 전망으로 반전됨.
- 2010년 2/4분기부터 기준치를 상회했던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1년 2/4분기에 전분기대비 3.4p 하락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향후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26.5%,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가구는 29.4%로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음.
- 소득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3000만원 이하 소득계층과 50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지수가 전분기대비 5p 하락하며 고용상황에 대한 기대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1/4분기에는 30대 이하만 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지수를 보였지만, 이번 2/4분기에는 30대 이하부터 50대까지 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함.
- 경기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또한 둔화될 것이라는 고용상황에 대한 불안심리가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됨.



(그림 4-7) 2011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

4) 물가전망지수

- 2011년 2/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4.0p 하락한 150.5를 기록함.
 - 이는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수치로, 지난 분기에 비해 물가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된 듯 보이지만 치솟는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77.1%인 반면, 물가가 내린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3.7%에 불과함. 나머지 19.2%는 1년 전과 물가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함.
 -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및 불안은 소득수준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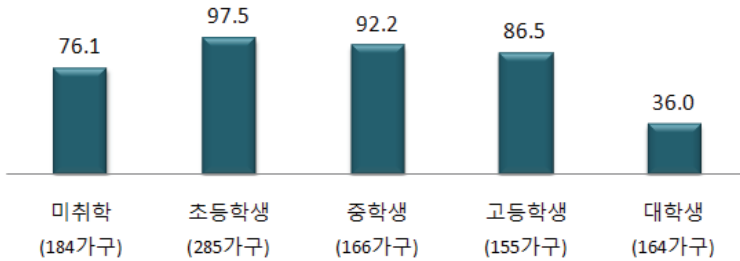
(그림 4-8) 2011년 2/4분기 물가전망

3. 부가조사: 사교육비 지출조사

1)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총액

○최근 3개월간 사교육을 실시한 가구비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 사교육 실시경험 비율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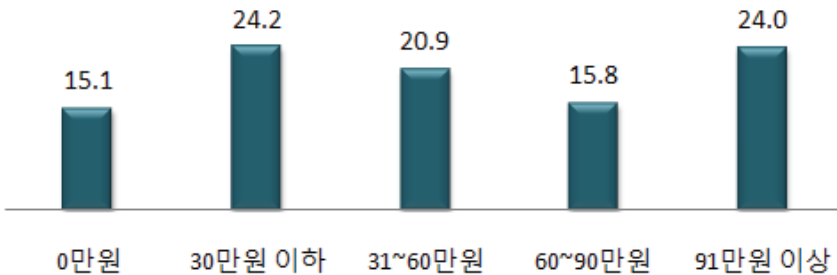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86.5%,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가 76.1%, 대학생을 둔 가구가 36.0% 순으로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임.



(그림 4-9) 자녀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

○미취학 자녀부터 대학생 자녀를 둔 670개의 가구(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가구 포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2만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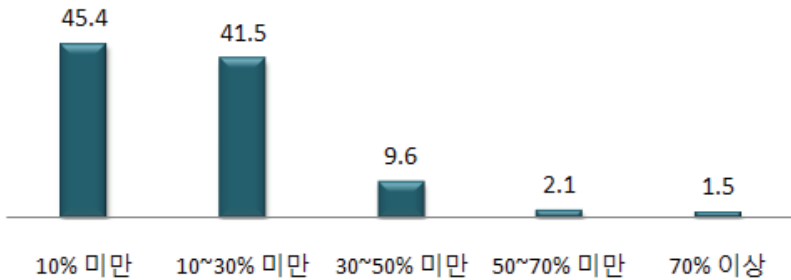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4만9천원이며,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들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73만원으로 조사됨.



(그림 4-10) 자녀 연령별 사교육 참여율

○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월소득의 14.8%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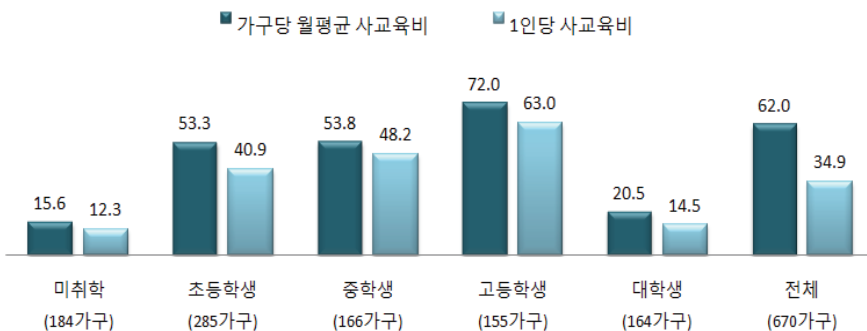
— ‘10% 미만’ 수준이 45.4%로 가장 많았고, ‘10~30%’가 41.5%로 그다음이었으며 월소득의 5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는 3.6%를 차지함.



(그림 4-11) 가구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사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가구 포함)를 비교해보면, 고등학생(대입재수생 포함) 자녀를 둔 가구가 월평균 72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는 미취학에서 초등학생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진학하는 시기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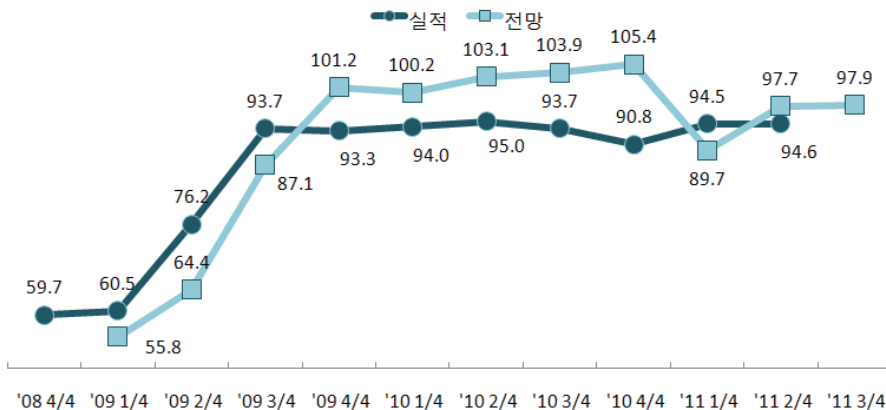
(그림 4-12)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제2절 2011년 2/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1. 기업경기지수

1) 업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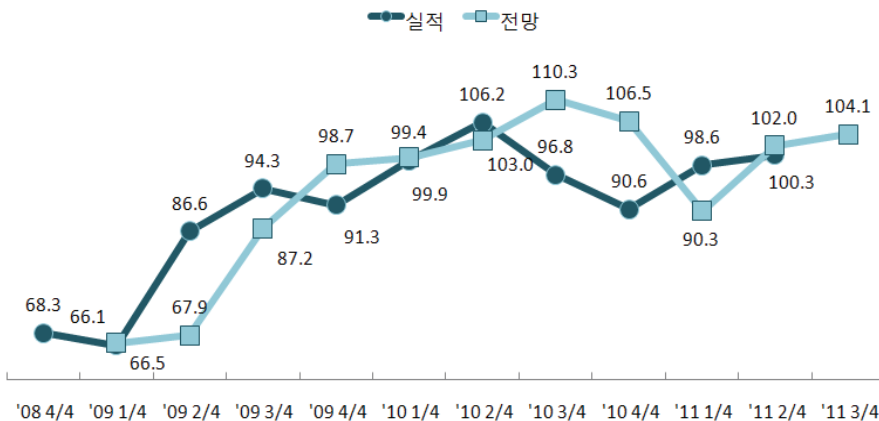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업황지수는 94.6으로 전분기(94.5)와 비슷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업황지수가 각각 97.7, 93.3으로 전분기에 이어 여전히 기준치(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5.9로 전분기 호조세에서 부진세로 반전되었으며, 중소기업은 94.3으로 계속 부진세를 보임.
- 2011년 3/4분기 업황전망지수는 97.9로 전분기대비 3.3p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기준치(100)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제조업의 3/4분기 업황전망지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7.3p 높아진 105로 경기 호전이 전망됨.



(그림 4-13) 2011년 2/4분기 업황지수

2) 매출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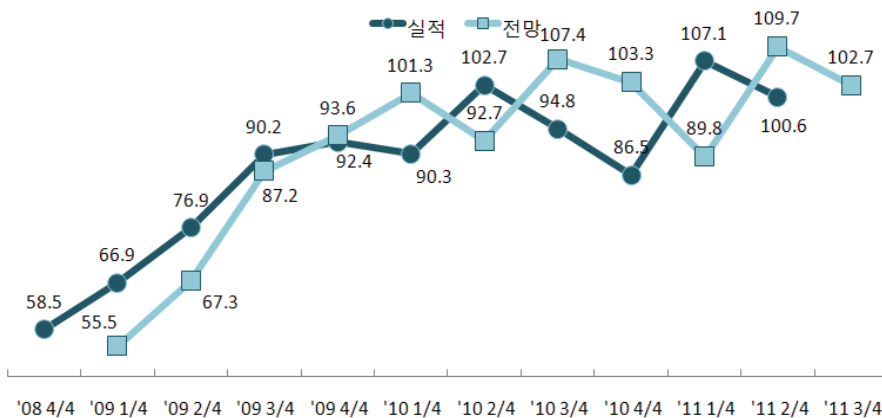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매출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7p 증가한 100.3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함.
 - －제조업체의 매출실적지수는 97.8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비제조업체의 매출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6p 증가한 101.4로 호조세를 보임.
 - －기업규모별 매출실적지수는 대기업이 전분기대비 12.4p 하락한 95로 호조세에서 부진세로 반전된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4.1p 증가한 101.3으로 호조세를 보임.
- 2011년 3/4분기 매출전망지수도 104.1로 기준치를 넘어서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의 2/4분기 매출전망지수는 각각 105.8, 103.4로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2/4분기 매출전망지수는 각각 120.3, 103.5로 기준치(100)를 상회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4-14) 2011년 2/4분기 매출액지수

3) 경상이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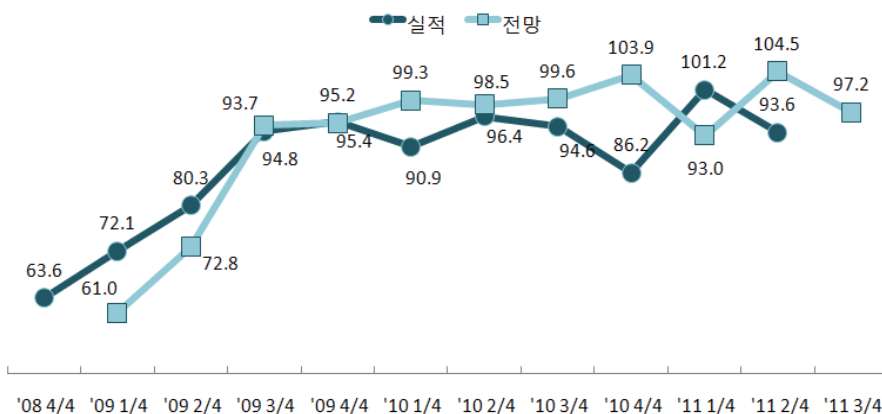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6.5p 감소한 100.6으로 전 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보임.
 - － 경상이익실적지수는 비제조업의 경우 101.4로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제조업의 경우 96.4로 기준치(100)에도 미치지 못함.
 - － 대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7.6p 감소한 95.9로 부진세로 반전된 반면, 중소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6.3p 감소한 101.4로 전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보임.
- 2011년 3/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는 102.7로 전분기대비 2.1p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5p 증가한 101.4, 비제조업은 전분기대비 1p 증가한 103.3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4p 증가한 99.9,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1.8p 증가한 103.2로 전분기보다 경상이익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됨.
 -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경상이익전망지수도 전분기대비 각각 1.4p, 2.2p 증가한 117.4, 102.2로 경상이익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4-15) 2011년 2/4분기 경상이익지수

4) 자금사정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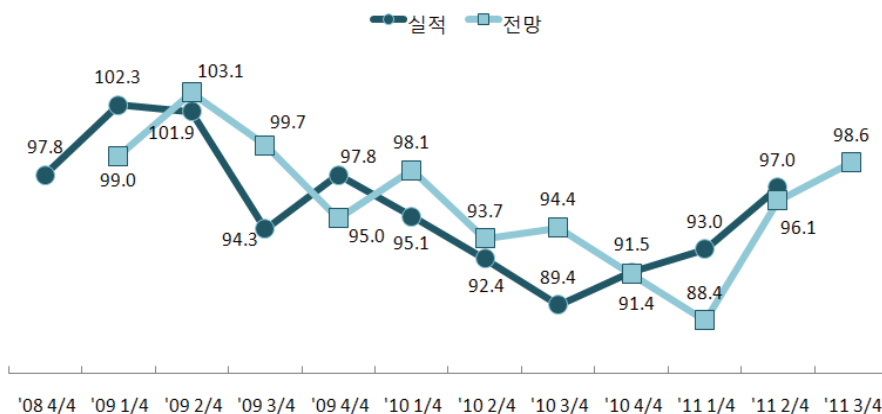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 자금사정실적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7.6p 감소한 93.6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제조업의 자금사정실적지수는 92.2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제조업의 자금사정실적지수도 전분기대비 10p 감소한 94.1를 기록함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각각 92.3, 93.8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 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은 118.3으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호조를 보였고, 내수기업은 92.6으로 전분기 호조세에서 부진세로 반전함.
- 2011년 3/4분기 자금사정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3.6p 증가한 97.2로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의 3/4분기 자금사정전망지수는 전분기대비 11.1p 증가한 103.3으로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1.9p 증가한 94.2,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3.9p 증가한 97.7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16) 2011년 2/4분기 자금사정지수

5) 종사자수지수

- 2011년 2/4분기 종사자수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4p 증가한 97로 기준치(10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업종 구분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0.4p 감소한 90.6으로 종사자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전분기대비 6p 증가한 99.6으로 적정 수준인 기준치(100)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됨.
 -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3.9p 증가한 96.5,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4p 증가한 97.1로 종사자수가 다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3/4분기 종사자수전망지수도 전분기대비 1.6p 증가한 98.6으로 고용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종사자수전망지수는 제조업의 경우 90.6에서 93.4로, 비제조업의 경우 99.6에서 100.7로 조사됨.



(그림 4-17) 2011년 2/4분기 종사자수지수

제5장 2011년 3/4분기 조사 결과

제1절 2011년 3/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제2절 2011년 3/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제 5 장

2011년 3/4분기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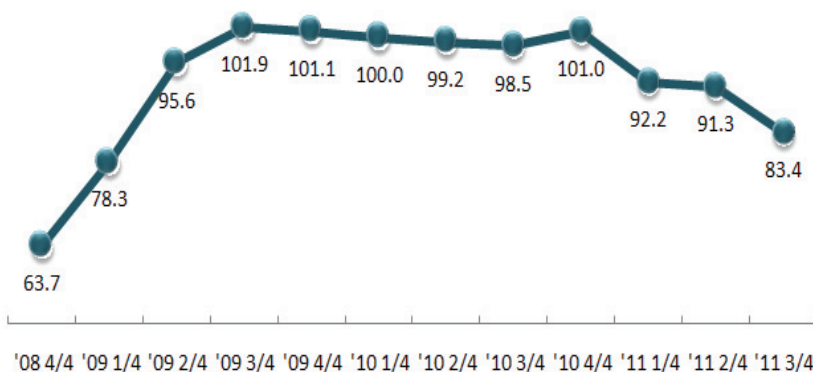
제1절 2011년 3/4분기 소비자체감경기조사 결과

1. 소비자경기지수

1) 소비자태도지수

○ 2011년 3/4분기 서울시 소비자태도지수는 83.4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7.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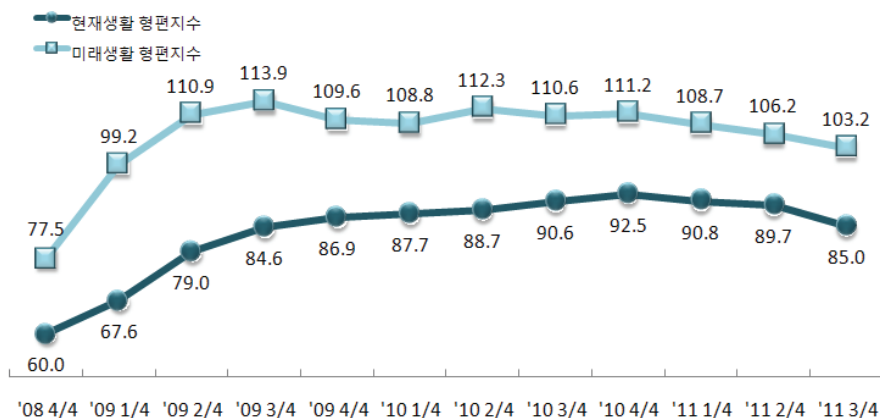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비자태도지수는 2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80대로 나타났으나, 2000만원 이하의 최하위계층에서는 전분기대비 10p 이상 하락하며, 소득계층 중 가장 낮은 75를 기록함.



(그림 5-1) 2011년 3/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2) 생활형편지수

- 1년 전과 비교한 현재 가구의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5.0으로 전분기보다 4.7p 하락함.
 -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며 기준치(100)를 하회함.
 - － 현재생활형편지수가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다른 소득계층이 4p 내외 하락한 것과는 달리 전분기대비 10p 이상 하락한 66.8을 기록하며 현재 생활형편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1년 후의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03.2로 전분기보다 3p 하락하였지만,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감.
 -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30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향후 1년 후의 생활형편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음.
 - － 전분기에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만 미래생활형편지수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과 비교할 때, 미래 생활형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계층이 더 확대된 것으로 조사됨.



(그림 5-2) 2011년 3/4분기 생활형편지수

3) 경기판단지수

○ 2011년 3/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0.4, 경기전망지수는 87.1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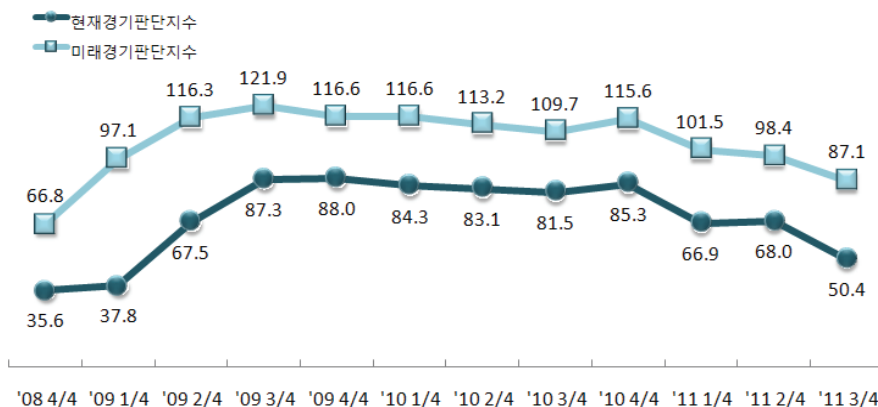
— 이는 전분기에 비해 각각 17.6p, 11.3p 하락한 수치로, 경기판단지수가 전체 소비자태도지수의 하락을 주도함.

— 경기판단지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데는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와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2011년 3/4분기의 현재 및 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전분기보다 하락함.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분기대비 13p 이상 하락하며 미래경기판단지수보다 큰 하락폭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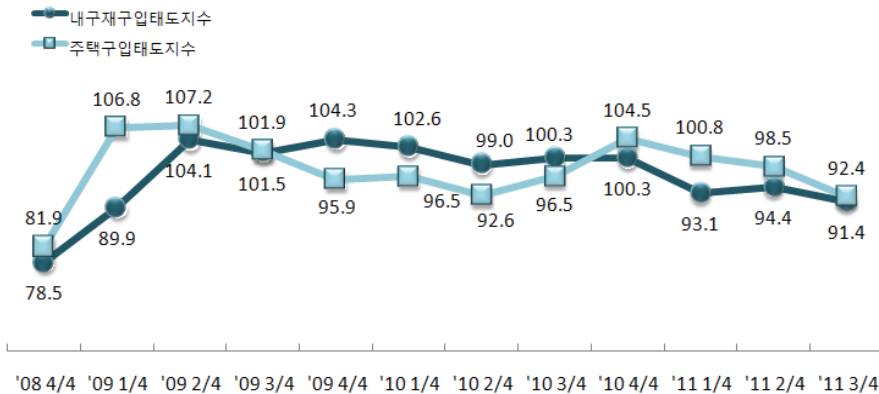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대에서 지수가 하락하며 전분기에 비해 현재와 미래의 경기전망을 어둡게 판단하고 있음.



(그림 5-3) 2011년 3/4분기 경기판단지수

4) 구입태도지수

- 2011년 3/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3p 하락한 91.4를 기록하여 2011년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함.
 - 내구재구입태도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3001~6000만원의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5p 이상 하락하며 1p 내외의 변동폭을 보인 다른 계층과 차이를 보임.
- 2011년 3/4분기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6.1p 하락한 92.4를 기록하여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심리도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구입태도지수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2011년 2/4분기에는 4001~5000만원, 5001~6000만원의 계층에서만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지만, 3/4분기에는 5001~6000만원의 계층에서만 기준치(100)를 상회함.
 - 4001~5000만원의 계층에서는 지수가 12.6p의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기준치 아래(89.4)로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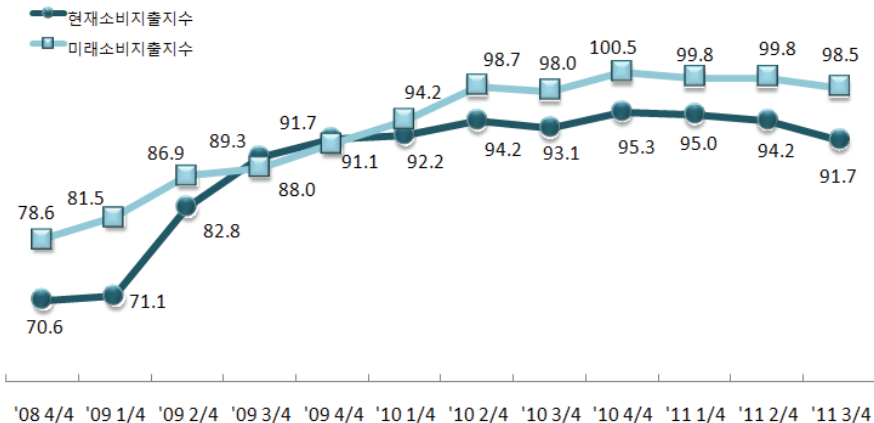


(그림 5-4) 2011년 3/4분기 구입태도지수

2. 현재 소비와 향후 소비 전망

1) 소비지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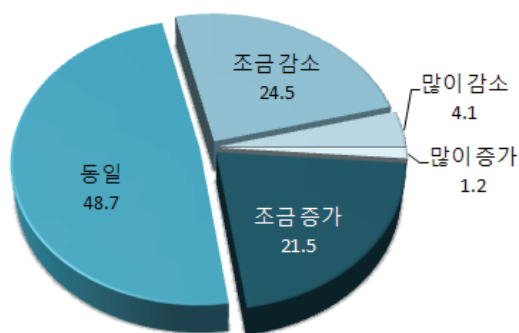
- 2011년 3/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보다 2.5p 하락한 91.7,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분기보다 1.3p 하락한 98.5를 기록하여 두 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음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를 살펴보면, ‘교통/통신비’와 ‘식료품비’는 지수가 전분기대비 상승함.
- 현재소비지출지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수가 상승함.
 - 특히, 6001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에서는 지수가 전분기보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100)를 상회한 반면,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지수가 다른 계층과 달리 전분기보다 4.6p 상승하였지만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미래소비지출지수가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소득계층은 6001만원 이상의 최상위 계층으로 지난 분기 기준치(100)를 상회했던 소득계층이 4001만원 이상인 것에 비해 긍정적인 소득계층의 범위가 축소됨.
 - 중상위층의 계층마저 미래에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아 향후 내수 회복의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5-5) 2011년 3/4분기 소비지출지수

2) 순자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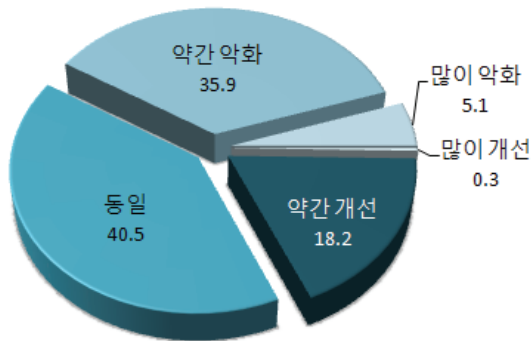
- 2011년 3/4분기 순자산지수는 95.6로 전분기 대비 5.5p 하락하여 3분기만에 다시 기준치(100) 아래로 지수가 하락함.
-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순자산 규모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22.7%로 전분기(26.2%)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순자산 규모가 줄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28.6%로 전분기(22.6%)보다 6%p 증가함.
-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순자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구 중 67.4%가 ‘금융자산이 늘었다’를 순자산 증가의 근거로 꼽아 가장 많음.
-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286가구 중 43.0%가 ‘부채가 늘었다’를 순자산 감소의 근거로 지목해 가장 많음.
- ‘금융자산이 줄었다’는 응답은 36.7%, ‘부동산이 줄었다’는 응답은 20.3%로 전분기와 비슷한 비율을 보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순자산지수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순자산지수는 대체로 저소득 계층보다 주식과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4001만원 이상의 중상위 계층에서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6) 2011년 3/4분기 순자산규모 증가여부

3) 고용상황전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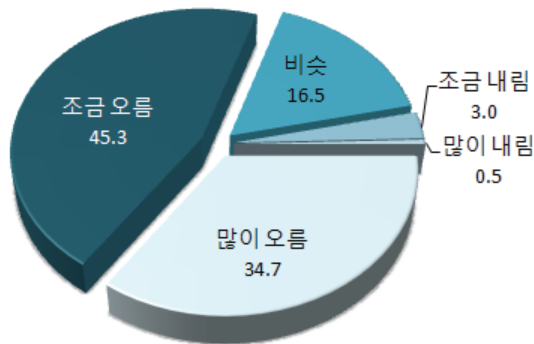
- 2011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6.4로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하였고, 고용상황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10.8p 하락하여 고용심리가 더욱 불안해졌음을 나타내고 있음.
 - 조사대상 가구 중 41.0%가 향후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8.5%만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함.
-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기준치(100)를 하회함.
 - 소득계층별로는 3001~5000만원, 6001만원 이상에서 지수가 전분기대비 10p 이상 하락하고, 연령대별로는 취업에 민감한 30대 이하의 청년층에서 지수가 전분기대비 12.3p 떨어지며 고용심리가 크게 악화되었음.



(그림 5-7) 2011년 3/4분기 고용상황전망

4) 물가전망지수

- 2011년 3/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전분기보다 4.9p 오른 155.4를 기록함.
 -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가구 중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80%인 반면, 물가가 내린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3.5%에 불과함.
 -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및 불안은 소득수준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됨.
 -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대에서 150 이상의 높은 지수를 보이며 6001만원의 최상위 소득계층에서 지수가 가장 높은 159.4를 기록하여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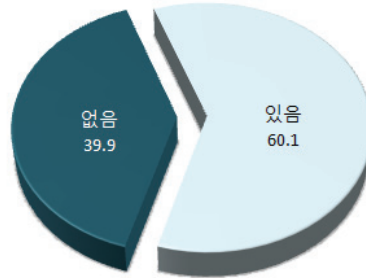


(그림 5-8) 2011년 3/4분기 물가전망

3. 부가조사: 가계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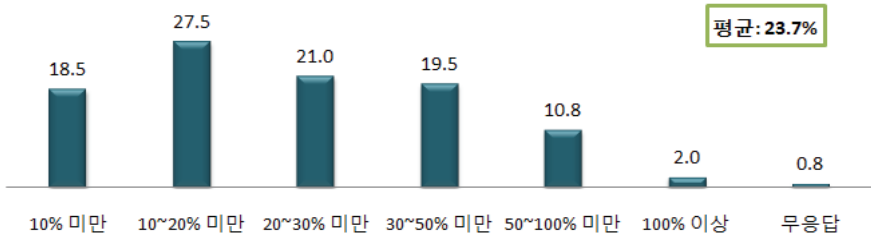
1) 가계부채 유무 및 보유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

- 조사대상 가구 중 60.1%가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모든 소득계층의 절반 이상이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득수준이 2001~3000만원, 40001~5000만원, 5001~6000만원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9) 가계부채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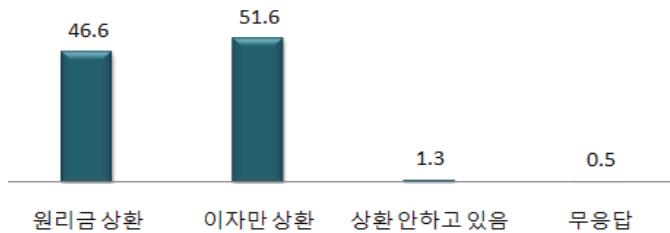
-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들은 보유자산(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3.7%인 것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5001만원 이상인 소득계층에서는 보유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평균 20% 미만이지만, 그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그 비율이 평균 20%를 넘어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0) 보유자산 대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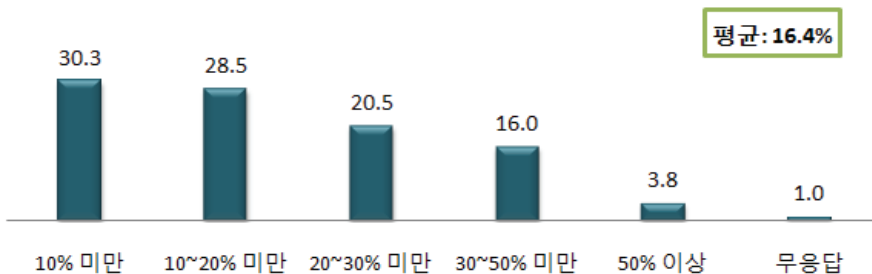
2) 원리금 상환 형태 및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 부채가 있는 가구 중 51.6%가 ‘이자만 상환’하고 있으며, 나머지 46.6%는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수준이 40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층은 50%가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중에서 2000만원 이하는 60% 이상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1) 부채상환 형태

- 이들 가구들은 현재 소득의 16.4%를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평균 65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소득의 ‘10% 미만’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비율이 3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소득수준이 2001~3000만원인 소득계층에서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20.9%로 가장 높고, 그 외의 소득계층에서는 그 비율이 15% 내외로 비슷함.



(그림 5-12) 소득 대비 부채상환 금액 비율

3) 부채 주 사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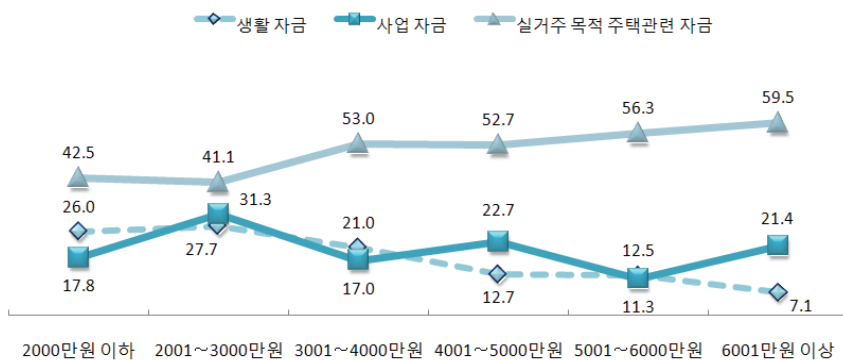
○부채의 주 사용용도(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주택 구입 및 전세, 개보수 등의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이 51.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다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3001만원 이상인 경우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 이상을 보임.

—‘생활자금’에 대한 응답비율은 4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며 10% 내외의 4001만원 이상의 중상위소득 계층과 구분됨.

—반면, 투자 목적의 ‘재테크’는 생활이 비교적 여유로운 소득수준이 4001만원 이상인 중상위층에서, 연령대로는 50~60대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냄.



(그림 5-13) 소득수준별 부채 주사용 용도(복수응답)

제2절 2011년 3/4분기 기업체감경기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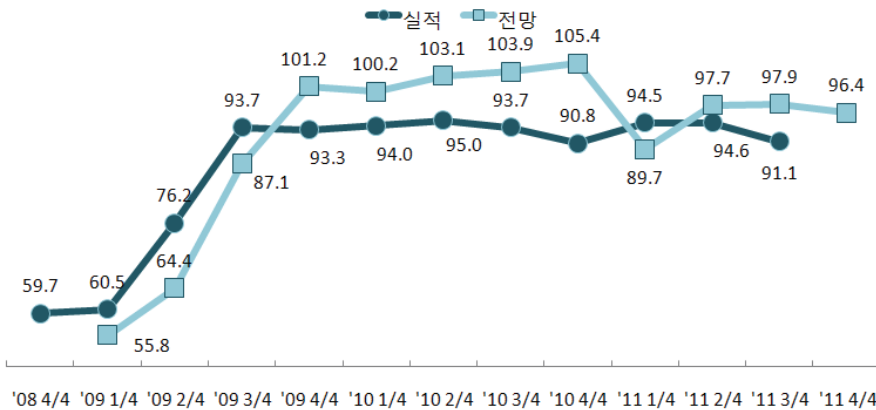
1. 기업경기지수

1) 업황지수

○2011년 3/4분기 업황지수는 전분기대비 3.5p 하락한 91.1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4/4분기 업황전망지수도 96.4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98.2로 전분기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비제조업 역시 전분기(93.3)보다 5.4p 하락한 87.9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2011년 4/4분기 제조업의 업황전망지수는 106.8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비제조업의 업황전망지수는 91.7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5-14) 2011년 3/4분기 업황지수

2) 매출액지수

○ 2011년 3/4분기 매출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4.5p 하락한 95.8을 기록하여 하락 반전하였으며 4/4분기 매출전망지수 역시 98.1로 부정적인 경기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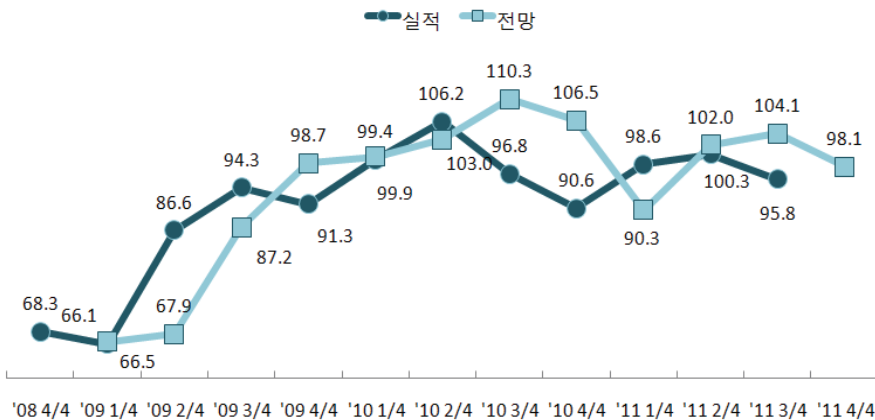
－제조업의 매출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1.9p 상승한 109.7을 기록한 반면, 비제조업의 매출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1.8p 하락한 89.6을 기록함.

－기업 구분별 매출액실적지수는 대기업의 경우 전분기보다 4.1p 상승한 99.1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은 전분기보다 6.1p 하락한 95.2로 전분기 호조세에서 부진세로 반전되어 매출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4/4분기 매출전망지수는 대기업이 101.6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반면, 중소기업은 97.4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수출기업의 매출액실적지수는 110.4로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내수기업은 전분기 대비 4.8p 하락한 94.8로 계속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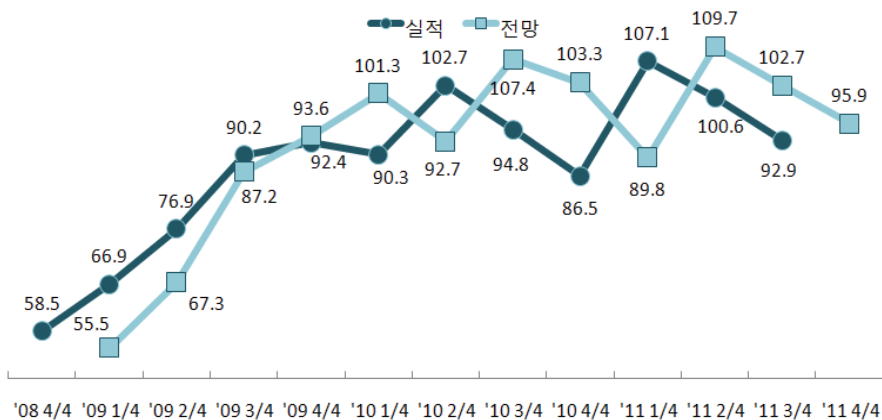
－2011년 4/4분기 매출전망지수는 각각 101.4, 97.8로 조사됨.



(그림 5-15) 2011년 3/4분기 매출액지수

3) 경상이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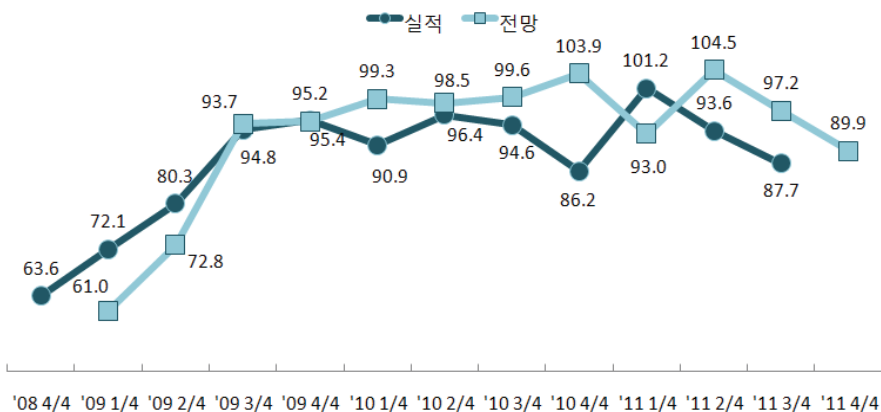
- 2011년 3/4분기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7.7p 하락한 92.9를 기록하였으며 4/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 역시 95.9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함.
-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제조업의 경우 102.3으로 기준치(100)를 넘어 호조를 보인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88.7로 전분기 호조세에서 부진세로 반전됨.
- 대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1.1p 하락한 94.8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상이익실적지수 역시 전분기 호조세에서 부진세로 반전됨.
- 4/4분기 경상이익전망지수는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분기보다 0.9p 상승한 103.2로 계속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반면, 비제조업은 전분기보다 3.8p 상승한 92.5로 부진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함.
- 기업 구별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5.6p 상승한 100.4로 기준치(1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2.5p 상승한 95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16) 2011년 3/4분기 경상이익지수

4) 자금사정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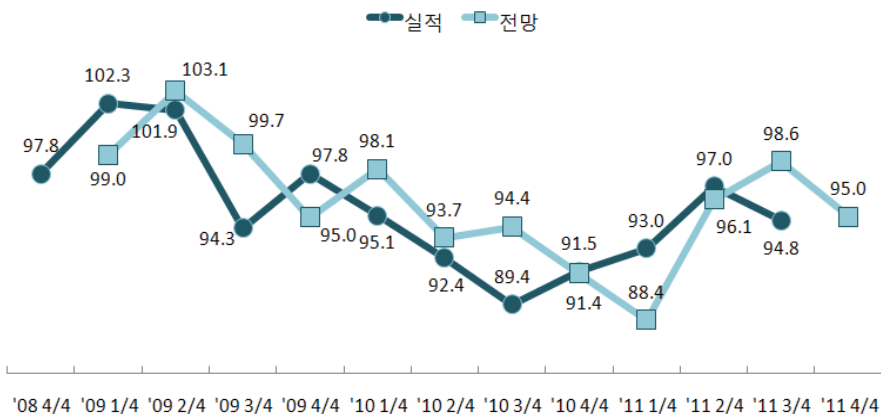
- 2011년 3/4분기 자금사정실적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5.9p 하락한 87.7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제조업의 경우는 전분기대비 3p 하락한 89.2로 나타났고, 비제조업은 전분기대비 7.1p 하락한 87.0으로 나타나 모두 전분기에 이어 부진세를 이어감.
 -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8.7p 상승한 101로 자금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8.7p 하락한 85.1로 자금사정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4/4분기 자금사정전망지수 역시 전분기대비 2.2p 상승한 89.9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4/4분기 자금사정전망지수는 제조업의 경우 전분기대비 8.1p 상승한 97.3으로 자금사정이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86.6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은 전분기대비 2.5p 상승한 103.5로 계속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고, 중소기업은 전분기대비 2.2p 상승한 87.3으로 계속 부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그림 5-17) 2011년 3/4분기 자금사정지수

5) 종사자수지수

- 2011년 3/4분기 종사자수실적지수는 전분기대비 2.2p 하락한 94.8로 적정 수준인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분기대비 2.4p 상승한 93으로 종사자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 역시 전분기대비 4p 하락한 95.6으로 종사자수가 더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분기대비 각각 2.1p, 2p 하락한 93.4, 95.1로 종사자수가 더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4/4분기 종사자수전망지수도 95로 전분기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4/4분기 종사자수전망지수는 제조업의 경우 93에서 95.1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비제조업의 경우 95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각각 93.8, 95.3으로 종사자수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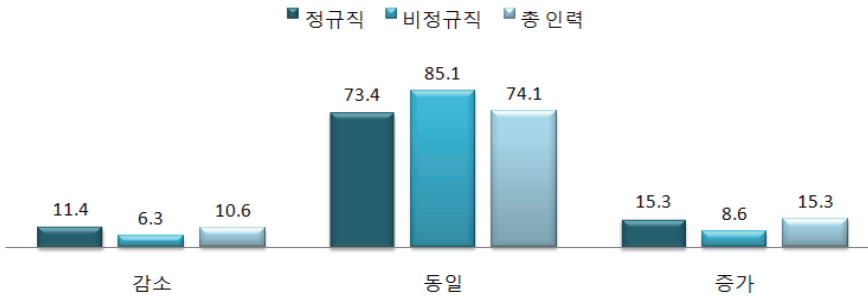


(그림 5-18) 2011년 3/4분기 종사자수지수

2. 기업 부문 부가설문: 고용 상황 및 전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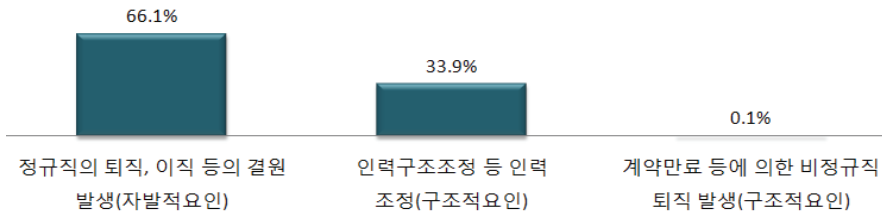
1) 전분기대비 인력규모 변동

- 2011년 2/4분기대비 3/4분기의 인력규모 변동 상황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대다수 기업들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인력규모가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15.3%)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10.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업원 수가 많고 매출액이 커질수록 정규직의 증가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인력규모의 증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9) 2011년 3/4분기 고용규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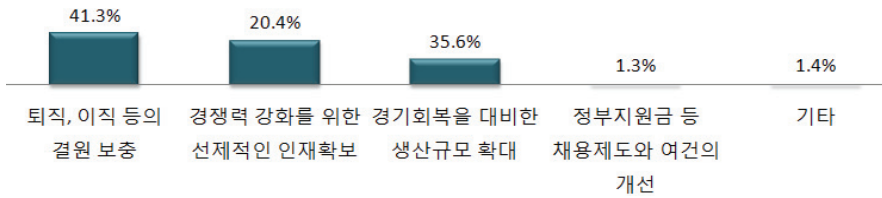
- 2011년 2/4분기대비 3/4분기 인력규모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의 퇴직, 이직 등의 결원 발생(자발적요인)’(66.1%)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인력구조조정 등의 인력 조정(구조적요인)’(33.9%)을 꼽음.



(그림 5-20) 고용규모 감소 이유

○2011년 2/4분기대비 3/4분기 인력규모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퇴직, 이직 등의 결원 보충’(41.3%)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인재확보’(35.6%), ‘경기회복을 대비한 생산규모 확대’(20.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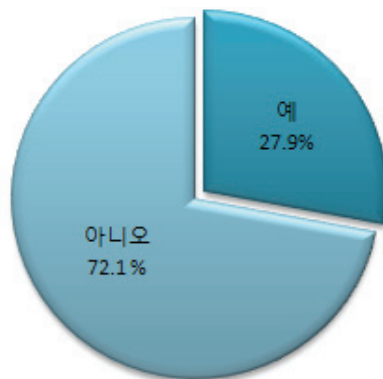


(그림 5-21) 고용규모 증가 이유

2) 다음 분기 고용 전망 및 규모

○2011년 4/4분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27.9%인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기업 구분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수출 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채용 계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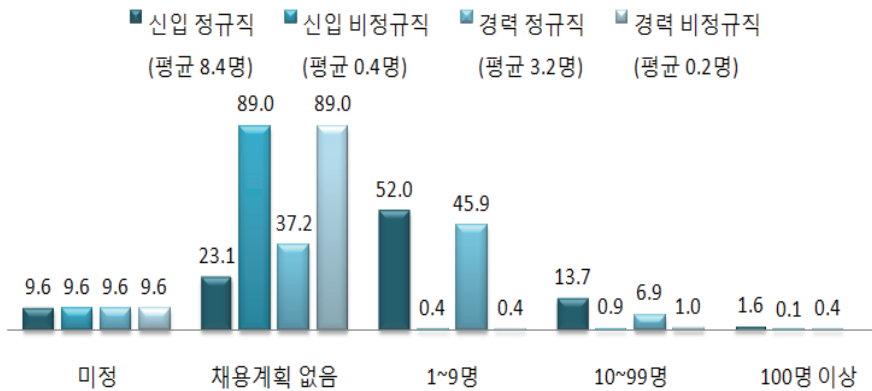


(그림 5-22) 다음 분기 채용계획 여부

○2011년 4/4분기 채용 규모는 평균적으로 신입 정규직은 8.4명, 신입 비정규직은 0.4명, 경력 정규직은 3.2명, 경력 비정규직은 0.2명으로 총 12.2명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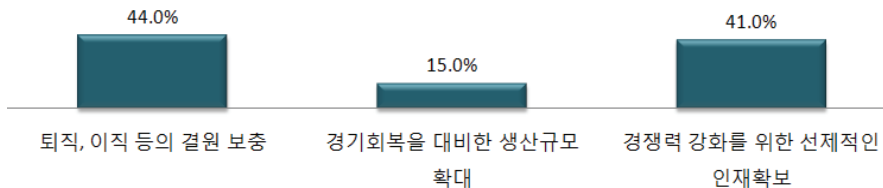
—대기업은 신입 정규직을 평균 4.7명, 경력 정규직을 평균 9.4명 채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신입 정규직을 평균 2.7명, 경력 정규직을 평균 1.8명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임.

—업종별로는 신입 정규직에선 비제조업의 채용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 정규직에선 제조업의 채용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5-23) 다음 분기 채용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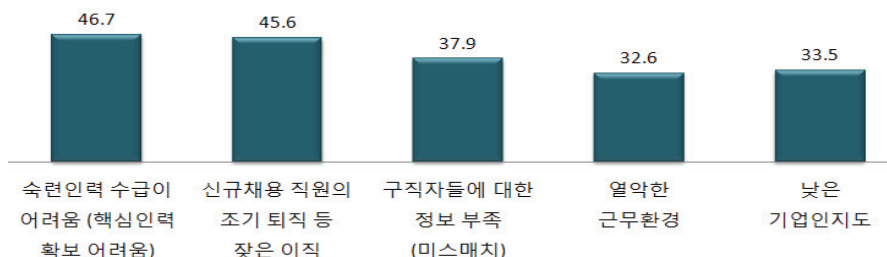
○2011년 4/4분기 인력채용 계획 이유를 보면 ‘퇴직, 이직 등의 결원 보충’(44.0%)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인재확보’(4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경기회복을 대비한 생산규모 확대’(15.0%)도 있었음.



(그림 5-24) 다음 분기 채용계획 이유

3) 인력채용 애로사항

- 인력채용에서의 애로사항을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숙련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응답이 4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신규채용 직원의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45.6점, ‘구직자들에 대한 정보 부족’(미스매치)이 37.9점 순임.
-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신규채용직원의 조기퇴직 및 잦은 이직’을 인력채용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매출실적이 적은 기업일수록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기업인지도’를 인력채용의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수출구분별로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신규채용직원의 조기퇴직 및 잦은 이직’, ‘숙련인력 수급의 어려움’,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기업인지도’를 인력채용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25) 인력채용의 애로사항

제6장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제1절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개요

제2절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3절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개선방안

제 6 장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제1절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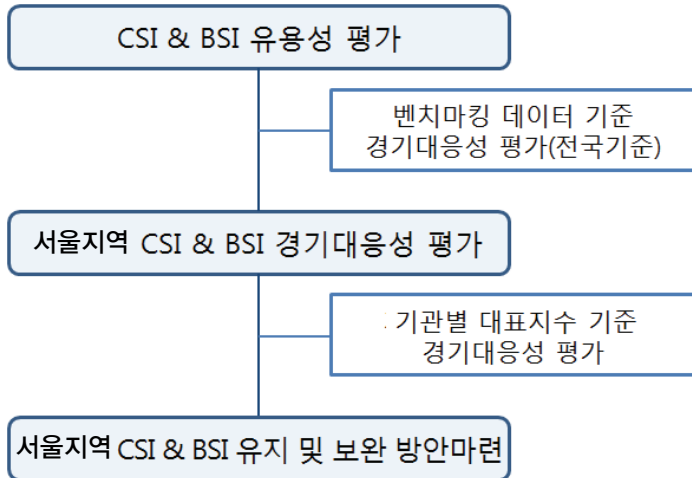
1.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지수진단

-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를 통해 작성된 각 지수는 서울지역 경기를 평가하는 주요 지역통계로서 각 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진단이 필요함.
 - 국가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은 작성통계에 대해 자체품질진단(1년 주기), 정기진단(5년 주기)을 하고 있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8년 4/4분기 이후 조사·작성하고 있는 서울 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는 3년 정도 실시되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이번 모니터링은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경기국면별 실물지표와의 경기 시차²⁾,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경기 반영성, 그리고 향후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실시함.

2) 경기국면별 실물지표와의 경기시차는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결과와 실물지표의 흐름을 비교할 때 경기 정·저점에서는 선행성, 회복 확장국면에서는 후행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

2.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절차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은 다음의 흐름으로 진행됨.
 - 서울지역의 경기국면을 판단할 수 있는 속보성 있는 벤치마킹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와 벤치마킹 통계를 비교하여 경기조사의 유용성을 평가한 후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와 전국 단위 경기조사를 상호 비교하는 간접비교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그림 6-1)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흐름도

- 1단계: 경기 국면 평가를 위한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경기국면 판단 유용성 평가
 - 전국단위로 조사·발표되는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경기조사와 경기반영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 개별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비자경기조사의 경기판단 유용성을 비교

○2단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경기국면 대응성 평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를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등 기관별 대표지수와 비교하여 방향성 및 상관관계 분석

○3단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유지 및 보완 방안 모색

제2절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1.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 유용성 기준

○ 전국단위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의 경기판단 유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기반영 벤치마킹 지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 통계적 기준(통계적 적합성, 경기속보성)과 경기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제한적인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후보 지표를 선정함.

기준1. 지표의 경기반영 및 대표성

기준2. 지표의 경기대응성

기준3. 통계작성의 일관성

기준4. 통계작성의 작성주기

○ 위와 같은 기준으로 총 36개의 지표를 경기국면 판단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벤치마킹 지표로 선정함.

— 경기종합지수(CI)는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현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동행지수’, 경기동향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는 ‘후행지수’를 선정

— 그 외에 개별 경제지표 중 대표적인 GDP(국내총생산)나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변수로 사용

○ 선정된 벤치마킹 지표 중 지표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비자경기조사는 18개의 지표, 기업경기조사는 36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조사에 사용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6-1〉 벤치마킹 지표

선택지표	소비자경기조사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물가지수(2005=100)(전국)	○	○
취업자(천명) (시정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	○
실업률(%) (시정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	○
고용률(%) (시정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	○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	○	○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 전기비) (%)	○	○
총저축률(명목, 계절조정) (%)	○	○
국내총투자율 (%)	○	○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	○	○
설비투자증감률(실질, 전기비) (%)	X	○
건설투자증감률(실질, 전기비) (%)	X	○
선행종합지수(2005=100)	○	○
재고순환지표(%p)	X	○
기계수주액(선박제외, 불변)(십억원)	X	○
자본재수입액(실질)(백만달러)	X	○
건설수주액(실질)(십억원)	X	○
순상품교역조건(2005=100)	X	○
구인구직비율(%)	X	○
종합주가지수(1980.1.4=100)	○	○
금융기관유동성(실질)(조원)	X	○
장단기금리차(%p)	○	○
동행종합지수(2005=100)	○	○
광공업생산지수(2005=100)	X	○
제조업가동률지수(2005=100)	X	○
건설기성액(실질)(십억원)	X	○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제외)(2005=100)	X	○
도소매판매액지수(2005=100)	○	○
내수출하지수(2005=100)	X	○
수입액(실질)(백만달러)	X	○
비농가취업자수(천명)	○	○
후행종합지수(2005=100)	○	○
생산자제품재고지수(2005=100)	X	○
도시가계소비지출(실질)(천원)	○	○
소비재수입액(실질)(백만달러)	X	○
상용·임시근로자수(천명)	○	○
회사채유통수익률(%)	X	○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2. 전국 단위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 유용성 검토 결과

1) 소비자경기조사 유용성 검토

○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의 전국단위 소비자경기조사를 기준으로 각 벤치마킹 지표와의 상관성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 두 기관의 소비자경기조사 결과 모두 국내총생산(GDP), 실질 국민총소득(GNI), 민간소비증감률과 같은 경기흐름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

〈표 6-2〉 소비자경기조사 유용성 검토결과

비교지표	유의한 지표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소비자물가지수(2005=100)(전국)		
취업자(천명) (시정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실업률(%) (시정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고용률(%) (시정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	**	**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 전기비) (%)	**	**
총저축률(명목, 계절조정) (%)		
국내총투자율 (%)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	**	**
선행종합지수(2005=100)		
종합주가지수(1980.1.4=100)		
장단기금리차(%p)	**	**
동행종합지수(2005=100)		
도소매판매액지수(2005=100)		
비농가취업자수(천명)		
후행종합지수(2005=100)		
도시가계소비지출(실질)(천원)		
상용·임시근로자수(천명)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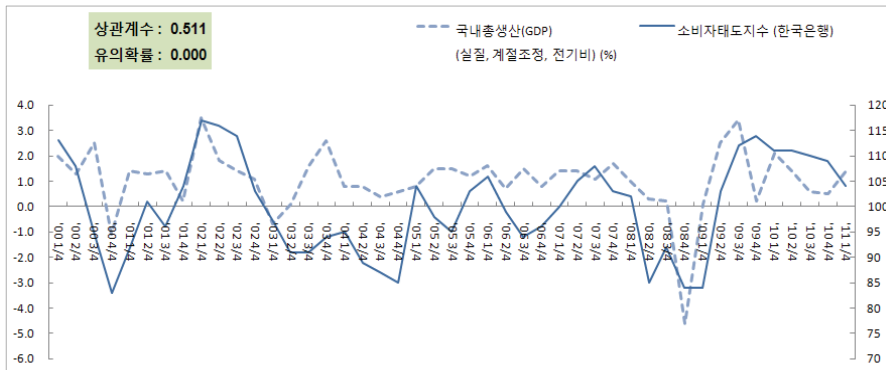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 한국은행의 소비자경기조사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4개 지표로 각 지표와의 상관계수 및 지표 흐름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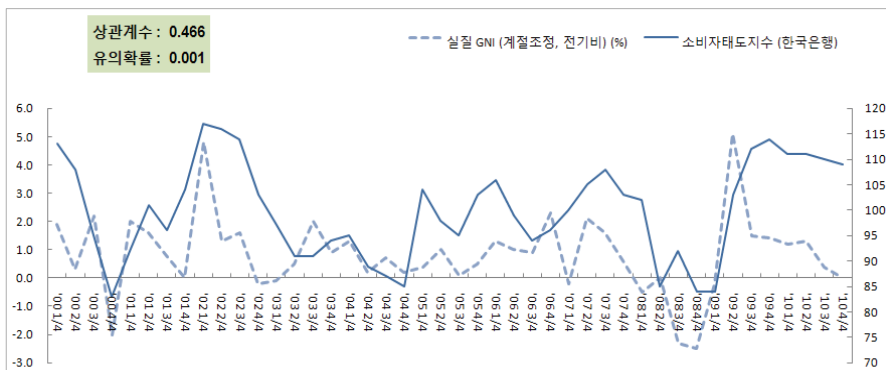
한국은행 CSI와 유의한 지표	상관계수	유의확률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	0.511	0.000**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 전기비) (%)	0.466	0.001**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	0.512	0.000**
정단기금리차(%p)	0.492	0.001**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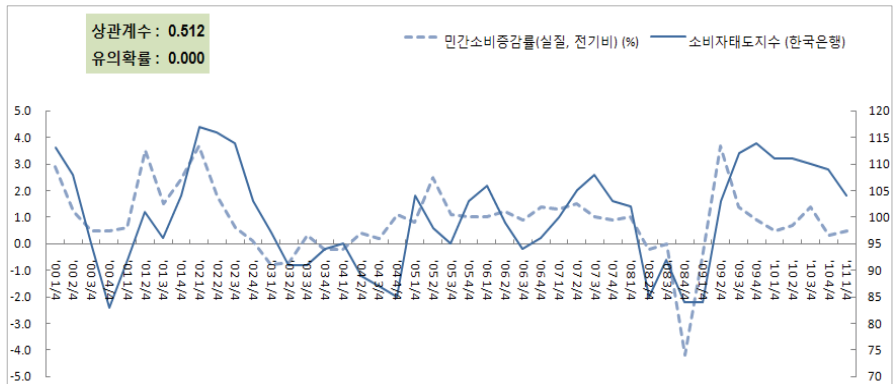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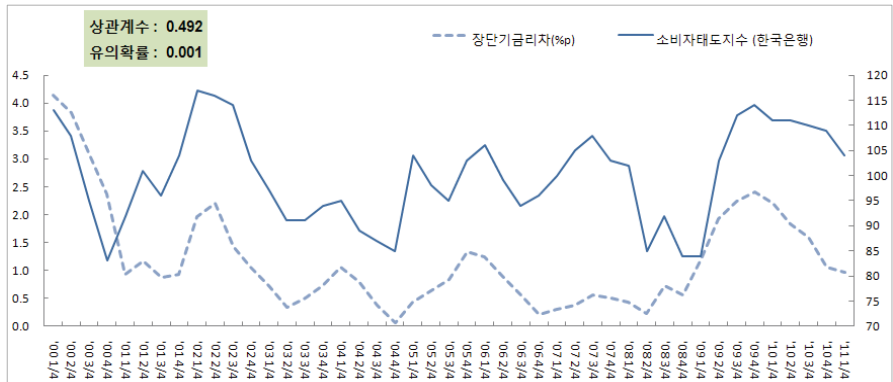
(그림 6-2) 국내총생산(GDP)



(그림 6-3) 실질 국민총소득(GNI)



(그림 6-4) 민간소비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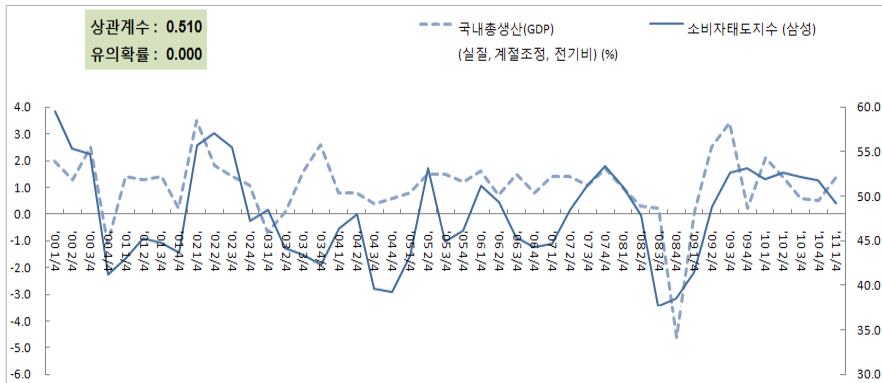
(그림 6-5) 장단기금리차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경기조사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지표 역시 다음과 같은 4개 지표로 각 지표와의 상관계수 및 지표 흐름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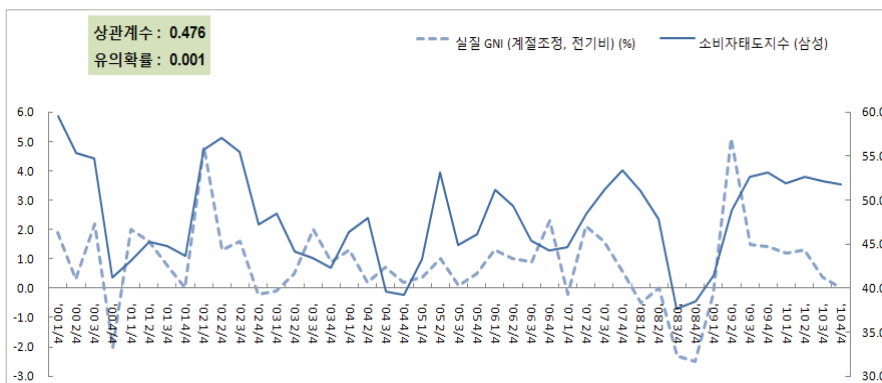
한국은행 CSI와 유의한 지표	상관계수	유의확률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	0.510	0.000**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 전기비) (%)	0.476	0.001**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	0.434	0.003**
장단기금리차(%p)	0.621	0.000**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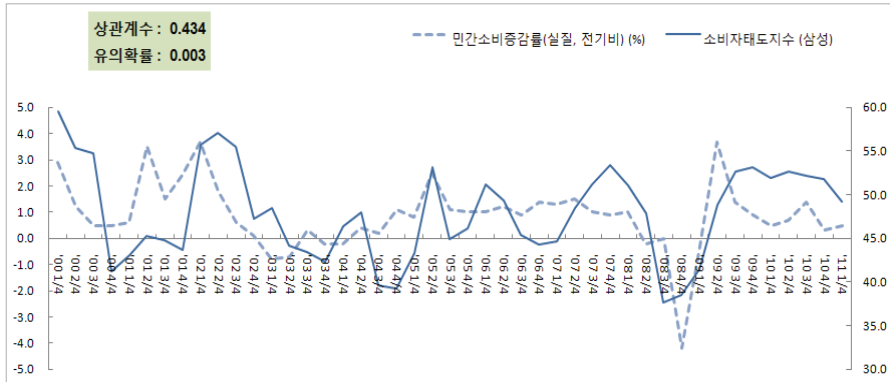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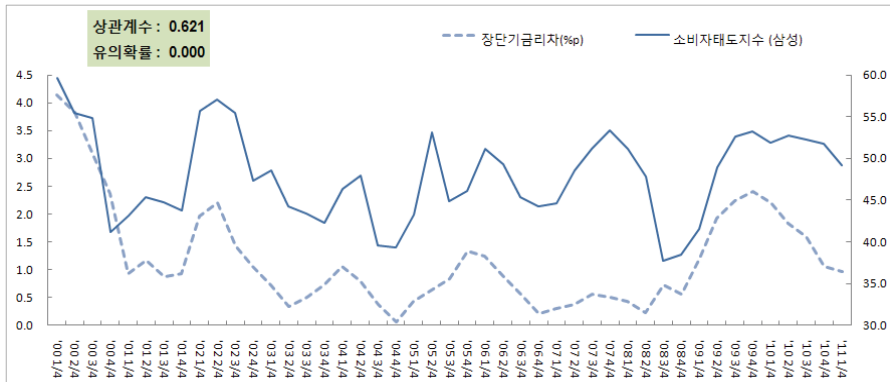
(그림 6-6) 국내총생산(GDP)



(그림 6-7) 실질 국민총소득(GNI)



(그림 6-8) 민간소비증감률



(그림 6-9) 장단기금리차

2) 기업경기조사 유용성 검토

- 한국은행과 전국기업인연합회의 전국단위 기업경기조사를 기준으로 각 벤치마킹 지표와의 상관성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3〉 기업경기조사 유용성 검토결과

비교지표	유의한 지표	
	한국은행	전경련
소비자물가지수(2005=100)(전국)		
취업자(천명) (시정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실업률(%) (시정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고용률(%) (시정연만 서울, 타 기관 전국)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가비) (%)	**	**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 전가비) (%)	*	**
총저축률(명목, 계절조정) (%)		
국내총투자율 (%)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가비) (%)	**	**
설비투자증감률(실질, 전가비) (%)	**	**
건설투자증감률(실질, 전가비) (%)		
선행종합지수(2005=100)		
재고순환지표(%p)	**	**
기계수주액(선박제외, 불변)(십억원)		
자본재수입액(실질)(백만달러)		
건설수주액(실질)(십억원)		
순상품교역조건(2005=100)		
구인구직비율(%)	**	*
종합주가지수(1980.1.4=100)		
금융기관유동성(실질)(조원)		
장단기금리차(%p)	**	*
동행종합지수(2005=100)		
광공업생산지수(2005=100)		
제조업가동률지수(2005=100)	**	**
건설기성액(실질)(십억원)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업제외)(2005=100)		
도소매판매액지수(2005=100)		
내수출하지수(2005=100)		
수입액(실질)(백만달러)		
비농가취업자수(천명)		
후행종합지수(2005=100)		
생산자제품재고지수(2005=100)		
도시가계소비지출(실질)(천원)		
소비재수입액(실질)(백만달러)		
상용·임시근로자수(천명)		
회사채유통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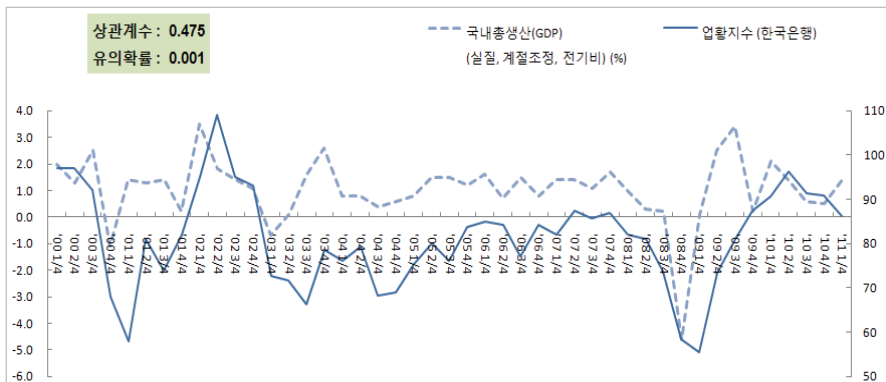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 두 기관의 기업경기조사 결과 모두 국내총생산(GDP), 실질 국민총소득(GNI), 민간소비증감률, 설비투자증감률, 제조업가동률지수와 같은 경기흐름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8개 지표로 각 지표와의 상관계수 및 지표 흐름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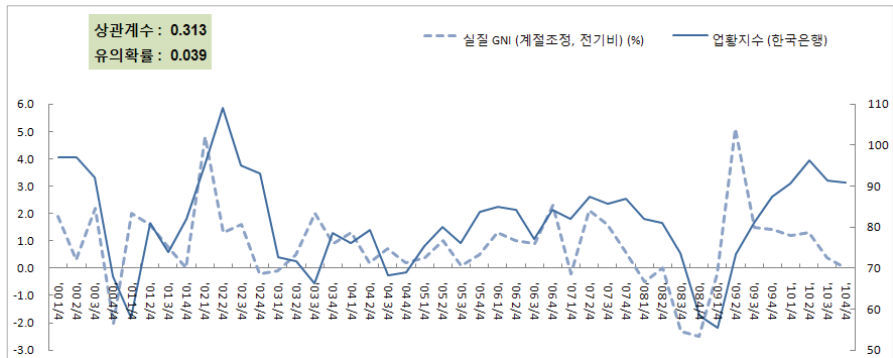
한국은행 BSI와 유의한 지표	상관계수	유의확률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	0.475	0.001**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 전기비) (%)	0.313	0.039*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	0.427	0.003**
설비투자증감률(실질, 전기비) (%)	0.582	0.000**
재고순환지표(%p)	0.664	0.000**
구인구직비율(%)	0.400	0.006**
장단기금리차(%p)	0.490	0.001**
제조업가동률지수(2005=100)	0.486	0.001**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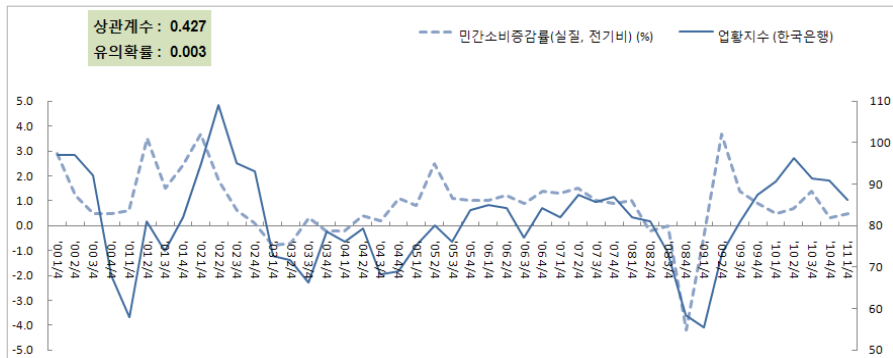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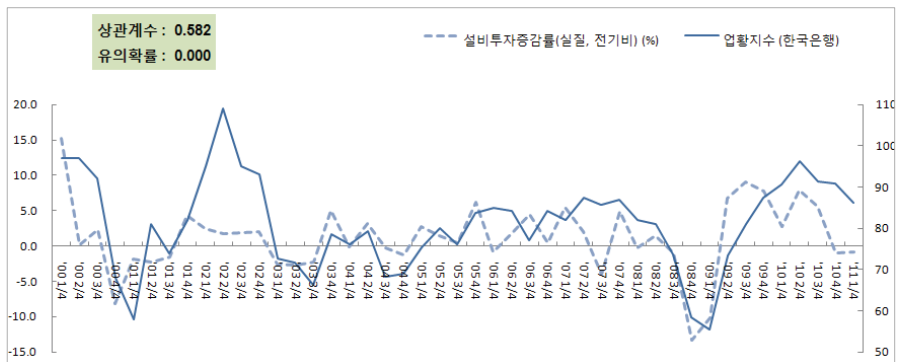
(그림 6-10) 국내총생산(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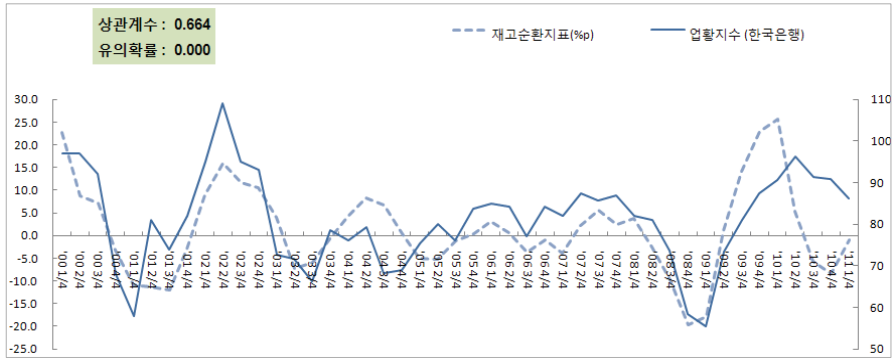
(그림 6-11) 실질 국민총소득(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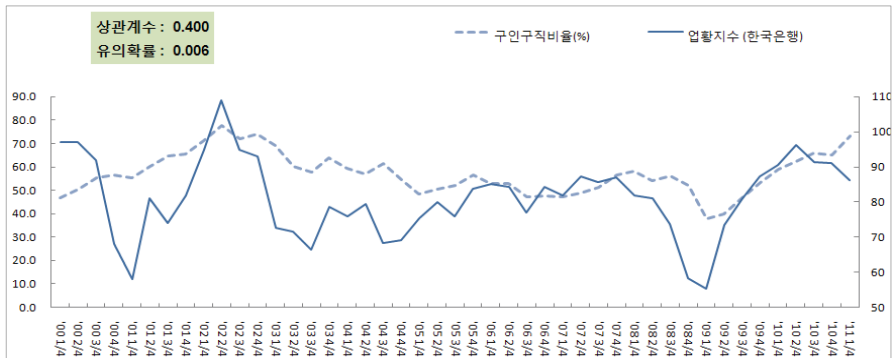
(그림 6-12) 민간소비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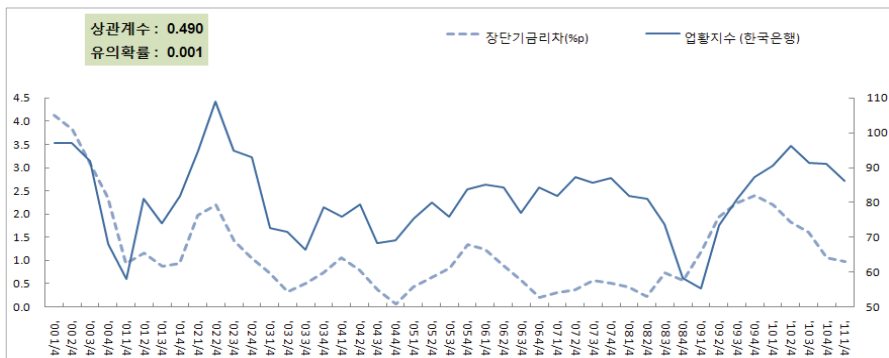
(그림 6-13) 설비투자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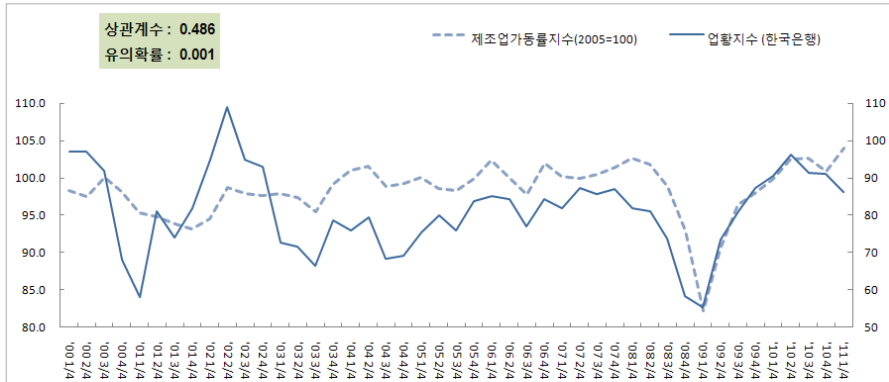
(그림 6-14) 재고순환지표



(그림 6-15) 구인구직비율



(그림 6-16) 장단기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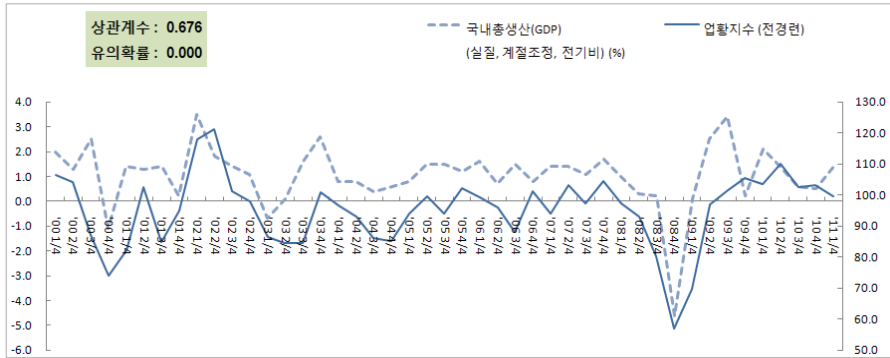
(그림 6-17) 제조업가동률지수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경기조사와 상관관계가 유의한 지표 역시 다음과 같은 8개지표로 각 지표와의 상관계수 및 지표 흐름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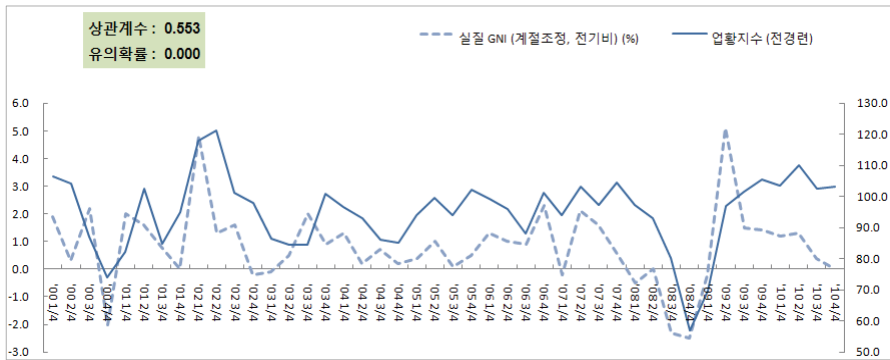
한국은행 BSI와 유의한 지표	상관계수	유의확률
국내총생산(GDP)(실질, 계절조정, 전기비) (%)	0.676	0.000**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 전기비) (%)	0.553	0.000**
민간소비증감률(실질, 전기비) (%)	0.639	0.000**
설비투자증감률(실질, 전기비) (%)	0.685	0.000**
재고순환지표(%p)	0.633	0.000**
구인구직비율(%)	0.317	0.034*
장단기금리차(%p)	0.336	0.024*
제조업가동률지수(2005=100)	0.420	0.004**

*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 ($p \leq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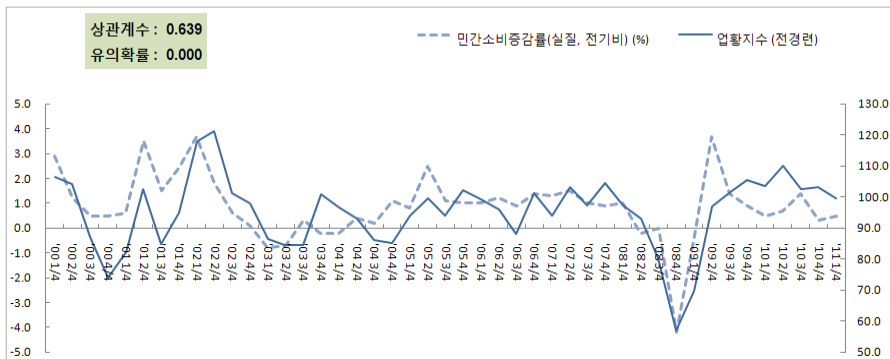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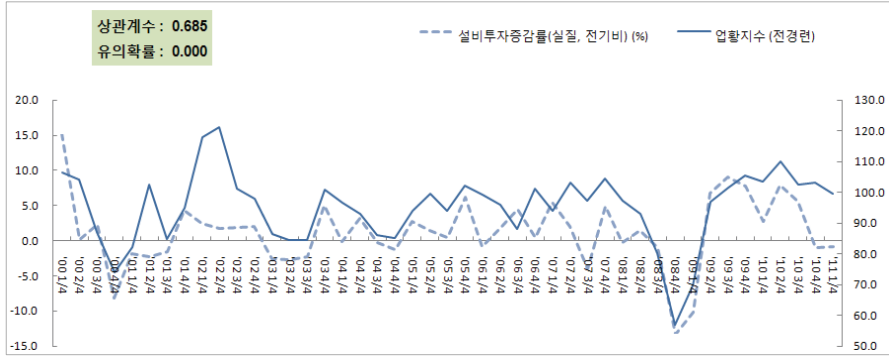
(그림 6-18) 국내총생산(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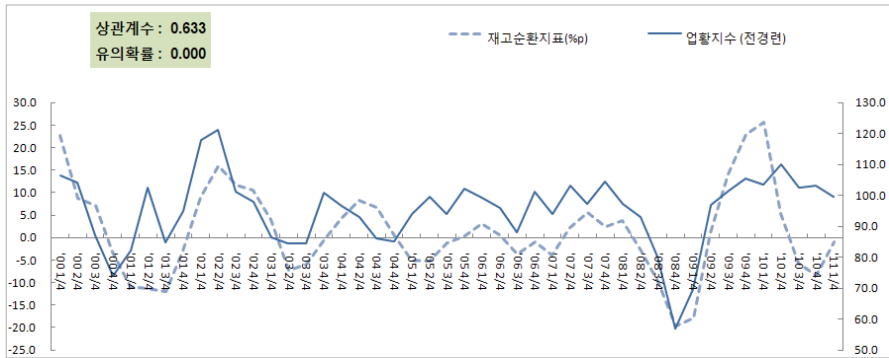
(그림 6-19) 실질 국민총소득(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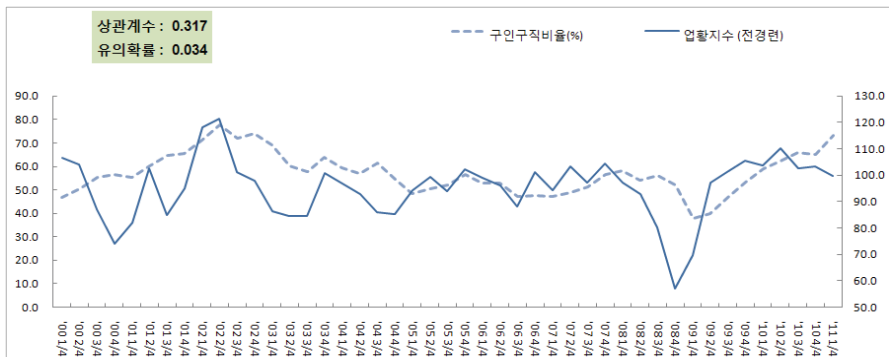
(그림 6-20) 민간소비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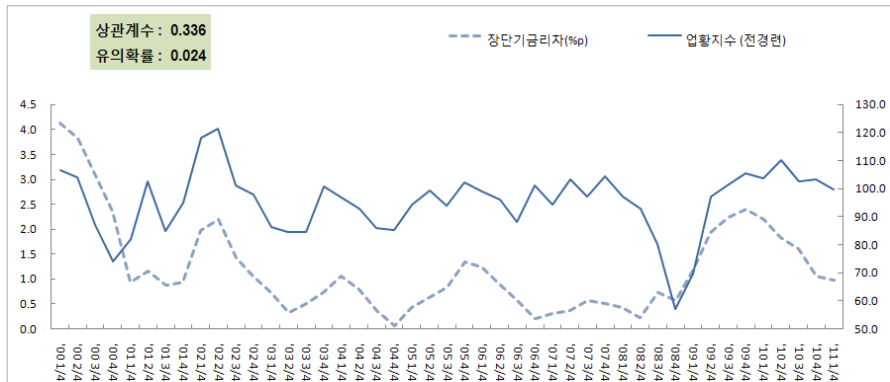
(그림 6-21) 설비투자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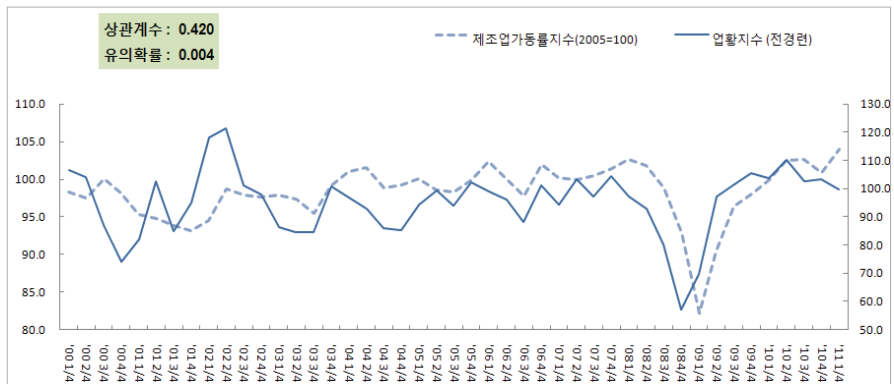
(그림 6-22) 재고순환지표



(그림 6-23) 구인구직비율



(그림 6-24) 장단기금리차



(그림 6-25) 제조업가동률지수

3.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지수 모니터링 결과

1) 서울지역 소비자경기조사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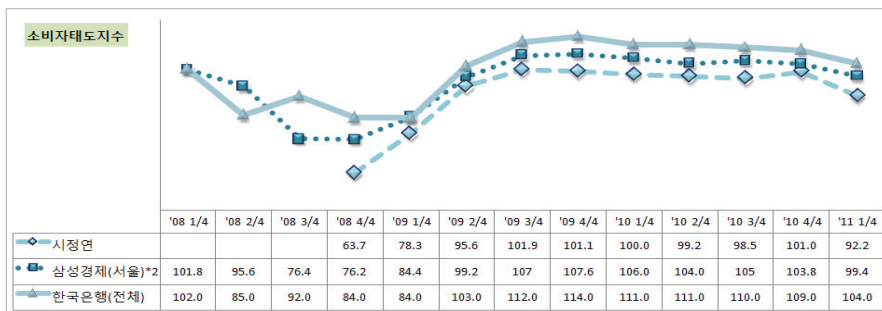
○기관별 소비자경기조사 지표비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은행 등 세 기관의 대표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별 조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지역 대상의 분기별 조사
- 삼성경제연구소: 전국지역 대상의 분기별 조사이나 서울지역만 나타냄, 기준값이 50으로 다른 조사의 기준치(100)와 맞춰 비교하기 위해 임의로 2를 곱하여 나타내었음.
- 한국은행: 2008년 1·2분기만 분기별 조사, 그 이후로는 월별 조사(비교를 위해 3개월 단순평균으로 분기화)를 함. 소비자태도지수는 서울지역을 구분하지 않음.

○소비자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소비자태도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비자경기조사와 삼성경제연구소(서울지역), 한국은행(전국)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삼성경제연구소(서울)	한국은행(전국)
소비자태도지수(시정연)	0.989 (0,000**)	0.950 (0,000**)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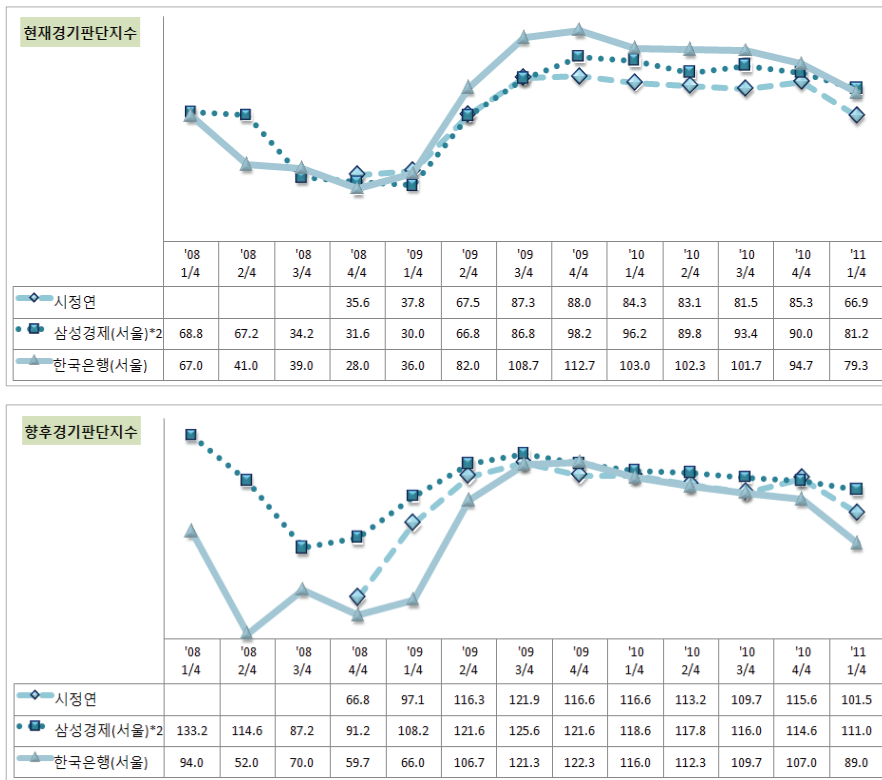


(그림 6-26) 소비자태도지수

○ 현재 및 향후경기판단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비자경기 조사와 삼성경제연구소(서울지역), 한국은행(전국)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삼성경제연구소(서울)	한국은행(전체)
현재경기판단지수 (시정연)	0.987 (0.000**)	0.991 (0.000**)
향후경기판단지수 (시정연)	0.978 (0.000**)	0.903 (0.001**)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그림 6-27) 현재 및 향후경기판단지수

2)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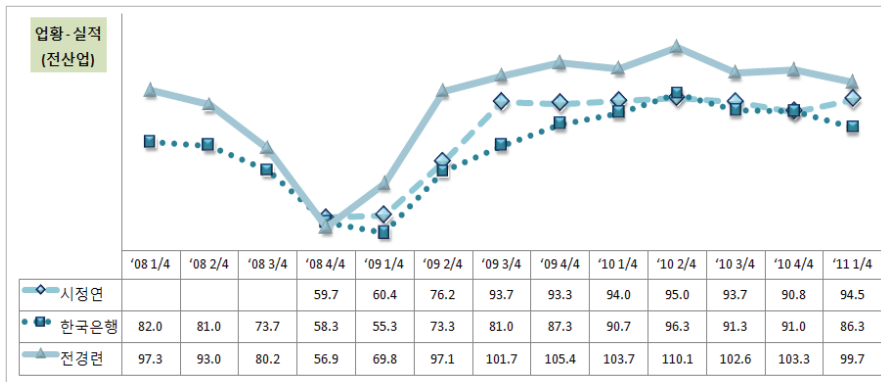
○기관별 기업경기조사 지표비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세 기관의 대표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별 조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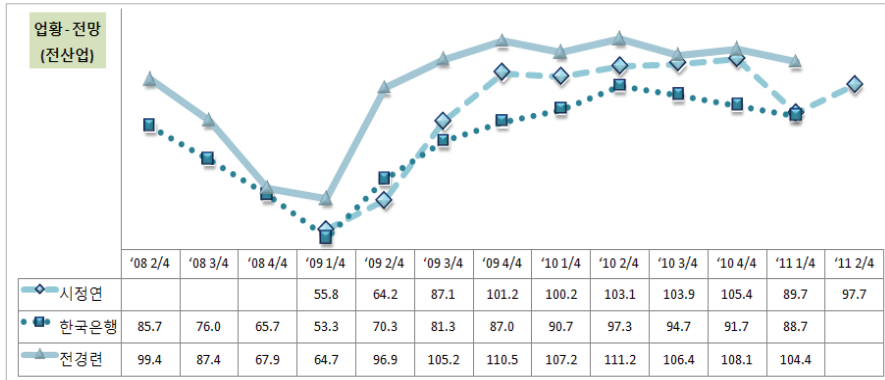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분기별 조사, 서울지역 대상
-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별조사(비교를 위해 3개월 단순평균으로 분기화)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전 산업 업황 실적 및 전망지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기업경기조사와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가 모두 유사한 경기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한국은행	전경련
업황-실적 (전 산업, 시정연)	0.962 (0.000**)	0.948 (0.000**)
업황-전망 (전 산업, 시정연)	0.955 (0.000**)	0.861 (0.003**)

**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함 ($p \leq 0.01$)





(그림 6-28) 전 산업 업황지수

3)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모니터링 결과 종합

-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와 기관별 대표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과 소비자경기조사와 기업경기조사 모두 경기반영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소비자태도지수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원의 지표를 비교한 결과 각 지수의 경기흐름이 유의한 수준에서 동일한 것으로 분석
 - 기업경기조사의 대표지수인 전 산업 업황실적 및 전망지수 역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기흐름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분석
- 따라서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에 대한 전면적 개편보다는 지수의 활용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기특성을 현재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제3절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조사 개선방안

- 서울지역 소비자경기조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 권역별 지수의 산출을 통해 공간적으로 보다 세분화된 각 권역의 경기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 작성 및 발표방안 모색
 - 분기별 이슈를 중심으로 조사되던 부가조사를 가계부채, 주택 및 부동산 경기진단과 같은 조사로 변경하여 주기적 조사를 통해 부족한 관련 통계 보완 및 시계열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
- 서울지역 기업경기조사의 개선방안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서울시 경제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방식, 조사샘플, 지수산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특히 기업경기조사의 부가조사는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고용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임.

부

부



부록 1 소비자체감경기 조사표

1) 소비자체감경기 기본조사 세부내용

SQ1) 가구주 연령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SQ2) 응답자 성별 : 1. 남자 2. 여자

SQ3) 응답자 구분 :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Q1. 현재 귀댁의 생활형편은 1년 전에 비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 1. 많이 좋아졌다 2. 조금 좋아졌다 3. 똑같다
- 4. 조금 나빠졌다 5. 많이 나빠졌다

Q2. 귀댁의 생활형편은 1년 후에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 같습니까?

- 1. 많이 좋아질 것이다 2. 조금 좋아질 것이다 3. 똑같은 것이다
- 4. 조금 나빠질 것이다 5. 많이 나빠질 것이다

Q2-1) 귀댁의 생활형편이 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임금 등의 가계소득 증가 2.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
- 3.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외상구매대금 등의 가계부채 감소
- 4. 물가 안정 5. 정치사회 안정
- 6.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 등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

Q2-2) 귀댁의 생활형편이 왜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임금 등의 가계소득 감소 2.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 3.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외상구매대금 등의 가계부채 증가
- 4. 물가 상승 5. 정치사회 불안
- 6.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Q3. 현재 서울지역의 경기는 1년 전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까? 나빠진 것 같습니다까? 아니면 똑같습니다까?

- | | | |
|------------|------------|--------|
| 1. 많이 좋아졌다 | 2. 조금 좋아졌다 | 3. 똑같다 |
| 4. 조금 나빠졌다 | 5. 많이 나빠졌다 | |

Q4. 서울지역의 경기가 1년 후에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까? 나빠질 것 같습니다까? 아니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까?

- | | | |
|---------------|---------------|------------|
| 1. 많이 좋아질 것이다 | 2. 조금 좋아질 것이다 | 3. 똑같은 것이다 |
| 4. 조금 나빠질 것이다 | 5. 많이 나빠질 것이다 | |

Q4-1) 서울지역의 경기가 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부동산 경기 회복 | 2. 기업경기 회복 | 3. 주식시장 활황 |
| 4. 세계 경기 회복 | 5. 물가 안정 | 6. 정치사회 안정 |
| 7. 언론의 긍정적인 보도 등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 | | |

Q4-2) 서울지역의 경기가 왜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부동산 경기 부진 | 2. 소비 부진 | 3. 투자 부진 |
| 4. 세계경기 하락 | 5. 물가 상승 | 6. 정치사회 불안 |
| 7.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 | |

Q5. 일반물가는 1년 전보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까? 덜 오를 것 같습니다까? 아니면 비슷하게 오를 것 같습니다까?

- | | |
|-----------------------|-----------------------|
| 1. 1년 전보다 많이 오른다 | 2. 1년 전보다 조금 오른다 |
| 3. 비슷할 것이다 | 4. 1년 전보다 조금 덜 오를 것이다 |
| 5. 1년 전보다 많이 덜 오를 것이다 | |

Q5-1) 귀댁의 소비지출을 지난 1년 전에 비해 줄일 계획입니까? 아니면 더 늘릴 계획입니까?

- | | | |
|--------------|--------------|------------|
| 1. 많이 늘린다 | 2. 조금 늘린다 | 3. 똑같은 것이다 |
| 4. 조금 줄일 것이다 | 5. 많이 줄일 것이다 | |

Q5-2) 향후 1년간 다음의 소비지출을 어느 정도 늘릴 계획입니까?

	많이 늘림	조금 늘림	불변	조금 줄임	많이 줄임
1) 식료품비	1.....	2.....	3.....	4.....	5
2) 의류비	1.....	2.....	3.....	4.....	5
3) 주거비	1.....	2.....	3.....	4.....	5
4) 교통통신비	1.....	2.....	3.....	4.....	5
5) 교육비	1.....	2.....	3.....	4.....	5
6) 문화오락비	1.....	2.....	3.....	4.....	5

Q6.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형 물건, 예를 들어 가구나 승용차,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대형물건들을 구입하시는데 있어서 지금이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은 때이다 2. 약간 좋은 때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나쁜 때이다 5. 매우 나쁜 때이다

Q7. 지금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은 때이다 2. 약간 좋은 때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나쁜 때이다 5. 매우 나쁜 때이다

Q8. 귀택의 경우,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가계자산에서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년 전보다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예: 가계 자산 1억원, 가계부채가 5000천만원인 경우 순자산은 5000천만원)

1. 많이 늘었다(→ Q8-1로 이동) 2. 조금 늘었다(→ Q8-1로 이동)
3. 똑같다
4. 조금 줄었다(→ Q8-2로 이동) 5. 많이 줄었다(→ Q8-2로 이동)

Q8-1) 순자산이 늘어난 것은 다음 중 주로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1. 부동산이 늘었다 2. 금융자산이 늘었다 3. 부채가 줄었다

Q8-2) 순자산이 줄어든 것은 다음 중 주로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1. 부동산이 줄었다 2. 금융자산이 줄었다 3. 부채가 늘었다

Q9. 귀택에 실업자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Q9-1) 귀하는 향후 1년 동안의 고용상황이 지난 1년 동안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많이 좋아질 것이다 2. 조금 좋아질 것이다 3. 똑같은 것이다
4. 조금 나빠질 것이다 5. 많이 나빠질 것이다

D1. 가구주 직업

1. 관리직, 사무직 2. 전문직, 기술직 3.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4. 자영업 5. 무직/주부 6. 영업직/서비스직 7. 기타

D2. 가구주 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대졸 4. 대학원 이상

D3. 주거형태 :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 월세 4. 무상/기타

D4. 가족수: () 명

D5. 가계연간수입: ()만원

D6. 응답자 연령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2) 2010년 4/4분기 소비자체감경기 부가조사 세부내용

▶ 가구저축이란 전체 가구 소득 중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 다음의 저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1) 귀댁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월평균_____만원 (저축 안하면 문4로)

문2) 소비하고 남은 돈은 다음 중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비중을 말씀
하여 주십시오.

- | | | |
|-----------------|---|----|
| (1) 예금/적금 | (|)% |
| (2) 현금 | (|)% |
| (3)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 (|)% |
| (4) 적립식 펀드 | (|)% |
| (5) 주식투자 | (|)% |
| (6) 기타_____ | (|)% |

문3) 귀댁에서 저축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1. 주택 마련 | 2. 자녀교육비 마련 |
| 3. 노후자금 마련 | 4. 질병 등 재난대비 |
| 5. 투자를 위한 종잣돈 마련 | 6. 기타 () |

문4) 귀댁의 경우 올해 저축규모가 작년에 비해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 | | |
|----------------------|----------------------|
| 1. 많이 늘었다(→문4-1로 이동) | 2. 조금 늘었다(→문4-1로 이동) |
| 3. 똑같다(→문5로 이동) | |
| 4. 조금 줄었다(→문4-2로 이동) | 5. 많이 줄었다(→문4-2로 이동) |

문4-1) 귀댁의 경우 올해 저축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1.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대비하려고 소비를 줄임 |
| 2. 소득이 증가해서 저축 규모를 늘림 |
| 3. 소비가 줄어서/돈 쓸 데가 줄어서 저축규모가 늘어남 |

4. 간접투자상품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서

5. 기타_____

문4-2) 귀택의 올해 저축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소득이 감소해서 | 2.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
| 3. 금리가 낮아져서 | 4. 집안에 관/혼/상/제가 있어서 |
| 5. 부동산을 구입해서 | 6. 그외의 다른 소비가 늘어서 |
| 7. 기타_____ | |

문4-3) (문4에서 1, 2 응답자) 귀택의 저축규모가 늘었다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_____만원

(문4에서 4, 5 응답자) 귀택의 저축규모가 줄었다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_____만원

문5) 만약 이번 달에 월소득만큼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저축을 할 것 같습니까?

추가 저축액_____만원

문5-1) 만약 이번 달에 월소득만큼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실 것 같습니까?

- | | | |
|-----------|------------|----------------|
| 1. 예금/적금 | 2. 현금으로 보유 | 3.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
| 4. 적립식 펀드 | 5. 주식투자 | 6. 기타_____ |

문6)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동안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택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저축률 감소 이유 중 가장 큰 것 두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 | | | |
|--------------|------------------|--------------|
| 1. 주택구입으로 인해 | 2. 자녀 교육비의 증가 | 3. 문화여가비의 증가 |
| 4. 고급 소비 경향 | 5. 통신비 및 주거비의 증가 | 6. 금리가 낮아서 |
| 7. 기타 _____ | | |

3) 2011년 1/4분기 소비자체감경기 부가조사 세부내용

문1)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고급빌라, 연립/다가구 중에 어떤 유형의 집에 살고 계십니까?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연립 및 다가구
4. 고급 빌라 5. 기타_____

문2) 현재 주거하고 계신 집은 자가이십니까? 아니면 임차이십니까?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 월세 4. 무상/기타

문2-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의 주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약 (㎡)

문3) 향후 10년 후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고급빌라, 연립/다가구, 전원주택, 실버타운, 주상복합주택 중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연립 및 다가구 4. 고급 빌라
5. 전원주택 6. 실버타운 7. 주상복합주택

문3-1) 10년 후에는 지금 사시는 집보다 작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큰 집에 살고 싶습니까?

1. 좀 더 큰 집 2. 비슷한 집 3. 좀 더 작은 집

문4) 향후 10년 후 집을 선택하실 때 가장 많이 고려하실 부분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 투자 가치 2. 쾌적한 주거환경 3. 집의 크기
4. 교통 편리성 5. 교육 환경 6. 환경 친화적인 요소
7. 기타_____

문5) 향후 20년 후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고급빌라, 연립/다가구, 전원주택, 실버타운, 주상복합주택 중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1. 아파트 2. 단독주택 3. 연립 및 다가구 4. 고급 빌라
5. 전원주택 6. 실버타운 7. 주상복합주택

1. 예 2. 아니오

1. 많이 오른다 2. 조금 오른다 3.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
4. 조금 떨어진다 5. 많이 떨어진다 6. 잘 모르겠다

4) 2011년 2/4분기 소비자체감경기 부가조사 세부내용

문1) 귀댁에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 몇 명 있습니까? ____명 2. 없다

문1-1) 보육비를 제외하고 미취학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년 대비 지출변화는 어떠합니까?)

사교육 유형	최근 3개월간 지출 경험		월평균 지출액 (최근 3개월 기준)
1) 학습지/학습지 방문교사 포함	1. 있음	2. 없음	만원
2)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3) 예체능학원을 제외한 학원	1. 있음	2. 없음	만원
4) 과외	1. 있음	2. 없음	만원
5) 유치원, 어린이집 특강	1. 있음	2. 없음	만원
6) 기타(문화센터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문2) 귀댁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 몇 명 있습니까? ____명 2. 없다

문2-1)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년 대비 지출변화는 어떠합니까?

자녀 유무	초등학교(____명)		중학생(____명)	
사교육 유형	최근 3개월간 지출 경험	월평균지출액 (최근 3개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지출 경험	월평균지출액 (최근 3개월 기준)
1) 학습지/방문교사 포함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2)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체육, 주 말체육 포함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3) 예체능학원을 제외한 학원(인터넷 강의를 포함하여 보습학원, 영어 학원, 논술학원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4) 과외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5) 방과후 학습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6) 어학연수비/캠프(국내 포함)/ 조기유학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7) 기타(문화센터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1. 있음 2. 없음	만원

문3) 귀댁에 고등학생(대입재수생 포함) 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 몇 명 있습니까? ____명 2. 없다

문3-1) 고등학생(재수생포함)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년 대비 지출변화는 어떠합니까?

사교육 유형	최근 3개월간 지출 경험	월평균 지출액 (최근 3개월 기준)
1) 학습지/방문교사 포함	1. 있음 2. 없음	만원
2) 예체능 학원	1. 있음 2. 없음	만원
3) 예체능학원을 제외한 학원(인터넷강의 포함) (보습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4) 과외	1. 있음 2. 없음	만원
5) 방과후 학습	1. 있음 2. 없음	만원
6) 어학연수비/캠프(국내 포함)/조기유학	1. 있음 2. 없음	만원
7) 기타(문화센터 등)	1. 있음 2. 없음	만원

문4) 귀댁에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 몇 명 있습니까? ____명 2. 없다

문4-1) 대학생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년 대비 지출변화는 어떠합니까?

사교육 유형	최근 3개월간 지출 경험	월평균 지출액 (최근 3개월 기준)
1) 학원	1. 있음 2. 없음	만원
2) 특강	1. 있음 2. 없음	만원
3) 어학연수비/캠프(국내 포함)/유학	1. 있음 2. 없음	만원

문4-2) 금년 들어 귀댁의 대학생자녀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코딩원 계산 후 기입) 월평균 사교육비 총액 : _____만원

문5) (강남구 외지역 거주자만) 귀댁의 초중고생 자녀 중 강남지역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6) 현재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하고 있던 사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예) 초등학생 : 피아노학원 등)

문7) 반면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더라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중학생-영어, 수학, 고등학생 : 영어, 수학 등)

5) 2011년 3/4분기 소비자체감경기 부가조사 세부내용

Q9. 현재 귀댁은 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십니까?

1. 예 (→문9-1로 이동)
2. 아니오 (→문10으로 이동)

Q9-1) 귀댁이 현재 보유하신 자산(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대비 부채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_____%

Q9-2) 귀댁은 현재 소득의 어느 정도를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쓰고 계십니까?
_____%

1. 원리금 상환
2. 이자만 상환

Q9-3) 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생활 자금
2. 사업 자금
3. 자녀 교육비/학자금
4. 실거주 목적 주택관련 자금(구입, 전세, 개보수)
5. 결혼자금(자녀/본인)
6. 가족의 의료비
7.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비
8. 재테크(투자 목적 부동산,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등)
9. 기타 _____

부록 2 기업체감경기 조사표

1) 기업체감경기 기본조사 세부내용

이 조사는 기업인들의 최근 경기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파악하여 경제정책의 수립·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명			전 화		
본사 주소					
상시 종업원수 20 년 월 말 현재			()명		
작성재(작성자 e-mail)	부 서		직 위		
2009년 매출액	억원		2009년 수출액	억원	
업종	제조 () 비제조 ()	기업형태1	대기업 () 중소기업 ()	기업형태2	수출기업 () 내수기업 ()

■ 귀사의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에 “V”표 하여 주십시오.

1. 분기별 경기동향 실적 및 전망

(“비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체는 음영처리된 항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 각 항목은 전년대비 실적 및 전망을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은 전년대비 실적 및 전망을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번호기재	
경기실적 및 전망 (전년대비 기준)				실적	전망
귀사만의 경기전반		① 매우 나쁨 ② 다소 나쁨 ③ 동일 ④ 다소 좋음 ⑤ 매우 좋음		()	()
나쁨 이유 (①②응답)	① 국내수요 감소 ② 해외수요 감소 ③ 자금조달 곤란		()	()	
	④ 가격경쟁력 약화 ⑤ 인력부족 ⑥ 업체간 과당경쟁		()	()	
	⑦ 원자재조달 곤란 ⑧ 환율불안정		()	()	
좋은 이유 (④⑤응답)	⑨ 기 타 ()		)		
	① 국내수요 증가 ② 해외수요 증가 ③ 자금조달 원활		()	()	
	④ 환율안정 ⑤ 가격경쟁력 강화 ⑥ 원자재조달 원활		()	()	
생 산	⑦ 기 타 ()		)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매출	내수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수출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경상 이익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자금 사정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가동률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설비투자규모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2.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번 분기 상황과 다음 분기 전망을 판단하여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수준 실적 및 전망					실적	전망
제품재고수준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종사자수수준	① 매우 감소 ② 다소 감소 ③ 동일 ④ 다소 증가 ⑤ 매우 증가					()	()

2) 2011년 3/4분기 기업체감경기 부가조사 세부내용

문1) 2011년 2/4분기에 비해 3/4분기 귀사의 인력규모에 변동이 있습니까?

구 분	감 소	동 일	증 가
정규직	①	②	③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인턴 등)	①	②	③
총 인력규모	①	②	③

▶ 총 인력규모 ① 감소: 문1-1 응답, ③ 증가: 문1-2 응답

문1-1) 인력규모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정규직의 퇴직, 이직 등의 결원 발생(자발적요인)
2. 비정규직의 퇴직, 이직 등의 결원 발생(자발적요인)
3. 인력구조조정 등 인력 조정(구조적요인)
4. 계약만료 등에 의한 비정규직 퇴직 발생(구조적요인)
5. 기타 ()

문1-2) 인력규모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퇴직, 이직 등의 결원 보충
2. 경기회복을 대비한 생산규모 확대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인재확보
4. 정부지원금 등 채용제도와 여건의 개선
5. 기타 ()

문2) 귀사에서는 2011년 4/4분기에 경력직, 신입채용을 포함하여 채용 계획(수시채용 포함)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문2-1) 2011년 4/4분기에 채용규모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 1) 신입 정규직 : _____명
- 2) 신입 비정규직 : _____명
- 3) 경력 정규직 : _____명
- 4) 경력 비정규직 : _____명

1. 퇴직, 이직 등의 결원 보충 2. 경기회복을 대비한 생산규모 확대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인재확보 4. 정부지원금 등 채용제도와 여건의 개선
5. 기타 ()

애로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신규채용 직원의 조기 퇴직 등 잦은 이직	①	②	③	④	⑤
2. 숙련인력 수급이 어려움 (핵심인력확보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구직자들에 대한 정보 부족 (미스매치)	①	②	③	④	⑤
4. 열악한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5. 낮은 기업인지도	①	②	③	④	⑤

부록3

2010년 4분기부터 최근까지 주요 조사 결과

〈부록표 1〉 서울지역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 형편		경기 판단		구입 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0년 4/4분기	98.5	90.6	110.6	81.5	109.7	100.3	96.5
2011년 1/4분기	101.0	92.5	111.2	85.3	115.6	100.3	104.5
2011년 2/4분기	92.2	90.8	108.7	66.9	101.5	93.1	100.8
2011년 3/4분기	91.3	89.7	106.2	68.0	98.4	94.4	98.5

〈부록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 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0년 4/4분기	93.1	98.0	95.9	107.6	157.9
2011년 1/4분기	95.3	100.5	98.4	107.8	147.7
2011년 2/4분기	95.0	99.8	101.8	100.6	154.5
2011년 3/4분기	94.2	99.8	101.1	97.2	150.5

〈부록표 3〉 서울지역 기업체감경기 지수

구 분	실적				전망			
	'10 4/4분기	'11 1/4분기	'11 2/4분기	'11 3/4분기	'11 1/4분기	'11 2/4분기	'11 3/4분기	'11 4/4분기
매출	96.8	90.6	98.6	100.3	106.5	90.3	102.0	104.1
내수	95.7	90.9	98.6	100.1	107.4	90.5	102.3	103.9
수출	105.4	93.6	97.5	89.3	101.3	102.1	103.2	95.3
생산	101.6	94.3	96.7	94.7	100.9	90.3	104.5	102.1
설비기동률	105.5	90.5	95.1	96.3	98.8	90.8	98.8	103.8
설비투자	102.8	93.7	93.1	99.7	98.7	85.9	93.4	97.7
경상이익	94.8	86.5	107.1	100.6	103.3	89.8	109.7	102.7
자금사정	94.6	86.2	101.2	93.6	103.9	93.0	104.5	97.2
제품재고	104.2	108.0	98.7	95.6	103.8	94.6	95.9	99.3
종사자수	89.4	91.5	93.0	97.0	91.4	88.4	96.1	98.6

영문 요약 (Abstract)



Research on Consumer and Business Survey Index in Seoul

Hee-seok Park · Dong-Hoon Oh

It is believed that the Consumer Survey Index (CSI) and the Business Survey Index (BSI) would be the most useful indicators to understanding the business cycle. In case of South Korea, the national CSI and BSI have been released since 1995 by the Bank of Korea. However, there are not informed abou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egion in the economy of South Korea. To diagnosis economic conditions in SMA, the Seoul Development Institute (SDI) has been quarterly researched CSI and BSI in Seoul since the 4th quarter 2008. These indices are expected to provide primary data for analyzing business cycles and for managing local economic plans as well.

The sample of CSI in Seoul is consisted of 1,000 households who should be aged over 20 to 69, married or ever married, living in Seoul. It is selected by purposive sampling method which is was assigned by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households for each ages and distinction in Seoul. This survey is conducted by phone and indexed as a result of the household responses based on the attitudes and expectations of the consumers concerning the present and future state of the economy, household living standard and consumption expenditure plans, etc.

The sample of BSI in Seoul coverage includes 500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corporations which are located in Seoul. It is selected by Neyman sampling method assigned by proportional distribution of industry and annual sales and conducted by fax. This survey is and based on the attitudes and expectations of the corporation concerning the present and future business situation and employment.

The CSI and BSI are estimated as follows:

$$\text{CSI (BSI)} = \frac{\sum w_i f_i}{n}, \quad i = 1, 2, \dots, 5$$

where w_i is the weight attached to the i th response such as better (w_1)=200, good (w_2)=150, same (w_3)=100, bad (w_4)=50, worse (w_5)=0, f_i is the number of selecting i th responses, and n is the total number of sample. In case of BSI, it is weighted by annual sales and response rate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The index is based on 100 which 100 means that the number of positive answer is equivalent to negative.

The main results of survey are as follows:

Consumer Survey Index in Seoul

	CSI	living conditions		business conditions		expenditure	
		present	expect	present	expect	durable consumer goods	household consumption
4Q 2010	98.5	90.6	110.6	81.5	109.7	100.3	96.5
1Q 2011	101.0	92.5	111.2	85.3	115.6	100.3	104.5
2Q 2011	92.2	90.8	108.7	66.9	101.5	93.1	100.8
3Q 2011	91.3	89.7	106.2	68.0	98.4	94.4	98.5

Business Survey Index in Seoul

	present				expect			
	4Q '10	1Q '11	2Q '11	3Q '11	1Q '11	2Q '11	3Q '11	4Q '11
major	90.8	94.5	94.6	91.1	89.7	97.7	97.9	96.4
sale	96.8	90.6	98.6	100.3	106.5	90.3	102.0	104.1
domestic consumption	95.7	90.9	98.6	100.1	107.4	90.5	102.3	103.9
export	105.4	93.6	97.5	89.3	101.3	102.1	103.2	95.3
product	101.6	94.3	96.7	94.7	100.9	90.3	104.5	102.1
capacity utilization	105.5	90.5	95.1	96.3	98.8	90.8	98.8	103.8
Facility investment	102.8	93.7	93.1	99.7	98.7	85.9	93.4	97.7
ordinary income	94.8	86.5	107.1	100.6	103.3	89.8	109.7	102.7
capital	94.6	86.2	101.2	93.6	103.9	93.0	104.5	97.2
stock	104.2	108.0	98.7	95.6	103.8	94.6	95.9	99.3
employee	89.4	91.5	93.0	97.0	91.4	88.4	96.1	98.6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Result of Survey in 4Q 2010

Chapter 3 Result of Survey in 1Q 2011

Chapter 4 Result of Survey in 2Q 2011

Chapter 5 Result of Survey in 3Q 2011

Appendices

시정연 2010-BR-10

서울지역 소비자 및 기업경기전망 조사

발 행 인 김 상 범

발 행 일 2011년 9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길 57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비매품) ISBN 978-89-8052-831-8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